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3.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더불어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산정함

□ 연구의 필요성

-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 둘째,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 촉진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제고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 방법

□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③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인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중략)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이하 생략)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인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산정됨



□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산정됨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 격차(sex gap)를 측정함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은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 지표로 구성되어 측정함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함

3.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 개편 지역성평등지수는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과 연계하여 3개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로 구성되며, 안전을 가점 영역으로 둠

목표	영역(가중치)	지표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0.143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0.1761)	고용률
		상용근로자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
	소득 (0.1635)	임금 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교육 (0.0809)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평등한 관계	돌봄 (0.1683)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
	양성평등의식 (0.1824)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안전 (가점영역)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야간통행의 안전도	

- 측정방법 및 영역 가중치는 개편 국가 성평등지수와 동일하게 적용

4.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과 개선방향

□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

- 2023년 지역성평등지수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지역성평등지수는 점수에 대한 순위를 범주화하여 보여줌. 즉, 지수의 점수를 순위에 따라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함. 또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순위를 범주화하였기에, 각 범주 내 시·도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제시함.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는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생산되는 통계를 갱신하여 산출되었으며, 미생산 통계는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81.10~79.39점)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이래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성평등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9년 상위권으로 분류되어 2022년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음. 대전광역시는 2017년 상위권에서 2018년 중하위로 하락하지만, 이후 다시 상위권에 진입하여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오르내렸으나, 2020년 상위권에 재진입하면서 2022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됨
- 중상위권 지역은 79.03~77.86점의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22년 기준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중상위권으로 분류됨. 경기도는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후 2020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이후 다시 중상위로 진입하여 이를 유지함. 대구광역시는 2017~2018년 동안 상위권으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 중상위권으로 밀려난 후 2022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함. 부산광역시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함.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는 2017년 이래 중하위권과 중상위권을 오르내렸으나, 2022년 중상위권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77.63~76.48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임.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뒤 2022년까지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상위권에서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후 중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 반면에 충청남도는 2017년 이래 하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하며, 충청북도는 2017년 이래 중하위와 중상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2022년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 성평등 하위권(76.47~75.69점)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임.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2017년 이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2020년 중상위권으로 분류되나, 이후 점차 성평등 등급이 낮아져, 2022년 하위권으로 분류됨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등 급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성평등 상위 지역	대구	대구	광주	대전	대전	광주
	대전	부산	대전	부산	부산	대전
	전북	서울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제주	제주	세종	세종	세종	세종
	-	-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강원	경기	경기	광주	경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서울	충북	충북	인천	충북	인천
성평등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울산	광주	울산	경기	울산	전북
	인천	인천	인천	전북	인천	충남
	충북	전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 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울산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남

주: 각 등급안의 시·도 순서는 가나다순임.

- 2022년 기준 성평등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임. 인천광역시는 2021년 중하위권에서 2022년 중상위권으로, 광주광역시는 2021년 중상위권에서 2022년 상위권으로, 충청남도는 2021년 하위권에서 2022년 중하위권으로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함. 반면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도 전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평등 개선

-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은 4.8점으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이며, 전국 평균 3.9점보다 0.9점 더 높음. 서울특별시(2017년 대비 4.4점 개선되었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4.3점, 제주특별자치도 4.1점, 광주광역시 4.0점, 경상북도 4.0점 등에서 전국 평균(3.9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임. 반면에, 대구광역시(2.7점), 울산광역시(2.3점), 전라남도(2.3점), 강원특별자치도(2.2점), 경상남도(2.1점) 등의 지역에서 2점대의 낮은 개선을 보였고, 전북특별자치도는 0.9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개선을 보임
- 2021년과의 비교에서 성평등 수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5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제주특별자치도(1.8점), 광주광역시(1.5점), 경상북도(1.5점), 대구광역시(1.5점), 대전광역시(1.4점), 전라남도(1.3점), 경기도(1.1점), 충청남도(1.0점), 인천광역시(0.8점) 등에서 전국 평균(0.7점)보다 높은 개선 수준을 보임. 하지만 서울특별시(0.4점), 충청북도(0.3점), 강원특별자치도(0.3점), 경상남도(0.1점)는 2021년 대비 성평등 개선이 매우 낮았고, 부산광역시(-0.3점)와 울산광역시(-0.6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경제활동 분야
 -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84.1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9.6점), 강원특별자치도(79.6점), 대전광역시(78.7점), 전북특별자치도(78.4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78점 이상으로 상위권에 있음
 - 2017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5점)이었고 전북특별자치도(6.3점), 충청남도(5.9점), 서울특별시(5.8점), 강원특별자치도(5.7점), 경상남도(5.5점), 광주광역시(5.0점)의 지역에서 5점 이상 개선됨
 - 전년과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2.7점), 충청남도(2.5점), 대전광역시(2.3점), 경기도(1.9점), 광주광역시(1.6점) 순으로 개선 정도가 높음
- 의사결정 분야
 -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뿐 아니라 전체 분야에서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임. 2022년 기준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 시도는 광주광역시임.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54.2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51.2점), 세종특별자치시(51.1점)에서 50점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해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임. 2017년 대비 대구광역시는 16.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이며, 대전광역시(13.3점), 광주광역시(12.3점), 경기도(11.5점), 부산광역시(11.2점), 인천광역시(11.2점), 충청남도(11.2점), 충청북도(10.0점) 등에서 10점 이상의 개선을 보임
 - 2021년과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이 13.8점으로 가장 높음. 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8.0점), 광주광역시(4.8점), 대전광역시(4.2점) 등의 지역이 4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임. 반면, 울산광역시(-4.7점), 부산광역시(-0.4점), 경상남도(-0.3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직업훈련 분야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8개 분야 중에서도 보건 다음으로 높은 영역임. 성평등 상위권은 세종특별자치시(97.6점), 서울특별시(97.6점), 경기도(97.1점), 인천광역시(97.0점), 울산광역시(96.8점)임
- 2017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1점)와 전라남도(2.0점)이며,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1.5점), 경상북도(1.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 분야

- 복지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8개의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분야로, 2022년 기준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7.0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93.0점), 서울특별시(90.6점), 경기도(88.0점), 대전광역시(87.0점)가 상위권에 위치함
- 2017년도와 비교하여 경기도의 복지 분야 성평등 개선이 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0.4점) 지역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에, 이외 지역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전라남도(1.3점), 세종특별자치시(1.0점), 강원특별자치도(0.6점), 대구광역시(0.3점), 제주특별자치도(0.2점), 서울특별시(0.2점) 순으로 높은 개선을 보임

○ 보건 분야

-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평등을 보이며,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95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을 보임. 2022년 기준 이 분야에서 대전광역시가 99.5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99.0점), 대구광역시(99.0점), 경기도(98.5점), 제주특별자치도(98.4점)가 상위권을 차지함

- 2017년 대비 성평등지수가 1점 이상 개선된 지역은 대구광역시(1.0점), 광주광역시(1.0점), 제주특별자치도(1.0점)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성평등 수준이 1점 미만으로 개선되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21년 대비 보건 분야 1점 이상 성평등 개선 지역은 울산광역시(1.9점), 제주특별자치도(1.1점), 대전광역시(1.0점)임

○ 안전 분야

- 2022년 기준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상북도(86.5점)이며, 충청북도(82.9점), 세종특별자치시(81.5점), 광주광역시(80.8점), 전라남도(80.6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도와 비교하여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가 13.7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경상북도(11.7점), 서울특별시(10.9점), 대전광역시(10.6점), 경기도(10.4점) 지역은 10점 이상의 높은 개선을 보임. 2021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3.5점 상승하였고 그 외 경상북도(2.7점)와 충청북도(2.1점)에서 2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분야

- 2022년 기준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72.9점)이며 충청남도(71.9점), 울산광역시(70.4점), 대전광역시(69.6점), 경상남도(69.2점)가 성평등 상위권 지역이며, 대구광역시(62.3점), 광주광역시(65.0점), 인천광역시(66.5점), 강원특별자치도(66.6점)가 하위권에 위치함
- 2017년과 비교하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성평등 점수의 개선을 보였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13.4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됨. 2021년과 비교하여도 모든 지역이 개선되는데 전년 대비 경상남도가 4.2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서울특별시(3.9점), 울산광역시(3.8점), 세종특별자치시(3.8점) 등에서 개선 수준이 높았음

○ 문화·정보 분야

- 문화·정보 분야는 시도 간 격차가 높은 분야임.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91.5점이며, 대구광역시(91.0점), 부산광역시(90.7점), 서울특별시(89.1점), 울산광역시(88.3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6.4점 향상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5.3점), 경상남도(4.6점), 전북특별자치도(2.3점)에서 2점 이상 개선됨.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2점 향상되었고 전라남도(5.0점), 경상북도(3.8점), 인천광역시(3.7점), 전북특별자치도(3.5점), 대구광역시(3.3점)에서 3점 이상 개선됨

□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시범 측정결과

-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시범 측정 결과, 2022년 기준 평균점수는 70.6점으로, 현행 지역성평등지수(78.2점)와 비교하여 7.6점 낮음
 - 개편 지역성평등지수가 현행 지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이유는 정책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측정지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 2022년 기준 시범 측정은 안전 영역을 가점 영역으로 포함함. 안전 영역의 가점은 현행 지수의 안전 영역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5점을 부여(안전 영역에 완전 평등 상태일 경우)하였음
- 2022년 기준 시범 측정 결과를 보면, 성평등 지역의 구분 결과는 현행과 개편이 크게 다르지 않음. 단, 4개의 지역은 조금 변화가 있었음. 개편 전후로 볼 때, 울산광역시(하위→중하위)와 충청남도(중하위→중상위)는 1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천광역시(중상위→중하위)와 충청북도(중하위→하위)는 1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표 변경에 따른 지역 성평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지역성평등 수준 격차가 크지 않아서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임

〈현행 및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역별 성평등 등급 비교〉

현행	성평등 상위지역	성평등 중상위 지역	성평등 중하위 지역	성평등 하위지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울산, 전남
개편	성평등 상위지역	성평등 중상위 지역	성평등 중하위 지역	성평등 하위지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충북, 전남, 경북, 경남

□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방향

- 서울특별시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은 지속해서 낮은 순위를 보이는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지표 역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표임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하위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서울특별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강력범죄 (홍악법) 피해자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 부산광역시는 2022년 기준 중상위권에 위치하여,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과 진단에 기반한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함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문화·정보
		하위	-
	지표	상위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부산광역시는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등급이 낮아짐. 하락 원인은 안전, 의사결정, 복지, 경제활동,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으로, 지표별로 관리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 대구광역시는 2022년 중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육아휴직자 지표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됨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문화·정보
		하위	가족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여가시간, 여가활용만족도
		하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대구광역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의사결정, 보건,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 인천광역시 2022년 중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이고, 30점 미만 지표는 관리자 비율로 해당 지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하위	가족	
	지표	상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이용률	
		하위	스트레스인지율,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인천광역시는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등급이 높아짐.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 광주광역시는 2022년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분야 간 순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하위권에 속한 가족, 문화·정보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지표를 보면,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없으나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안전
		하위	가족, 문화·정보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광주광역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의사결정, 보건,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지표별로 가족 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없음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 대전광역시 2022년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관리자 비율)와 30점 이상 50점 미만인 지표(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하위	문화·정보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대전광역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 대비 여가시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 울산광역시는 2022년 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보건, 안전 등 하위권 분야의 성평등 수준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표별로는 5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하위	경제활동, 보건, 안전
	지표	상위	5급 이상 공무원,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울산광역시는 전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하며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이지만,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 위치함. 지표별로 상용근로자 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스트레스인자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에 대해서도 그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선 전략이 필요함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하위	-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건강검진 수검률,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동일임. 분야별로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가족 분야의 성평등이 개선되었고, 지표별로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스트레스인자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 경기도는 2022년 중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여가시간들 또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하위	-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기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경제활동, 안전,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했고, 지표별로는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 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의 순위가 높아져서 상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여가시간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중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그리고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로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성평등 점수가 하락한 관리자 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6개 지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됨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보건, 가족, 문화·정보는 순위가 하락함. 지표별로는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설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순위가 높아진 반면,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은 순위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관리자 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 충청북도는 2022년 중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충청북도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로 성평등 개선 노력이 요구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 시간도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충청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하위	복지
	지표	상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상용근로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충청북도는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등급이 낮아짐. 하락 원인은 경제활동, 의사 결정, 복지, 보건, 가족 때문으로, 지표별로는 특히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서 상대적으로 순위 하락이 크게 나타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 충청남도는 2022년 중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충청남도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로 향후 개선 노력이 요구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도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충청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복지, 보건, 문화·정보
	지표	상위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 수급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하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충청남도는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등급이 높아짐. 상승 원인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 순위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등에서의 순위 상승 때문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 전북특별자치도는 중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등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 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음.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분야는 순위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없음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 전라남도는 2022년 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로 향후 보다 세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도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전라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평균교육연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가사노동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라남도는 등급변화가 없음.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가족 분야는 순위가 하락한 반면, 의사결정, 복지, 안전, 문화·정보는 순위가 상승함. 지표별로는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크게 하락한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크게 상승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경상북도는 2022년 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지표별로는 3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의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육아휴직자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인지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상북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지표별로 전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여 성평등을 낮추는 효과를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 시간

- 경상남도는 2022년 하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은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인 경제활동, 의사결정 및 보건 분야의 성평등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이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인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개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상남도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등급이 낮아짐. 하락 원인은 안전, 의사결정,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으로, 지표별로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가활동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임. 단, 가족분야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 크게 상승으로 상위권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 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 분야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이 분야 지표에 대한 성평등 검토가 필요한데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로는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에 대한 성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총 4개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 대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복지, 가족, 문화·정보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성평등 수준이 낮아 안전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 단, 가족, 경제활동, 문화정보 분야에서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크게 높아져서 상위권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5.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관리되어야 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성 불평등이 높은 분야의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작성과 연계 필요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e-나라 지표와 같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II.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7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9
2.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13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21
4.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23
III.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29
1. 성평등 종합수준 비교	31
가. 지역별 성평등지수 결과	31
나.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33
다.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시범 측정 결과	36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39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40
나. 여성의 인권·복지	47
다. 성평등 의식·문화	54
3. 지표별 성평등 수준 비교	60
가. 경제활동 분야 지표	60
나. 의사결정 분야 지표	61
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	63
라. 복지 분야 지표	64

마. 보건 분야 지표	66
바. 안전 분야 지표	67
사. 가족 분야 지표	69
아. 문화·정보 분야 지표	70

IV.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방향	73
1. 서울특별시	75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75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80
2. 부산광역시	82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82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86
3. 대구광역시	88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88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92
4. 인천광역시	94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94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98
5. 광주광역시	100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00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04
6. 대전광역시	106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06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10
7. 울산광역시	112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12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16
8. 세종특별자치시	118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18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21

9. 경기도	123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23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27
10. 강원특별자치도	129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29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33
11. 충청북도	135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35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38
12. 충청남도	140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40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44
13. 전북특별자치도	146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46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49
14. 전라남도	151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51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54
15. 경상북도	156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56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60
16. 경상남도	162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62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66
17. 제주특별자치도	168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168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72
V. 지역성평등지수 관리방안	175
1. 지역성평등지수 요약	177
2.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방안	181

■ 참고문헌	185
■ 부 록	187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189
〈부록 2〉 개편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192
〈부록 3〉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195

표 목 차

〈표 II-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15조	9
〈표 II-2〉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구성	12
〈표 II-3〉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16
〈표 II-4〉 분야별 가중치	17
〈표 II-5〉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값과 가중치	18
〈표 II-6〉 지역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산정 산식	19
〈표 II-7〉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24
〈표 II-8〉 여성폭력 영역 지표	25
〈표 II-9〉 지역성평등지수 개편 전후 지표구성 비교	27
〈표 III-1〉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32
〈표 III-2〉 2021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등급변화	33
〈표 III-3〉 현행 및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역별 성평등 등급 비교	36
〈표 III-4〉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역별 성평등 등급 비교	38
〈표 III-5〉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39
〈표 III-6〉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41
〈표 III-7〉 경제활동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43
〈표 III-8〉 의사결정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45
〈표 III-9〉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47
〈표 III-10〉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48
〈표 III-11〉 복지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50
〈표 III-12〉 보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52
〈표 III-13〉 안전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54
〈표 III-14〉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55
〈표 III-15〉 가족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57
〈표 III-16〉 문화·정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59
〈표 III-17〉 경제활동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61
〈표 III-18〉 의사결정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62

〈표 III-19〉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64
〈표 III-20〉 복지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65
〈표 III-21〉 보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67
〈표 III-22〉 안전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68
〈표 III-23〉 가족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70
〈표 III-24〉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71
〈표 IV-1〉 서울특별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75
〈표 IV-2〉 서울특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79
〈표 IV-3〉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81
〈표 IV-4〉 부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82
〈표 IV-5〉 부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85
〈표 IV-6〉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87
〈표 IV-7〉 대구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88
〈표 IV-8〉 대구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91
〈표 IV-9〉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93
〈표 IV-10〉 인천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94
〈표 IV-11〉 인천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97
〈표 IV-12〉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99
〈표 IV-13〉 광주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0
〈표 IV-14〉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3
〈표 IV-15〉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05
〈표 IV-16〉 대전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6
〈표 IV-17〉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09
〈표 IV-18〉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11
〈표 IV-19〉 울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12
〈표 IV-20〉 울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15
〈표 IV-21〉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17
〈표 IV-2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18
〈표 IV-23〉 세종특별자치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20
〈표 IV-24〉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22
〈표 IV-25〉 경기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23

〈표 IV-26〉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26
〈표 IV-27〉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28
〈표 IV-28〉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29
〈표 IV-29〉 강원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32
〈표 IV-30〉 강원특별자치도 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34
〈표 IV-31〉 충청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35
〈표 IV-32〉 충청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37
〈표 IV-33〉 충청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39
〈표 IV-34〉 충청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40
〈표 IV-35〉 충청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43
〈표 IV-36〉 충청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45
〈표 IV-37〉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46
〈표 IV-38〉 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48
〈표 IV-39〉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50
〈표 IV-40〉 전라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51
〈표 IV-41〉 전라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53
〈표 IV-42〉 전라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55
〈표 IV-43〉 경상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56
〈표 IV-44〉 경상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59
〈표 IV-45〉 경상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61
〈표 IV-46〉 경상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62
〈표 IV-47〉 경상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65
〈표 IV-48〉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67
〈표 IV-49〉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68
〈표 IV-50〉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71
〈표 IV-5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173
〈표 V-1〉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련 기관별 역할	182
〈표 V-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183

그 림 목 차

[그림 I-1]	2023년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II-1]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15
[그림 III-1]	성평등지수 1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	34
[그림 III-2]	2017년 및 2021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35
[그림 III-3]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점수 변화	40
[그림 III-4]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42
[그림 III-5]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44
[그림 III-6]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46
[그림 III-7]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49
[그림 III-8]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51
[그림 III-9]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53
[그림 III-10]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56
[그림 III-11]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58
[그림 IV-1]	서울특별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76
[그림 IV-2]	부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83
[그림 IV-3]	대구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89
[그림 IV-4]	인천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95
[그림 IV-5]	광주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01
[그림 IV-6]	대전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07
[그림 IV-7]	울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13
[그림 IV-8]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18
[그림 IV-9]	경기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24
[그림 IV-10]	강원특별자치도 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30
[그림 IV-11]	충청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35
[그림 IV-12]	충청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41
[그림 IV-13]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46
[그림 IV-14]	전라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51

[그림 IV-15] 경상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57
[그림 IV-16] 경상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63
[그림 IV-17]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169
[그림 V-1]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177

부 표 목 차

〈부표 3-1〉 경제활동참가율	195
〈부표 3-2〉 성별 임금격차	196
〈부표 3-3〉 상용직 근로자	197
〈부표 3-4〉 광역 의회의원	198
〈부표 3-5〉 기초 의회의원	199
〈부표 3-6〉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
〈부표 3-7〉 관리직 근로자	201
〈부표 3-8〉 평균교육연수	202
〈부표 3-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203
〈부표 3-10〉 기초생활수급자	204
〈부표 3-11〉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205
〈부표 3-12〉 국민연금 가입자	206
〈부표 3-13〉 공무원연금 가입자	207
〈부표 3-14〉 사학연금 가입자	208
〈부표 3-1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209
〈부표 3-16〉 건강검진 수검률	210
〈부표 3-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11
〈부표 3-18〉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212
〈부표 3-19〉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213
〈부표 3-20〉 가족관계만족도	214
〈부표 3-2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215
〈부표 3-22〉 육아휴직자	216
〈부표 3-23〉 여가시간	217
〈부표 3-24〉 여가활용 만족도	218
〈부표 3-25〉 인터넷 이용률	219
〈부표 3-2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220
〈부표 3-27〉 스트레스인지율	22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해외 국가¹⁾들은 자국의 성평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 목적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영역별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를 분석하여 성평등 제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의 평등 수준과 영역별 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 개발에 활용되며, 더불어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복지와의 사회경제적인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2022년 기준 현행 「국가성평등보고서」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등 총 8개의 분야에 24개의 지표구성하여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중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지역 성평등지표 및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 확대’ 계획을 근거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 개발되었다. 2015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법 제19조 3항은 지역성평등지표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표구성에 있어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의 정치·경제·행정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을 측정·비교하여 여성 문제가 지역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환류할 목적으로 측정된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시도별로 성평등이 취약한 영역을 보여 주어, 분야별 성평등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가 가지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역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둘째, 지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1) 노르웨이 통계청(2008), 독일 가족노인여성청년부(2011), 영국의 성평등국 등의 국가는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측정 발표하였음.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pp.32~41. 참조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성평등보고서」는 2019년까지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지역 성평등의 분석과 비교하는 보고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3년의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다. I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 방법을 간략히 제시한다. II장은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를 설명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산정 방법, 지수의 특징 등을 설명한다. III장은 성평등 수준의 지역별 수치를 비교한다. 성평등 수준은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6년간의 종합 성평등 수준, 영역별 성평등 수준, 지표별 성평등 수준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시도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파악한다. IV장은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은 각 시도의 변화추이 중심으로 영역, 분야별 지표를 분석하여 불평등한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여 시도별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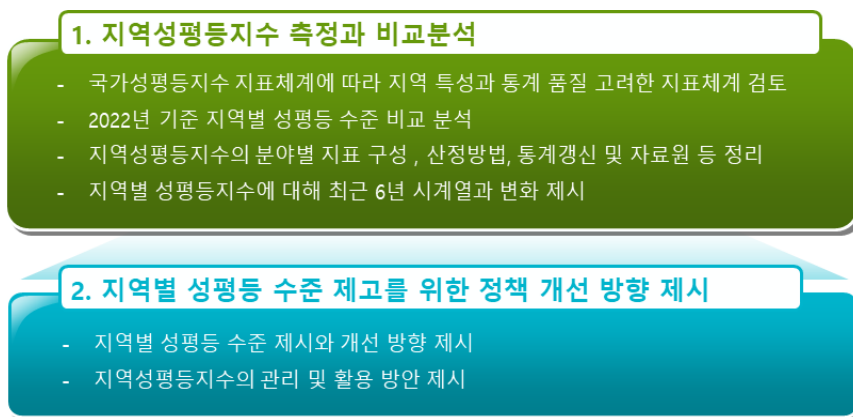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한다.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지역 특성과 통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지표 전반을 검토하고 분야별 지표를 활용하여 2022년 통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및 영역·성평등 수준 분석한다. 분석 기간은 최근 6년간으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영역 및 분야에 대한 변화를 시도별로 분석하고 이를 비교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및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영역과 분야별 지표의 내용 및 자료원을 제시한다.

둘째, 지역별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시도별 성평등 수준은 종합순위, 영역별, 분야별, 지표별로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제시하며, 분석된 결과는 성평등 순위(종합 등급, 상위 혹은 하위 분야와 지표), 전년 대비 등급을 일으킨 주된 원인,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된 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를 기준으로 성 불평등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관리방안을 재정리하고 지역성평등지수의 활용을 위한 방안과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와 특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I-1] 2023년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표준화 방법, 지역성평등 정책을 검토한다. 국내외 지역성평등지표 관련 연구와 지표의 표준화 및 지수산정 방법론 연구 등을 살펴본다.

둘째, 지역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지역성평등지표 산정을 위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지역단위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개편된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구성, 측정 방법, 지수의 공개내용과 공개방식 등을 설명하며, 지표구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

넷째, 지표구성과 점검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자문은 지역성평등지수 구성과 지표 활용 방안,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 방안, 지역성평등지수 산정 방법 등을 자문한다.

II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9
2.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13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21
4.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23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²⁾

지역성평등지수 작성은 2011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가,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제19조 제1항은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근거를 규정하고 더불어 제3항에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근거와 지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보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15조는 국가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분야를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둘째,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셋째,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였다.

〈표 II-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중략)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u>하여야 함.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12.10.), 「양성평등기본법」

2) 주재선 외(2022), 「2022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9~11. 인용함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지표구성에 있어 약간씩 변화해 왔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 결과로 지역성평등지수는 4개의 정책영역에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4개의 정책영역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 결정되었고, 정책목표에 따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가정과 안전한 삶’, ‘소외여성의 사회통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4~5개의 지표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점 영역을 추가하였다.

2012년과 2013년까지의 지표구성은 지수산정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역명 정비와 일부 지표의 재정비를 하였다. 2012년은 가점 영역을 삭제하고 영역명을 변경하였고, 2013년은 일부 지표의 통합, 삭제, 추가 작업이 있었다. 삭제된 지표는 ‘전문직 비율’과 ‘가정폭력 건수’로, 각각 성평등 수준 달성과 지표의 포괄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삭제되고 ‘상용직 근로자 비율’과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로 대체되었다. 이외 대표성 제고 영역의 경우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고 ‘초·중·고 교장 비율’을 추가했다.

2014년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 개편을 하였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은 지역성평등지수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규정(제19조 제3항)함에 따라, 지표구성을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재구성하게 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연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은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지표구성을 기준으로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지표 중 지역단위의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관된 유사 지표로 대체한다. 단, 유사 지표가 생산되지 않으면 지표 구성에서 제외한다. 셋째, 지표구성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지표 연계 시에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연계원칙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구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구성 체계를 따르면서도, 지역 통계생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통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지표 중 ‘비빈곤 가구주 비율’은 통계 신뢰성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대체했다. 이 지표는 전국단위의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되었다. 국가와 지역 성평등지수 연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은 지역 특성으로, 이 원칙에 의해 대체된

지표가 바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다. 지역단위의 성평등 측정에서 국회의원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풀뿌리 정치와 지역 정치적 환경의 성평등 특성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원칙에도 국가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연계하기 어려운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등의 지표는 지표구성에서 삭제하였다.

2016년은 두 개의 지표를 추가하고 하나의 지표를 대체하였다. 추가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과 ‘스트레스인지율’이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은 행정참여의 성 격차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성평등 개선 의지를 지수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한편 경제활동 분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성평등지표와 연계하고 측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로 수정하였다.

2016년 지표구성은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확정된 이래 지표 측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표구성의 변화는 없었다. 이에 이 지표체계는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구성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2.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³⁾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이와 같은 성평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의 세 개 정책영역으로 구성하고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23개의 지표로 구성한다. 또한 ‘동등’이란 개념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성 격차(gender gap)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 격차는 남성 수준과 여성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완전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성 격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평등을 성 격차로 측정하는 방법은 국제성평등지수 산정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념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지만, 집단(국가, 지역)별 발전환경을 통제⁵⁾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히 성 격차는 차이(difference)가 아니라 성비(sex ratio)를 이용하는데, 성비를 이용한 방법은 성별 차이뿐 아니라 수준(혹은 발전 정도)도 고려한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에 적합한 방법이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정하고 있다.

단계 1은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먼저 모든 지표는 평등기준점으로 표준화한다. 지표 값의 범주는 완전불평등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상태인 ‘1’까지이다. 비율로 보면 여성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일 때, 성비는 ‘1’로 완전평등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⁶⁾. 대부분 지표는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평등 기준점 ‘1’을 만족한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이를 만족하지 않거나, 현재의 성별 수준을 감안할 때 완전평등 기준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경우 자연 출생환경에서 성비가 1이 아니다. 즉, 자연출생성비가 1.06이므로 남녀비율 50%에서 완전평등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완전평등한 수준은 자연출생성비 수준의

3) 주재선 외(2022), 「2022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13~21. 인용함

4)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등을 포함해 성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임.

5) 즉, 지역별 혹은 국가별 발전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을 통제할 수 있음.

6)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여성수준이 남성수준보다 높을 경우 지표 값은 완전평등 상태인 ‘1’점을 부여함. 이는 지역성평등지수가 지역의 성평등 상태를 비교하고 더불어 여성의 불평등 개선에 목적을 두고 산정됨을 의미함.

역수인 0.944를 완전평등기준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에 부정적 의미를 주는 지표로서, 성 격차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가 남녀 모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성 격차를 통해 성평등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두 지표는 격차와 더불어 일정 수준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불이익이 가중되도록 하는 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즉, 두 지표의 산정은 인구 대비 최대 발생 건수로 표준화하여 성비 값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경우 2011~2015년 동안은 지역별 최대 발생 건수(완전불평등기준점)를 고려하여 인구 10만명 당 150명으로 두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성폭력에 성추행이 추가되고 성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이를 300명으로 재조정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도별로 2007년~2017년을 기준으로 1,000명 당 최소 15명에서 최대 70명 사이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치를 인구 1,000명 당 100명으로 두고 100명에 가까울수록 불이익이 가중되어 받도록 설계하였다. 이들 지표에 대한 표준화 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 표준화 방식

$$S_f \text{ or } S_m = \frac{[Max(x) - x]}{[Max(x) - Min(x)]}$$

여기서 S_f 와 S_m 은 기준점을 고려한 표준화 점수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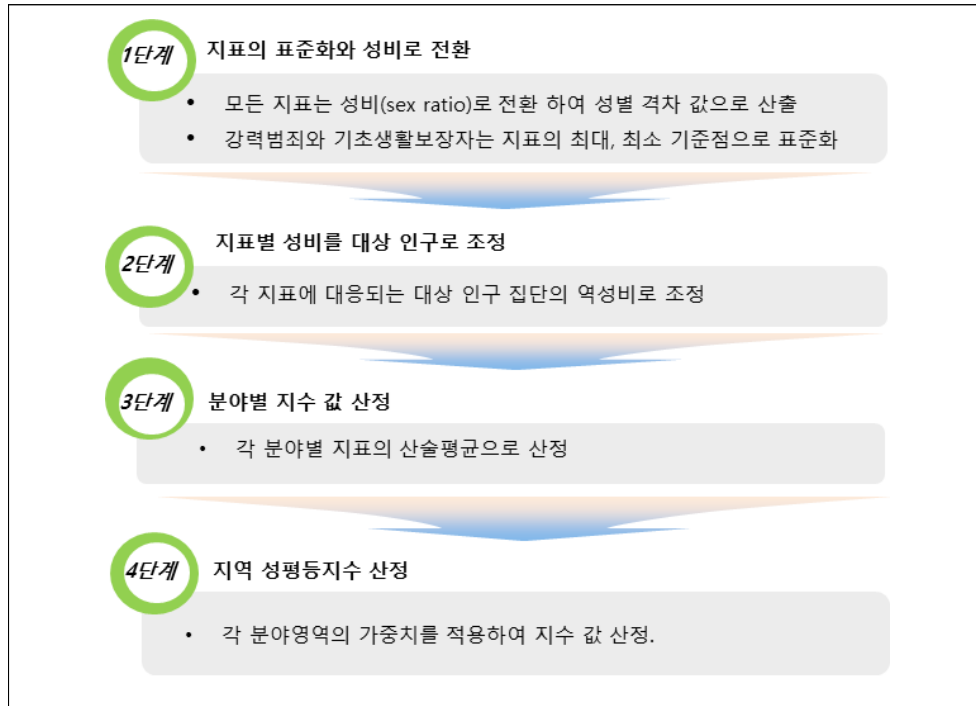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인 경우: $Max(x)=300$, $Min(x)=0$

* 기초생활수급자 지표인 경우: $Max(x)=100$, $Min(x)=0$

여기서 지표를 백분율로 표시할 때, 지표 대부분은 최솟값($Min(x)$)이 0이고 최댓값($Max(x)$)이 100이다.

다음으로 모든 지표는 성비(sex ratio)로 전환하는 것이다. 성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별 발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지역별로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준 차이를 일정 부분 보정해 주면서 성차별을 측정해 준다. 한편 부정적 지표는 긍정적 지표로 변경하여 성비로 전환한다. 스트레스인지율은 비스트레스인지율(100-스트레스인지율)로, 빈곤가구주 비율은 비빈곤가구주 비율(100-

빈곤가구주 비율)로 변경 후 성비가 높을수록 성평등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1]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단계 2는 지표별 성비를 대상 인구로 조정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각 지표의 성비에 대상 인구 집단의 역성비로 통계를 조정하는 단계이다. 이를테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기초 및 광역의원 임후보 자격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해당 지역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한다. 또 ‘관리자 비율’, ‘상용근로자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등은 지표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의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남녀의 취업률에 큰 영향을 받는 지표로, 하루 동안 업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은 취업률을 고려해 가사시간을 조정하여 성비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취업률과 비취업률의 평균을 이용하여 가사시간 성비를 계산하였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와 같이 두 개의 지표를 통합한 경우에는 각 지표 값의 규모와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은 정책 결정의 영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비율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분야	구성지표	가중치(보정 값)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성비 역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성비 역수
	관리자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체 인구 성비 역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59세 인구 성비 역수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
	스트레스인자율	-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
가족	가사노동시간	동일 취업률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6의 역수
	가족관계만족도	-
	육아휴직자	-
문화·정보	여가시간	동일 취업률 가정
	여가만족도	-
	인터넷 이용률	-

단계 3은 분야별 지수 산정 단계이다. 분야별 지수는 지표의 성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지표의 값은 완전불평등 '0'에서 완전평등 '1'까지 범위를 가지며, 생산 여부에 따라 측정통계와 추정통계를 활용한다. 추정통계는 생산주기가 1년 이상(2년 혹은 5년)인 경우와 1년을 주기로 해도 당해 생산되지 않으면 추정치를 활용한다. 지역성평등지수 중 5년 주기 지표는 '평균교육연수',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며, 2년 주기 지표는 '전반적 사회안전인식'과 '여가만족도'이다. 이들 지표가 생산되는 연도는 측정지표 값을 활용하지만, 그 외 지표는 추정치를 활용한다. 추정치는 두 값 사이의 경우 내삽법(interpolation)을 통해 추정했고 두 값 다음 연도의 경우 외삽법(extrapolation)을 통해 추정하였다. 단, 4년 주기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값은 선거 이후 보궐선거가 아니면 다음 선거까지 통계변화가 거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가 생산되는 해까지 동일한 지표 값을 사용하고 있다.⁷⁾

마지막 단계 4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은 분야별 가중치를 이용해 계산한다. 분야별 가중치 산정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 가중치⁸⁾는 경제활동이 0.19,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와 의사결정이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문화·정보가 0.08이다.

〈표 II-4〉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과정을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경제활동 분야의 3개 지표 값과 가중치이다.

7) 선거를 통해 얻은 통계는 선거 당해 당선자를 기준으로 지표 값을 산정함. 선거에 의한 의회 의원과 단체장 당선자 통계는 매년 다양한 이유로 성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의회위원의 경우 의원 자격이 박탈될 때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성비가 변경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 또한 재선거 등이 이루어지면 성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하지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가 공표될 때까지 이와 같은 방법을 유지하고자 함.

8) 가중치는 2009년 교수, 관련 연구자,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표 II-5〉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값과 가중치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임금격차 (천원)	상용직 근로자 (천명)	지표 가중치	
				임금근로자 (천명)	취업자 (천명)
여성	52.6	1,806	987	1,826	2,246
남성	72.7	2,889	1,537	2,181	2,852

○ 단계 1: 각 지표의 성비(여/남)의 백분율을 구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frac{52.6}{72.7} \times 100 = 72.35$
- 성별 임금격차: $\frac{1,806}{2,889} \times 100 = 62.51$
- 상용직 근로자: $\frac{987}{1,537} \times 100 = 64.22$

○ 단계 2: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재계산한다.

- 상용직 근로자 성비는 임금근로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
 $: 64.22 \times \frac{2,181}{1,826} = 76.71$

○ 단계 3: 표준화된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여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 경제활동 영역: $\frac{72.35 + 62.51 + 76.71}{3} = 70.52$

○ 단계 4: 다른 분야의 지수도 단계 1에서 단계 3을 통해 동일하게 계산되며, 지역 성평등지수는 각 분야의 가중치(〈표 II-6〉)를 이용하여 최종 산정하게 된다.

- (예) 가족 분야: 59.56, 복지 분야: 79.54, 보건 분야: 87.84,
 의사결정 분야: 28.97, 교육·직업훈련 분야: 95.92,
 문화·정보 분야: 84.71, 안전 분야: 53.90

- 지역성평등지수

$$= 59.56 \times 0.11 + 79.54 \times 0.13 + 87.84 \times 0.10 + 70.52 \times 0.19 \\ + 28.97 \times 0.13 + 95.92 \times 0.14 + 84.71 \times 0.08 + 53.90 \times 0.12 = 69.51$$

〈표 II-6〉 지역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산정 산식

분야별 지표	지표 값 측정 방법	측정 산식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X = [F / M]$
성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직 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광역의원 성비와 기초의원 성비 평균	$X = W_m/f \times [F_{\text{광역}} / M_{\text{광역}} + F_{\text{기초}} / M_{\text{기초}}] / 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대상 남녀 공무원 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관리자 비율	대상 남녀 취업자 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F / M]$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위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F / M]$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명 당 100명을 최대치로 표준화함	$X = [S_f / S_m]$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 \frac{100 - x}{100}$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분야별 지표	지표 값 측정 방법	측정 산식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X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X = [F / M]$
스트레스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X = [F' / M'] * \text{비스트레스인지율로 변경 후 성비}$ 여기서 $F'=100-F$, $M'=100-F$.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대상 인구 비율로 조정된 사회 안전 인식 성비	$X = W_m/f \times [F / M]$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X = [S_f / S_m]$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 \frac{300 - x}{300}$ *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명 당 300명을 최대치로 표준화함
가족		
가사노동시간	남녀 취업 구조를 통제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X = 1 / [(T_{Ef} + T_{Nf}) / (T_{Em} + T_{Nm})]$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 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F / M] \div 1.06 * 1.06$ 는 자연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역수)	$X = W_f/m \times [M / F]$
문화·정보		
여가시간	남녀 취업 구조를 통제한 여가시간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X = [F / M]$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3)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 비율, 남성비율,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을 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5) LT_Em, LT_Nm, LT_Ef, L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⁹⁾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즉,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성평등하다는 개념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이며, 성 격차 해소를 주목적으로 측정되는 지수라 할 수 있다. 격차(gap)는 빈곤, 임금, 기술수준 등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차이(difference)와 비(ratio)를 활용해서 측정하게 된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지표의 성 격차를 남성 대비 여성 비로 활용하고 있다. 수준(level)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 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접근 정도(평등 정도)를 알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갖는다. 즉, 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을 측정하면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격차는 지역의 발전 상태와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격차는 성별의 절대적 성취 정도가 평등에 반영되지 못해서 직감적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지표구성은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활용한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결과적 평등상태, 즉 남녀의 성과 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다. 2011년에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에서 가점 영역을 두어 성평등 정책 활성화 차원으로 5개의 투입지표를 구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점 영역의 투입지표는 2012년부터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역성평등 수준이 가점 영역의 투입지표로 인해 순위변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로 국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 제도와 정책 수단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성과 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된다. 성평등지수 산정은 보통 ‘여성의 수준 상승’ 혹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성평등지수 개발 시 ‘여성의 수준 상승’과 ‘성평등’ 달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목적 혹은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9) 주재선 외(2022), 「2022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20~21. 인용 및 일부 수정함.

성평등 개선에 더 큰 지향점을 갖는다면, 지수는 성별 수준의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게 된다. 즉, 차이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반면 여성 수준 상승에 더 큰 목적을 하고 있다면, 지수는 남성 수준과 관계없이 여성 수준이 낮은 부분에 더 관심을 끌게 된다. 즉, 정책의 방향이 남성과의 격차보다 여성의 수준 향상에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하게 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 격차의 해소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산정되고 있다.

4.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과 변경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젠더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지수의 안전 지표는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 측정이나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의 지표로는 그동안 누적된 심각한 젠더폭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적합성이 부족하며, 젠더폭력의 측정에 있어서도 폭력피해자의 성별 격차가 아니라 젠더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구성이 필요했다.

둘째,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셋째 아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만족도, 정보화 격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아 출산율은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저출산 시대에 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높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정보화 격차 등은 가족 내의 성불평등과 변화된 사회에서의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셋째, 성평등지수 전면 개편의 또 다른 배경은 현행 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책활용도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를 구분하여, 대표지표는 성평등지수 산정지표로 활용하고, 관리지표는 부처별로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를 활용한 산정 이외 관리지표는 부처별 협력 부족으로 정책개선 도구로서 역할이 높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 논의와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고, 2020년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타당성 검증과 가중치 설정, 공청회 등을 거쳤다. 그리고 2021년 개편안에 대해 지수검토위원회를 통해 재차 지표를 검토·보완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견 조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후 2022년 1월 최종안에 대해 양성평등평등위원회의 심의·확정하였다. 그리고 2023년은 젠더의식 영역의 명칭과 지표의 통계적 문제로 인해 영역 명과 일부 지표를 변경하였다. 젠더의식 영역은 명칭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식 영역으로 영역 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 영역 지표 중 노동시장 성평등태도는 통계 품질 문제로 인해 삭제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경험률을 양성평등

의식 영역에 새로 추가하여 보완한 국가성평등지수의 최종 지표 안을 제안하였다.

개편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의성과 적합성을 갖춘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성평등지수 프레임워크는 성평등을 권한 및 자원의 동등한 분배, 인정(recognition), 그리고 동등한 참여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성평등 개념을 기반으로 3대 목표를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노동,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의식 등 7개 영역을 측정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성 폭력은 특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7〉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목표	영역	지표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 여성 비율
	소득	임금격차
		빈곤율(비빈곤율)
		국민연금수급률
	교육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목표	영역	지표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폭력	특별영역으로 관리

〈표 II-8〉 여성폭력 영역 지표

세부영역	지표	자료원(주기)
발생현황	성폭력 범죄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분석(1년 주기)
	여성 살해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분석(1년 주기)
피해현황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3년 주기)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3년 주기)
사회환경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개편 지역성평등지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에 따라 기본적으로 개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성평등지수 측정은 동일한 목표와 영역으로 지표를 구성하며, 지역 특성과 통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표 II-9〉는 현행과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간략히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지표구성에서 삭제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촉위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의식,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이다. 이들 지표의 삭제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변화로 인해 성평등 지표로써, 부적절하거나 의미가 낮아진 지표들이다.

한편 성평등의 관점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추가된 지표도 있다. 추가된 지표는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경력단절 여성비율, 기대수명,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이들 지표는 성평등 관점을 언급할 때 많이 언급되는 지표들로, 지역 통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통계로 추가되었다. 이외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경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가입률, 건강 관련 삶의 질 지표(EQ-5D)로 각각 고용률, 국민연금 수급률, 주관적 건강 상태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성평등지수는 안전 영역을 가점 영역으로 두고 있다. 성평등지수가 개편되면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또한 법령에 따라 재구성하게 됨에 따라 지수의 지표구성에서 안전 영역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안전 영역은 지역의 성평등한 안전 정책 추진에 있어 자주 활용되며, 안전 수준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지표구성에서 안전 영역을 제외했지만, 여성 폭력을 특별지표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성 폭력 지표는 지역 통계생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지역을 포괄하여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령에 따라 영역의 체계를 맞추면서, 이를 보완할 방법의 하나로 안전 영역을 가점 영역으로 포함하였고 향후 지표구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공무원과 연구원 포함한 전문가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보완할 예정이다.

〈표 II-9〉 지역성평등지수 개편 전후 지표구성 비교

〈 현 행 〉			〈 개 편 〉		
◆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			◆ 3대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		
영역	분야 (가중치)	지표	목표	영역 (가중치)	지표
사회 참여	의사 결정 (0.1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0.143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위원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경제 활동 (0.19)	경제활동참가율(15~64)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0.1761)	고용률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상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비율
	교육직업 훈련 (0.14)	평균교육연수		소득 (0.1635)	임금 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인권 복지	복지 (0.1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교육 (0.0809)	국민연금 수급률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평균교육연수
	보건 (0.1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별 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 (0.0854)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인지율			기대수명
	안전 (0.12)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정신건강 (스트레스 비인지율)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평등한 관계	돌봄 (0.1683)	가사노동 시간
의식 문화	가족 (0.11)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사용
		가족관계만족도		양성평등 의식 (0.1824)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성차별 경험률
		육아휴직 참여자 비율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문화 정보 (0.08)	여가시간	(가점)	안전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여가만족도			야간통행의 안전도
		인터넷 이용률			

Ⅲ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1. 성평등 종합수준 비교	31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39
3. 지표별 성평등 수준 비교	60

1. 성평등 종합수준 비교

가. 지역별 성평등지수 결과

지역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17개¹⁰⁾ 시·도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측정에 활용되는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¹¹⁾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종합점수는 수준의 순위를 범주화하여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순위를 범주화 하였기에, 각 범주 내 시·도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각 범주는 2022년 지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범주의 성평등 점수 최대와 최소치를 함께 제시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 상위 지역(81.10~79.39점)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이래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부터 성평등을 측정하기 시작했고 작성 기준이 된 2019년 상위권으로 분류된 이래 2022년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7년 상위권에서 2018년 중상위로 하락하지만, 이후 다시 상위권에 진해하여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오르내렸으나, 2020년 상위권에 재진입하면서 2022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중상위권 지역은 79.03~77.86점의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22년 기준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후 2020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이후 다시 중상위로 진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7년과 2018년 상위권으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 중상위권으로 밀려난 후 2022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한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는 2017년 이래 중하위권과 중상위권을 오르내렸으나, 2022년 중상위권에

10)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부터 통계 지표가 모두 생산되어 2019년부터 측정에 포함되었으며, 통계의 갱신 등으로 일부 지역의 과거 성평등 수준이 소폭 변동이 있었음.

11) 본 연구에서 성평등이 높다는 것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로,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인 성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77.63~76.48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뒤 2022년까지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상위권에서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후 중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2017년 이래 하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하며, 충청북도는 2017년 이래 중하위와 중상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2022년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표 III-1〉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등 급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성평등 상위 지역	대구	대구	광주	대전	대전	광주
	대전	부산	대전	부산	부산	대전
	전북	서울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제주	제주	세종	세종	세종	세종
	-	-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강원	경기	경기	광주	경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서울	충북	충북	인천	충북	인천
성평등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울산	광주	울산	경기	울산	전북
	인천	인천	인천	전북	인천	충남
	충북	전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 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울산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남

주: 1) 각 등급 안의 시·도 순서는 가나다순임.

2)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성평등 하위권(76.47~75.69점)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이다.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2017년 이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2020년 중상위권으로 분류되나, 이후 점차 성평등 등급이 낮아져, 2022년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2022년 기준 성평등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이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중하위권에서 2022년 중상위권으로, 광주광역시는 2021년 중상위권에서 2022년 상위권으로, 충청남도는 2021년 하위권에서 2022년 중하위권으로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반면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는 전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한 단계 하락하며, 울산광역시는 2020년 중상위권, 2021년 중하위권에 위치하나, 2022년은 한 단계 더 하락하여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2021년 중상위권에서 한 단계 하락하여 2022년 중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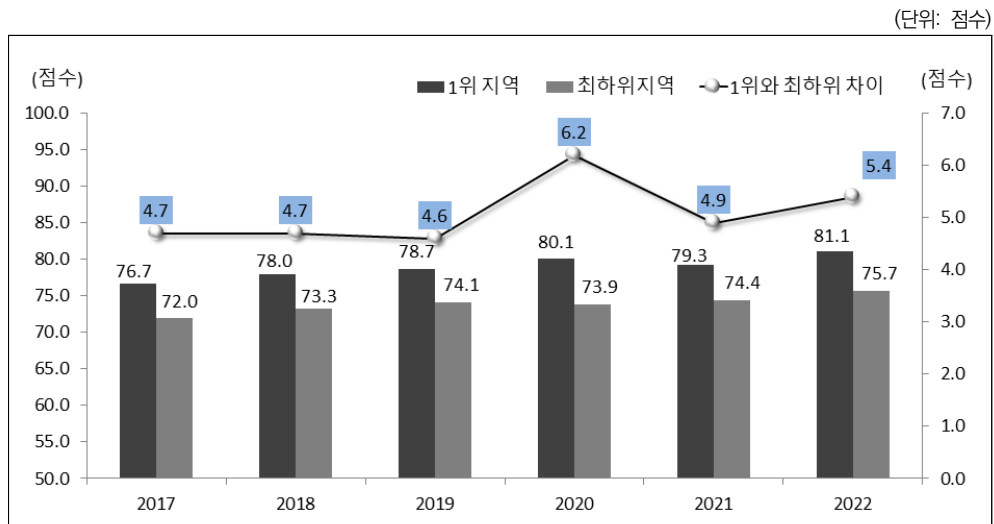
〈표 Ⅲ-2〉 2021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등급변화

구분	지역
성평등 등급 상승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성평등 등급 유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등급 하락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나.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성평등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등·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2017년 4.7점에서 2018년 4.7점, 2019년 4.6점으로 점차 좁혀졌으나, 2020년 6.2점으로 급상승한다. 2021년은 다시 4.9점으로 격차가 낮아졌으나, 2022년은 5.4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성평등 1위 지역의 점수는 2017년 76.7점, 2018년 78.0점, 2019년 78.7점, 2020년 80.1점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21년 79.3점으로 약간 낮아졌고 2022년 81.1점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2022년 기준 성평등 1위 점수는 2017년 대비 4.4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역 중 최하위 점수는 2017년 72.0점에서 2018년 73.3점, 2019년 74.1점, 2020년 73.9점, 2021년 74.4점, 2022년 75.7점으로 2020년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 이외에는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2022년 성평등 최하위 수준 점수는 2017년 대비 3.7점 개선되어, 성평등 1위 지역 점수보다 약간 낮은 개선 수준을 보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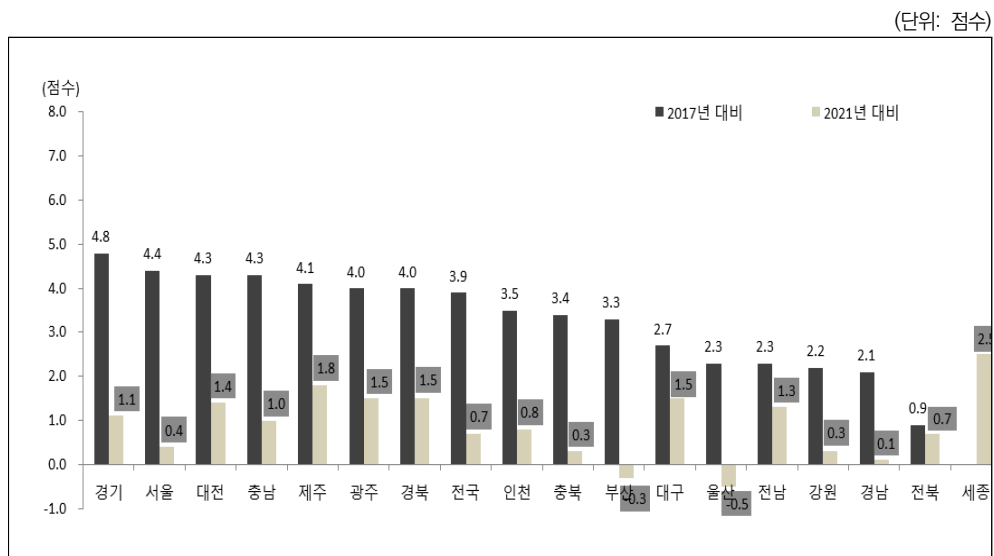
[그림 III-1] 성평등지수 1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이 모든 시도에서 점차 개선되면서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상위권에 있는 지역, 즉 6위와 9위 지역과 중하위권 지역의 차이는 1.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표 III-1) 참조).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경기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2017년 대비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은 4.8점으로 전국 평균 3.9점 보다 0.9점 더 높다. 다음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017년 대비 4.4점 개선되었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4.3점, 제주특별자치도 4.1점, 광주광역시 4.0점, 경상북도 4.0점 등에서 전국 평균(3.9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반면에, 대구광역시(2.7점), 울산광역시(2.3점), 전라남도(2.3점), 강원특별자치도(2.2점), 경상남도(2.1점) 등의 지역에서 2점대의 낮은 개선을 보였고, 전북특별자치도는 0.9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개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시도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상위권에서 2022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2017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2017년 중하위권에서 2022년 중상위권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2017년 중상위에서 2022년 상위권으로 상승

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단,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평균 이상의 개선에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1년과의 비교에서 성평등 수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5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제주특별자치도(1.8점), 광주광역시(1.5점), 경상북도(1.5점), 대구광역시(1.5점), 대전광역시(1.4점), 전라남도(1.3점), 경기도(1.1점), 충청남도(1.0점), 인천광역시(0.8점) 등에서 전국 평균(0.7점)보다 높은 개선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0.4점), 충청북도(0.3점), 강원특별자치도(0.3점), 경상남도(0.1점)는 2021년 대비 성평등 개선이 매우 낮았고, 부산광역시(-0.3점)와 울산광역시(-0.6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2021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부산광역시는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울산광역시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한 등급 내려왔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는 각각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에서 한 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2] 2017년 및 2021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다.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시범 측정 결과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시범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70.6점이다. 이는 현행 지역성평등지수(78.2점)와 비교하면, 7.6점 낮은 점수이다. 이는 개편 지역성평등지수가 현행 지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이유는 정책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측정지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개편 지수의 지표는 양성평등 정책 이슈에 따라 기존 지표 중 성 격차가 많이 감소하거나, 의미가 낮아진 지표(일반적으로 성평등이 높은 지표)가 삭제되고 양성평등 이슈가 높은 지표(일반적으로 성 격차가 큰 지표)를 성평등 지표로 추가하였다.¹²⁾ 2022년 기준 시범 측정은 안전 영역을 가점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안전 영역의 가점은 현행 지수의 안전 영역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5점을 부여(안전 영역에 완전 평등상태일 경우)하였다.

2022년 기준 시범 측정 결과를 보면, 구간별 점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성평등 지역의 구분 결과는 현행과 개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4개의 지역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 개편 전후로 볼 때, 울산광역시(하위→중하위)와 충청남도(중하위→중상위)는 1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천광역시(중상위→중하위)와 충청북도(중하위→하위)는 1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표 변경에 따른 지역 성평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지역성평등 수준 격차가 크지 않아서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표 III-3〉 현행 및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역별 성평등 등급 비교

현행	성평등 상위지역	성평등 중상위 지역	성평등 중하위 지역	성평등 하위지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울산, 전남
개편	성평등 상위지역	성평등 중상위 지역	성평등 중하위 지역	성평등 하위지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충북, 전남, 경북, 경남

12) 가족관계만족도(96.9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100.0점), 건강관련 삶의 질(97.3점), 건강검진수검률(98.6점) 등의 성격차가 낮은 지표 삭제된 반면에, 노동시장 직종분리(72.9점), 경력단절여성비율(72.7점), 초·중·고 교장·교감비율(33.0점), 성역할 고정관념(60.1점) 등 상대적으로 성격차가 높은 지표 추가되어 개편 지수는 현행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 참고로 현행과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성평등 점수 차이는 주재선 외(2023) 「국가성평등보고서」, ‘다. 현행과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성평등 차이와 원인’(pp.84~86)를 참조바람.

영역별 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교육 영역이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높고 건강, 양성평등의식, 고용, 소득, 돌봄, 의사결정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영역은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로 측정되며,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점수는 광주광역시로, 50.6점을 보였다.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가 40점 이상이고 이외 지역은 4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상용근로자비율, 경력단절여성비율로 측정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84.2점으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가 70.0점으로 가장 낮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가 80점 이상의 성평등을 보였다.

한편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로 측정되는 교육 영역은 모든 지역에서 91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건강 영역은 주관적 건강 상태, 기대수명, 스트레스인지율로 측정되며,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서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영역은 7개 영역 중 의사결정 다음으로 낮은 영역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자 지표로 측정된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47.4점이다. 이외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에서 40점 이상의 성평등을 보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인권에 대한 태도, 성차별 경험률로 측정하며,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난다. 즉,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82.8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도(78.4점)로, 두 지역 간 양성평등의식 차이는 4.4점이었다.

가점 영역인 안전 영역의 경우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과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로 측정하며, 세종특별자치도가 77.6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61.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Ⅲ-4〉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역별 성평등 등급 비교

구분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 의식	안전 (가점영역)
서울	35.6	83.9	76.5	96.8	94.0	36.0	81.9	64.7
부산	37.2	78.7	66.9	95.7	93.1	35.0	81.7	73.9
대구	43.1	78.5	68.9	95.9	94.0	29.9	81.9	75.0
인천	32.4	77.3	70.3	96.6	92.4	36.4	81.4	68.0
광주	50.6	77.5	69.5	95.6	94.5	31.4	81.6	71.2
대전	41.7	80.0	73.5	95.3	95.5	39.9	80.9	68.5
울산	33.6	70.0	69.2	96.7	92.2	44.0	82.2	68.9
세종	42.4	78.3	78.8	96.1	91.5	35.7	78.4	77.6
경기	32.1	78.8	75.3	96.7	93.7	36.1	79.6	70.8
강원	30.4	80.0	69.8	94.0	92.0	36.8	82.8	68.8
충북	28.7	78.3	71.6	94.4	92.8	36.2	79.4	71.9
충남	30.8	77.5	71.8	94.3	91.1	44.3	82.5	71.5
전북	34.6	82.1	64.6	93.3	92.1	36.1	81.6	75.1
전남	30.1	78.3	65.5	91.5	91.2	38.2	80.9	72.8
경북	25.3	78.0	66.6	93.1	89.4	40.3	79.7	76.2
경남	26.6	76.5	70.2	94.5	92.3	39.6	82.0	73.7
제주	41.8	84.2	79.2	95.1	93.6	47.4	81.3	61.4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의 영역과 8개의 분야, 23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3개의 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정책영역으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71.2점으로 2017년과 비교하여 5.1점 상승하여 세 영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0.7점 개선되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의 세 개 분야를 통해 측정된다. 2022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87.1점으로 세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성평등 개선은 2017년과 비교하여 1.9점 상승, 2021년과 비교하여 0.3점 하락하는 등 개선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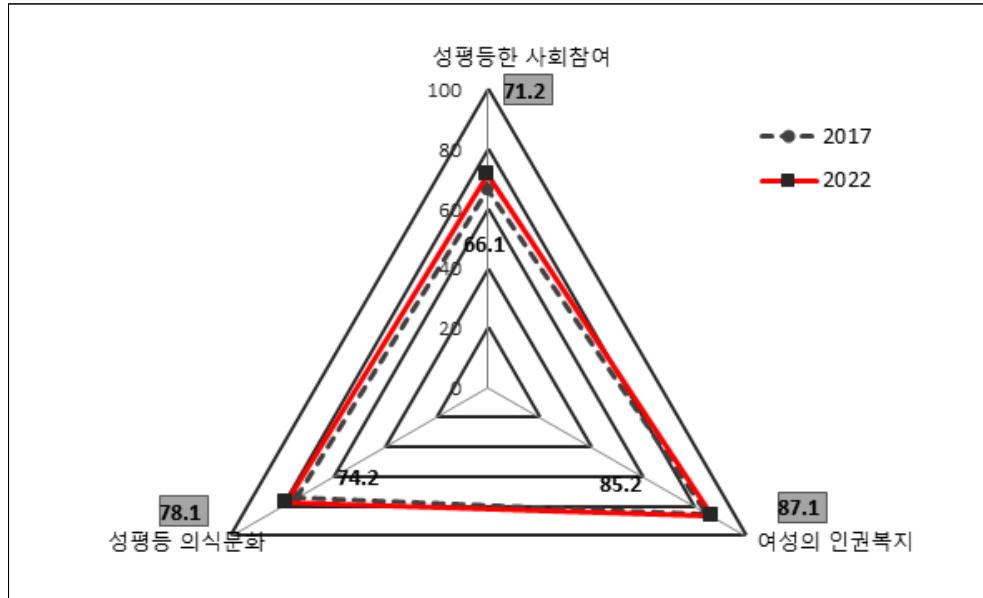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를 포함하여 측정된다. 2022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78.1점으로 세 영역 중 두 번째로 높다.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3.9점 높아졌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5〉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점수)

구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2017		66.1	85.2	74.2
2018		68.5	85.2	74.8
2019		69.4	86.3	75.3
2020		69.7	87.0	75.6
2021		70.5	87.4	76.2
2022		71.2	87.1	78.1
증감	2021년 대비	0.7	-0.3	1.9
	2017년 대비	5.1	1.9	3.9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점수 변화

세 개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변화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점수를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1.1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80.8점), 대전광역시(80.1점) 순으로 높았다. 이 영역의 하위권에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75.7점), 경상남도(75.9점), 경상북도(76.0점), 울산광역시(76.5점)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별 성평등 개선 수준을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2017년 대비 4.8점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특별시(4.4점)의 개선이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4.3점)와 광주광역시(4.0점) 등에서 4점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도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충청남도(4.3점), 제주특별자치도(4.1점), 경상북도(4.0점)에서 4점 이상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과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2.5점으로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제주특별자치도

(1.8점), 경상북도(1.5점), 대구광역시(1.5점), 광주광역시(1.5점), 대전광역시(1.4점), 전라남도(1.3점), 전라남도(1.3점), 경기도(1.1점), 충청남도(1.0점) 등에서 1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반면에 울산광역시(-0.5점)와 부산광역시(-0.3점)에서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6〉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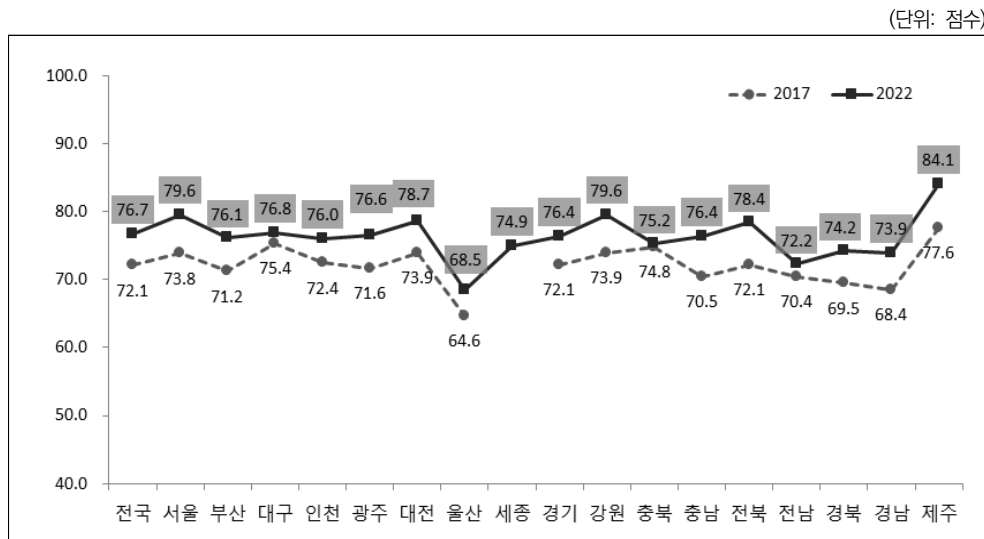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75.3	6	76.6	4	77.0	7	78.3	4	79.3	1	79.7	4	0.4	4.4
부산	75.2	7	77.0	3	78.1	5	78.6	2	78.8	3	78.5	8	-0.3	3.3
대구	76.3	2	77.2	2	77.7	6	78.0	7	77.5	8	79.0	6	1.5	2.7
인천	74.4	9	75.7	9	76.6	10	76.9	9	77.1	10	77.9	9	0.8	3.5
광주	75.4	5	75.7	10	78.6	2	78.1	6	77.9	7	79.4	5	1.5	4.0
대전	75.8	3	76.5	5	78.1	4	78.5	3	78.7	4	80.1	3	1.4	4.3
울산	74.2	11	75.8	8	75.9	11	77.3	8	77.0	11	76.5	14	-0.5	2.3
세종	-	-	-	-	78.7	1	78.2	5	78.6	5	81.1	1	2.5	-
경기	74.2	10	76.2	7	76.7	9	76.9	10	77.9	6	79.0	7	1.1	4.8
강원	74.5	8	75.2	12	75.6	13	76.3	12	76.4	12	76.7	11	0.3	2.2
충북	74.2	12	76.4	6	76.8	8	76.3	13	77.3	9	77.6	10	0.3	3.4
충남	72.3	15	73.9	14	75.2	15	75.9	15	75.6	15	76.6	12	1.0	4.3
전북	75.6	4	75.4	11	75.8	12	76.3	11	75.8	13	76.5	13	0.7	0.9
전남	73.4	14	74.2	13	74.6	16	73.9	17	74.4	17	75.7	17	1.3	2.3
경북	72.0	16	73.3	16	74.1	17	74.9	16	74.5	16	76.0	15	1.5	4.0
경남	73.8	13	73.8	15	75.5	14	76.3	14	75.8	14	75.9	16	0.1	2.1
제주	76.7	1	78.0	1	78.4	3	80.1	1	79.0	2	80.8	2	1.8	4.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84.1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9.6점), 강원특별자치도(79.6점), 대전광역시(78.7점), 전북특별자치도(78.4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78점 이상으로 상위권에 있다. 반면, 경제활동 분야에서 울산광역시(68.5점), 전라남도(72.2점), 경상남도(73.9점), 경상북도(74.2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 하위권을 차지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4]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2017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5점)이었고 전북특별자치도(6.3점), 충청남도(5.9점), 서울특별시(5.8점), 강원특별자치도(5.7점), 경상남도(5.5점), 광주광역시(5.0점)의 지역에서 5점 이상 개선되었다. 동기간 성평등 개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충청북도로 0.4점 개선에 그쳤고, 대구광역시(1.4점), 전라남도(1.8점)에서 성평등 개선이 2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2.7점), 충청남도(2.5점), 대전광역시(2.3점), 경기도(1.9점), 광주광역시(1.6점) 순으로 개선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충청북도(-1.6점)와 부산광역시(-0.5점)에서는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에 따라,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7년 대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활동 분야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등은 성평등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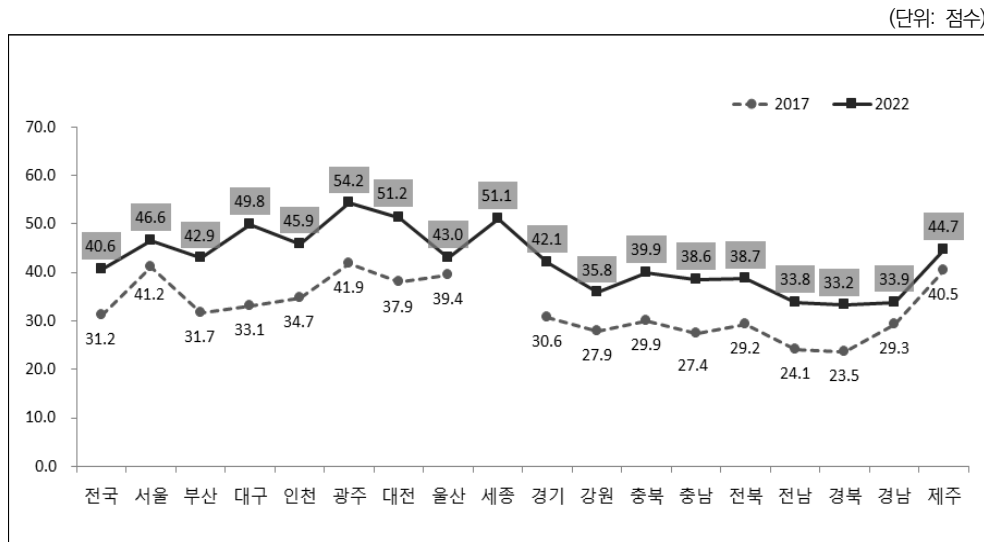
〈표 Ⅲ-7〉 경제활동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73.8	6	75.0	5	75.8	4	78.1	2	79.5	2	79.6	2	0.1	5.8
부산	71.2	11	72.7	11	76.0	2	76.8	3	76.6	6	76.1	10	-0.5	4.9
대구	75.4	2	75.7	3	75.3	8	74.6	12	75.7	8	76.8	6	1.1	1.4
인천	72.4	7	74.4	6	75.4	7	75.4	8	74.8	10	76.0	11	1.2	3.6
광주	71.6	10	72.1	12	73.4	12	74.8	9	75.0	9	76.6	7	1.6	5.0
대전	73.9	5	75.7	2	75.5	6	76.6	4	76.4	7	78.7	4	2.3	4.8
울산	64.6	16	64.2	16	66.7	17	66.1	17	67.8	17	68.5	17	0.7	3.9
세종	-	-	-	-	73.6	11	74.7	10	73.7	13	74.9	13	1.2	-
경기	72.1	8	73.6	9	73.4	13	73.0	13	74.5	11	76.4	8	1.9	4.3
강원	73.9	4	73.5	10	75.8	3	76.4	5	78.2	3	79.6	3	1.4	5.7
충북	74.8	3	75.5	4	75.7	5	75.6	7	76.8	5	75.2	12	-1.6	0.4
충남	70.5	12	73.7	7	73.7	10	74.7	11	73.9	12	76.4	9	2.5	5.9
전북	72.1	9	73.6	8	74.9	9	75.9	6	77.3	4	78.4	5	1.1	6.3
전남	70.4	13	70.6	14	73.2	14	71.6	14	71.8	15	72.2	16	0.4	1.8
경북	69.5	14	70.7	13	70.6	16	71.4	15	71.5	16	74.2	14	2.7	4.7
경남	68.4	15	69.5	15	71.7	15	71.3	16	73.6	14	73.9	15	0.3	5.5
제주	77.6	1	78.1	1	79.8	1	81.4	1	80.2	1	84.1	1	3.9	6.5

2)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이다. 2022년 기준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시도는 광주광역시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54.2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51.2점), 세종특별자치시(51.1점)에서 50점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외 대구광역시(49.8점), 서울특별시(46.6점), 인천광역시(45.9점) 순으로 높아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은 특·광역시에서 1위에서 6위까지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 분야에서 경상북도(33.2점), 전라남도(33.8점), 경상남도(33.9점), 강원특별자치도(35.8점) 등 하위권은 모두 도지역에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5]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분야별로 성평등이 가장 낮았으나 개선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7년과 비교해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이다. 2017년 대비 대구광역시는 16.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이며, 대전광역시(13.3점), 광주광역시(12.3점), 경기도(11.5점), 부산광역시(11.2점), 인천광역시(11.2점), 충청남도(11.2점), 충청북도(10.0점) 등에서 10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평등 개선 수준으로 인해 대구광역시는 2017년 7위에서 2022년 4위로 상승하며, 동 기간 대전광역시는 5위에서 2위로 상승했고, 광주광역시는 2017년

이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이 1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8.0점), 광주광역시(4.8점), 대전광역시(4.2점) 등의 지역이 4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반면, 울산광역시(-4.7점), 부산광역시(-0.4점), 경상남도(-0.3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의사결정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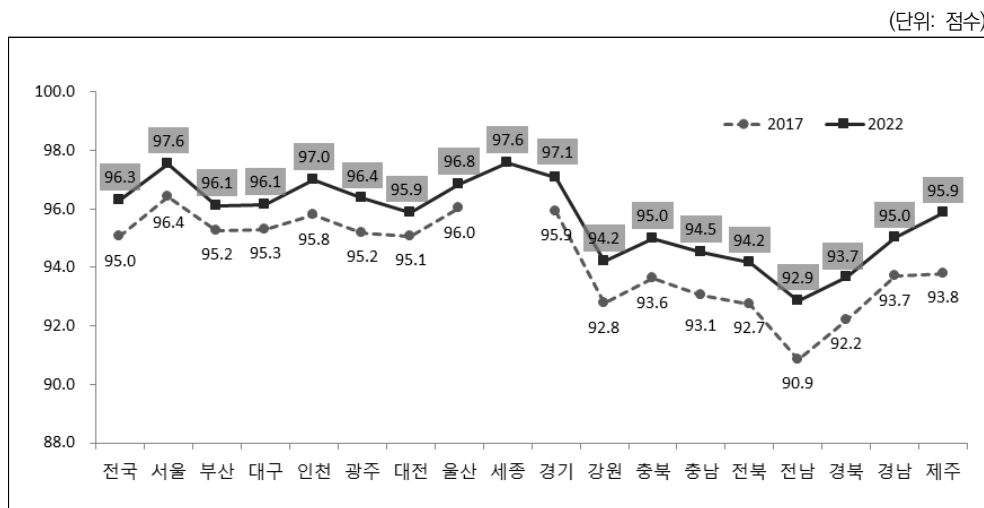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41.2	2	44.0	3	44.3	4	45.0	4	46.4	4	46.6	5	0.2	5.4
부산	31.7	8	41.7	6	43.0	5	43.3	6	43.3	6	42.9	9	-0.4	11.2
대구	33.1	7	38.8	9	42.7	6	42.2	7	41.8	8	49.8	4	8.0	16.7
인천	34.7	6	38.5	10	40.7	7	41.4	8	44.3	5	45.9	6	1.6	11.2
광주	41.9	1	46.3	1	57.9	1	49.3	1	49.4	1	54.2	1	4.8	12.3
대전	37.9	5	44.0	4	49.5	2	48.5	2	47.0	3	51.2	2	4.2	13.3
울산	39.4	4	44.6	2	40.5	8	46.5	3	47.7	2	43.0	8	-4.7	3.6
세종	-	-	-	-	46.6	3	37.8	11	37.3	12	51.1	3	13.8	-
경기	30.6	9	39.5	7	40.5	9	39.1	9	41.5	9	42.1	10	0.6	11.5
강원	27.9	13	34.4	11	35.2	13	35.6	14	34.1	15	35.8	14	1.7	7.9
충북	29.9	10	39.2	8	39.5	10	37.0	12	39.3	10	39.9	11	0.6	10.0
충남	27.4	14	31.4	14	32.7	15	33.2	15	36.8	13	38.6	13	1.8	11.2
전북	29.2	12	33.2	12	35.9	12	36.4	13	38.2	11	38.7	12	0.5	9.5
전남	24.1	15	29.5	15	30.1	17	30.3	16	33.5	16	33.8	16	0.3	9.7
경북	23.5	16	29.0	16	30.2	16	29.9	17	31.4	17	33.2	17	1.8	9.7
경남	29.3	11	32.2	13	34.6	14	38.8	10	34.2	14	33.9	15	-0.3	4.6
제주	40.5	3	42.2	5	37.1	11	44.0	5	41.9	7	44.7	7	2.8	4.2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8개 분야 중에서도 보건의 다음으로 높은 영역이다.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상위권은 세종특별자치시(97.6점), 서울특별시(97.6점), 경기도(97.1점), 인천광역시(97.0점), 울산광역시(96.8점)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92.9점)이고, 경상북도(93.7점), 전북특별자치도(94.2점), 강원특별자치도(94.2점) 등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은 높고 지역 간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성평등 수준이 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운 만큼 성평등 개선은 크지 않다. 2017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1점)와 전라남도(2.0점)이며,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1.5점), 경상북도(1.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 개선은 대체로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사이로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0.5점,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가 0.4점 개선이 일어났고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0.1점 개선을 보이며, 이외 지역은 0.2점과 0.3점의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6]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9〉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96.4	1	96.6	1	96.9	1	97.1	1	97.3	1	97.6	2	0.3	1.2
부산	95.2	6	95.4	7	95.6	8	95.8	8	95.9	8	96.1	8	0.2	0.9
대구	95.3	5	95.5	5	95.6	7	95.8	7	96.0	7	96.1	7	0.1	0.8
인천	95.8	4	96.0	4	96.3	5	96.5	4	96.8	4	97.0	4	0.2	1.2
광주	95.2	7	95.4	6	95.7	6	95.9	6	96.1	6	96.4	6	0.3	1.2
대전	95.1	8	95.2	8	95.4	9	95.6	9	95.7	9	95.9	9	0.2	0.8
울산	96.0	2	96.2	2	96.3	4	96.5	4	96.7	5	96.8	5	0.1	0.8
세종	-	-	-	-	96.4	2	96.8	2	97.2	2	97.6	1	0.4	-
경기	95.9	3	96.1	3	96.4	3	96.6	3	96.9	3	97.1	3	0.2	1.2
강원	92.8	13	93.1	13	93.4	14	93.7	14	93.9	14	94.2	14	0.3	1.4
충북	93.6	11	93.9	11	94.2	12	94.4	12	94.7	12	95.0	12	0.3	1.4
충남	93.1	12	93.4	12	93.7	13	94.0	13	94.2	13	94.5	13	0.3	1.4
전북	92.7	14	93.0	14	93.3	15	93.6	15	93.9	15	94.2	15	0.3	1.5
전남	90.9	16	91.3	16	91.7	17	92.1	17	92.5	17	92.9	17	0.4	2.0
경북	92.2	15	92.5	15	92.8	16	93.1	16	93.4	16	93.7	16	0.3	1.5
경남	93.7	10	94.0	10	94.2	11	94.5	11	94.7	11	95.0	11	0.3	1.3
제주	93.8	9	94.2	9	94.6	10	95.0	10	95.4	10	95.9	10	0.5	2.1

나. 여성의 인권·복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1.8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경기도(88.9점), 대전광역시(88.1점), 광주광역시(87.9점), 충청북도(87.6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 영역의 하위권은 전북특별자치도(83.6점), 충청남도(84.8점), 울산광역시(84.8점), 경상남도(85.4점)가 차지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와의 차이는 8.2점으로 지역별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차이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0〉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83.1	16	84.3	14	84.6	17	85.9	15	87.1	9	86.7	10	-0.4	3.6
부산	87.8	5	88.3	2	88.9	2	89.2	3	88.0	4	87.0	7	-1.0	-0.8
대구	88.4	3	87.6	4	88.4	3	89.6	2	87.8	5	87.5	6	-0.3	-0.9
인천	84.6	13	85.5	10	86.0	11	86.5	13	86.0	12	85.6	13	-0.4	1.0
광주	85.3	8	83.9	15	86.7	8	87.7	6	87.6	6	87.9	4	0.3	2.6
대전	85.8	7	85.3	11	86.8	7	88.1	5	88.3	2	88.1	3	-0.2	2.3
울산	84.5	14	85.6	9	85.8	13	86.4	14	85.8	14	84.8	15	-1.0	0.3
세종	-	-	-	-	91.0	1	90.9	1	91.9	1	91.8	1	-0.1	-
경기	85.1	10	85.8	8	86.5	9	87.3	7	88.2	3	88.9	2	0.7	3.8
강원	88.0	4	87.0	6	86.3	10	87.0	9	86.5	11	85.9	12	-0.6	-2.1
충북	85.0	11	86.4	7	85.9	12	85.8	16	87.3	8	87.6	5	0.3	2.6
충남	83.5	15	83.7	16	85.3	16	86.6	12	85.6	15	84.8	16	-0.8	1.3
전북	91.2	1	89.2	1	87.9	4	87.1	8	84.0	17	83.6	17	-0.4	-7.6
전남	89.1	2	87.9	3	86.8	6	85.3	17	85.2	16	86.8	9	1.6	-2.3
경북	85.0	12	84.6	12	85.4	15	86.9	10	85.8	13	86.5	11	0.7	1.5
경남	85.2	9	84.4	13	85.4	14	86.9	11	86.6	10	85.4	14	-1.2	0.2
제주	86.4	6	87.5	5	87.8	5	89.1	4	87.4	7	86.9	8	-0.5	0.5

지역별 성평등 개선 수준을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가 3.8점으로 가장 높다. 17개 지역 중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3.6점), 광주광역시(2.6점), 충청북도(2.6점)와 대전광역시(2.3점)에서 2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동기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영역에서 성평등이 악화하여 7.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남도(-2.3점), 강원특별자치도(-2.1점), 대구광역시(-0.9점), 부산광역시(-0.8점) 등의 지역에서도 2017년 대비 성평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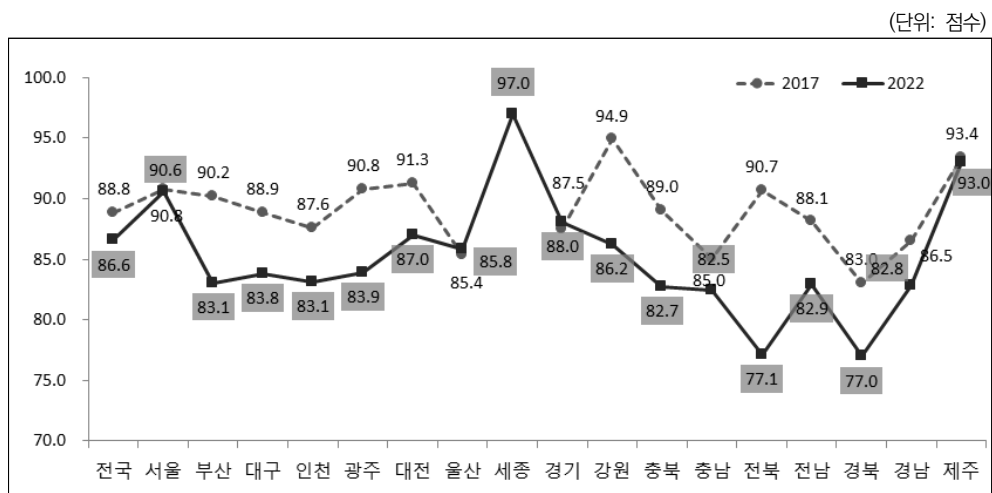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8개의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분야이다. 2022년 기준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93.0점), 서울특별시(90.6점), 경기도(88.0점), 대전광역시(87.0점)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반면, 경상북도(77.0점)가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았고, 전북특별자치도(77.1점), 충청남도(82.5점), 충청북도(82.7점)등의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2017년도와 비교하여 경기도의 복지 분야 성평등 개선이 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0.4점) 지역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에, 이외 지역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대비 13.6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강원특별자치도(-8.7점), 부산광역시(-7.1점), 광주광역시(-6.9점), 충청북도(-6.3점), 경상북도(-6.0점) 등에서 6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라남도(1.3점), 세종특별자치시(1.0점), 강원특별자치도(0.6점), 대구광역시(0.3점), 제주특별자치도(0.2점), 서울특별시(0.2점), 경기도(0.1점), 인천광역시(0.1점)에서 성평등이 개선되며, 이외 지역은 복지 분야의 성평등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III-11〉 복지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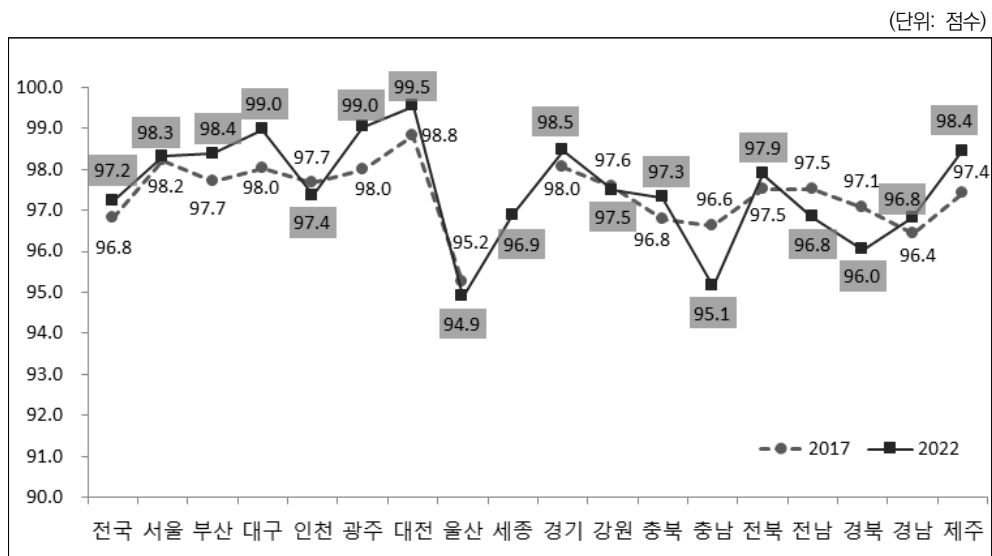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90.8	5	90.7	3	90.8	4	90.6	3	90.4	3	90.6	3	0.2	-0.2
부산	90.2	7	89.5	5	89.0	7	87.9	7	84.5	9	83.1	11	-1.4	-7.1
대구	88.9	9	88.2	8	87.9	8	87.0	10	83.5	12	83.8	9	0.3	-5.1
인천	87.6	11	87.5	10	87.4	11	85.9	13	83.0	13	83.1	10	0.1	-4.5
광주	90.8	4	89.0	6	89.2	6	87.3	9	84.3	10	83.9	8	-0.4	-6.9
대전	91.3	3	90.5	4	89.8	5	88.9	5	87.5	6	87.0	5	-0.5	-4.3
울산	85.4	14	87.2	11	87.1	12	87.8	8	87.6	5	85.8	7	-1.8	0.4
세종	-	-	-	-	92.9	2	95.0	1	96.0	1	97.0	1	1.0	-
경기	87.5	12	87.7	9	87.9	9	88.2	6	87.9	4	88.0	4	0.1	0.5
강원	94.9	1	93.3	2	91.7	3	89.7	4	85.6	7	86.2	6	0.6	-8.7
충북	89.0	8	87.2	12	86.6	13	86.2	12	83.7	11	82.7	14	-1.0	-6.3
충남	85.0	15	84.9	15	85.1	16	84.9	16	82.8	14	82.5	15	-0.3	-2.5
전북	90.7	6	89.0	7	87.8	10	85.6	14	77.3	17	77.1	16	-0.2	-13.6
전남	88.1	10	86.7	13	86.3	15	85.5	15	81.6	15	82.9	12	1.3	-5.2
경북	83.0	16	82.5	16	82.6	17	82.3	17	77.6	16	77.0	17	-0.6	-6.0
경남	86.5	13	86.5	14	86.6	14	86.9	11	84.7	8	82.8	13	-1.9	-3.7
제주	93.4	2	93.3	1	93.8	1	94.6	2	92.8	2	93.0	2	0.2	-0.4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평등을 보이며,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95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2022년 기준 이 분야에서 대전광역시가 99.5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99.0점), 대구광역시(99.0점), 경기도(98.5점), 제주특별자치도(98.4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보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94.9점이며 충청남도(95.1점), 경상북도(96.0점), 경상남도(96.8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건 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성평등지수가 1점 이상 개선된 지역은 대구광역시(1.0점), 광주광역시(1.0점), 제주특별자치도(1.0점)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성평등 수준이 1점 미만으로 개선되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는 2017년 대비 1.5점 감소하여 가장 크게 성평등 수준이 낮아졌고, 경상북도(-1.1점), 전라남도(-0.7점), 인천광역시(-0.3점), 울산광역시(-0.3점), 강원특별자치도(-0.1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보건 분야 1점 이상 성평등 개선 지역은 울산광역시(1.9점), 제주특별자치도(1.1점), 대전광역시(1.0점) 등이며, 성평등이 악화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0.4점), 충청남도(-0.4점), 충청북도(-0.3점), 인천광역시(-0.2점), 강원특별자치도(-0.2점) 등 5개 지역이다. 한편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의 변화가 없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III-12〉 보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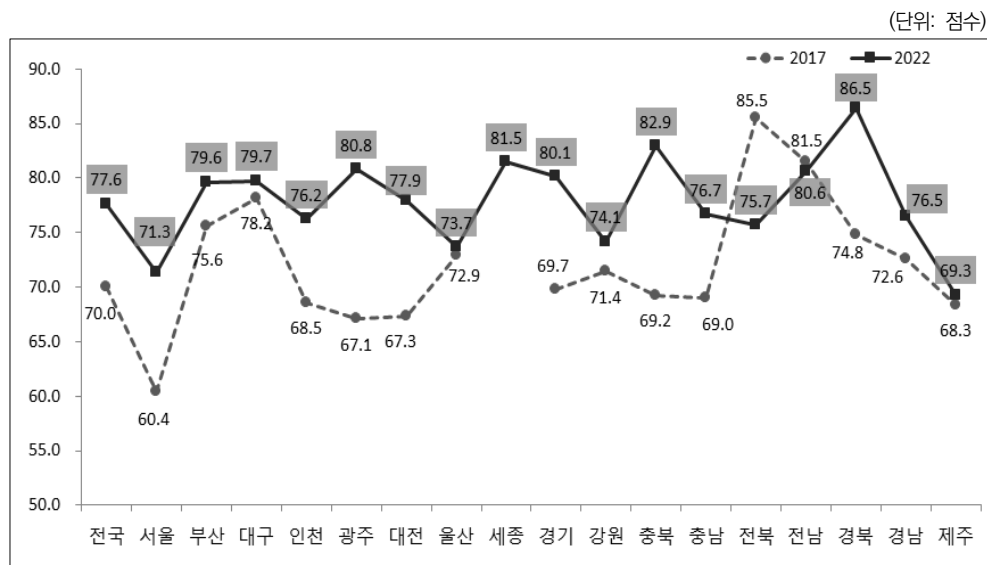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98.2	2	98.9	2	97.5	7	97.8	5	97.6	8	98.3	7	0.7	0.1
부산	97.7	6	98.1	6	97.5	8	97.2	9	97.7	6	98.4	6	0.7	0.7
대구	98.0	4	97.8	9	97.0	9	97.9	4	98.1	3	99.0	3	0.9	1.0
인천	97.7	7	98.3	3	97.6	6	97.6	7	97.6	9	97.4	10	-0.2	-0.3
광주	98.0	5	97.9	7	98.3	3	97.8	6	98.4	2	99.0	2	0.6	1.0
대전	98.8	1	98.1	5	98.5	2	98.9	1	98.5	1	99.5	1	1.0	0.7
울산	95.2	16	95.5	16	94.1	17	93.4	17	93.0	17	94.9	17	1.9	-0.3
세종	-	-	-	-	96.6	10	96.5	11	97.3	12	96.9	12	-0.4	-
경기	98.0	3	98.2	4	97.6	5	97.3	8	97.9	4	98.5	4	0.6	0.5
강원	97.6	8	96.9	11	95.6	15	96.8	10	97.7	5	97.5	9	-0.2	-0.1
충북	96.8	13	97.7	10	95.8	14	96.2	12	97.6	7	97.3	11	-0.3	0.5
충남	96.6	14	96.7	13	95.9	12	95.3	15	95.5	16	95.1	16	-0.4	-1.5
전북	97.5	10	97.8	8	97.9	4	98.1	3	97.5	10	97.9	8	0.4	0.4
전남	97.5	9	96.3	14	96.3	11	95.3	16	96.8	14	96.8	13	0.0	-0.7
경북	97.1	12	96.8	12	95.9	13	96.2	13	96.0	15	96.0	15	0.0	-1.1
경남	96.4	15	96.1	15	95.0	16	95.9	14	96.8	13	96.8	14	0.0	0.4
제주	97.4	11	99.2	1	98.5	1	98.5	2	97.3	11	98.4	5	1.1	1.0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2022년 기준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상북도(86.5점)이며, 충청북도(82.9점), 세종특별자치시(81.5점), 광주광역시(80.8점), 전라남도(80.6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9.3점)이며, 서울특별시(71.3점), 울산광역시(73.7점), 강원특별자치도(74.1점)가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안전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2017년도와 비교하여 충청 북도와 광주광역시가 13.7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경상북도(11.7점), 서울특별시 (10.9점), 대전광역시(10.6점), 경기도(10.4점) 지역은 10점 이상의 높은 개선을 보였다. 반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대비 9.8점 성평등 수준이 떨어지며, 전라남도(-0.9점) 등에서는 안전 분야 성평등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는 2017년 10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하며, 광주광역시는 15위에서 4위로, 대전광역시는 14위 에서 9위로 순위 상승이 나타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1위에서 2022년 13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한다. 한편 2021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3.5점 상승하였고 그 외 경상북도(2.7점)와 충청북도(2.1점)에서 2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3.1점), 제주특별자치도(-2.9점), 부산광역시(-2.3점), 대구광역시(-2.2점), 강원특별자치도(-2.0점)에서는 안전 분야 성평등이 전년 대비 2점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III-13〉 안전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60.4	16	63.2	16	65.5	17	69.3	17	73.2	16	71.3	16	-1.9	10.9
부산	75.6	4	77.2	3	80.4	2	82.5	2	81.9	3	79.6	8	-2.3	4.0
대구	78.2	3	76.9	4	80.2	3	83.9	1	81.9	4	79.7	7	-2.2	1.5
인천	68.5	12	70.7	10	73.0	12	76.0	12	77.6	11	76.2	12	-1.4	7.7
광주	67.1	15	64.9	15	72.4	13	77.9	7	80.0	6	80.8	4	0.8	13.7
대전	67.3	14	67.3	14	72.0	14	76.4	10	78.8	8	77.9	9	-0.9	10.6
울산	72.9	6	74.0	7	76.2	7	78.0	6	76.8	14	73.7	15	-3.1	0.8
세종	-	-	-	-	83.6	1	81.2	4	82.5	2	81.5	3	-1.0	-
경기	69.7	9	71.3	8	74.0	11	76.3	11	78.9	7	80.1	6	1.2	10.4
강원	71.4	8	71.0	9	71.5	15	74.4	15	76.1	15	74.1	14	-2.0	2.7
충북	69.2	10	74.4	6	75.4	8	74.9	14	80.8	5	82.9	2	2.1	13.7
충남	69.0	11	69.6	13	75.0	9	79.6	5	78.4	9	76.7	10	-1.7	7.7
전북	85.5	1	80.7	2	78.0	4	77.5	9	77.2	12	75.7	13	-1.5	-9.8
전남	81.5	2	80.9	1	77.9	5	75.1	13	77.1	13	80.6	5	3.5	-0.9
경북	74.8	5	74.4	5	77.7	6	82.2	3	83.8	1	86.5	1	2.7	11.7
경남	72.6	7	70.6	11	74.8	10	77.8	8	78.2	10	76.5	11	-1.7	3.9
제주	68.3	13	69.8	12	71.1	16	74.2	16	72.2	17	69.3	17	-2.9	1.0

다. 성평등 인식·문화

성평등 인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은 제주특별자치도(82.2점)가 가장 앞서며, 부산광역시(79.7점), 울산광역시(79.3점), 서울특별시(79.0점), 세종특별자치시(77.9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광주광역시(74.0점)이며 강원특별자치도(74.5점), 인천광역시(76.2점), 충청남도(76.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2017년도와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6.3점 개선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5.8점), 서울특별시(5.5점), 전북특별자치도(5.5점), 부산광역시(5.4점), 경상북도(5.4점) 등의 지역에서 성평등 개선이 5점 이상으로 높았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4.7점으로 가장 높은 개선을 보였고, 전라남도가 3.1점의 상승하여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8점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년 대비 강원특별자치도는 0.1점 하락하였다.

〈표 Ⅲ-14〉 성평등 인식·문화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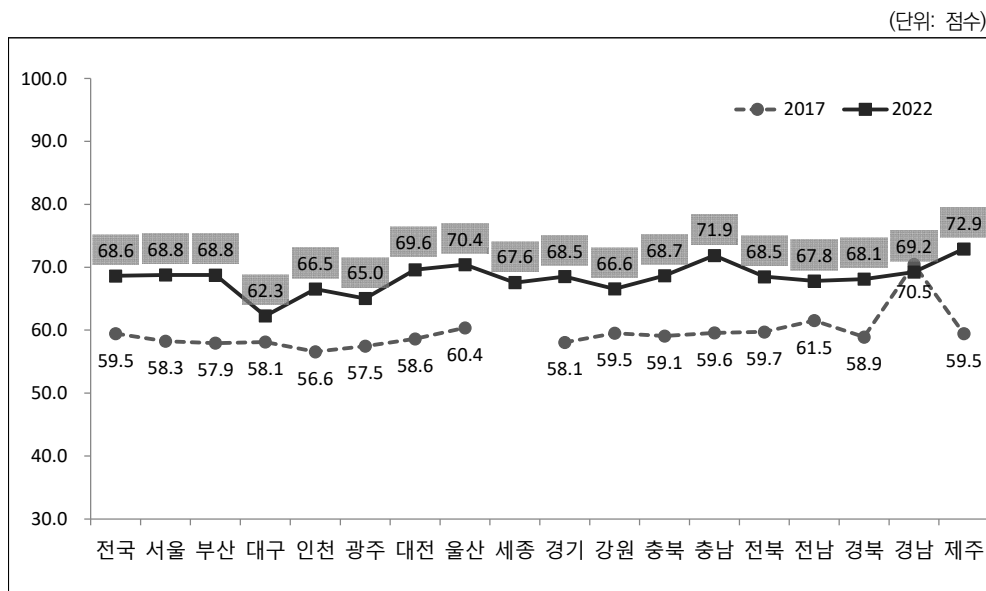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73.5	7	75.0	4	75.4	8	76.3	5	76.9	4	79.0	4	2.1	5.5
부산	74.3	4	74.7	7	74.0	11	75.4	8	78.8	1	79.7	2	0.9	5.4
대구	74.0	5	75.5	3	74.5	10	74.6	11	74.7	12	76.6	13	1.9	2.6
인천	72.9	9	73.2	12	73.9	12	73.5	16	73.4	16	76.2	15	2.8	3.3
광주	73.1	8	73.0	13	73.7	13	73.0	17	71.8	17	74.0	17	2.2	0.9
대전	74.6	3	73.3	11	74.7	9	73.6	15	74.9	10	77.6	10	2.7	3.0
울산	76.1	1	78.4	1	78.5	1	80.9	1	78.0	2	79.3	3	1.3	3.2
세종	-	-	-	-	72.6	15	74.6	10	75.7	6	77.9	5	2.2	-
경기	73.9	6	74.9	5	75.6	7	75.7	7	76.1	5	77.9	7	1.8	4.0
강원	71.3	15	72.0	15	72.5	16	73.8	13	74.6	13	74.5	16	-0.1	3.2
충북	72.6	11	74.7	6	76.9	4	75.9	6	75.1	9	77.3	12	2.2	4.7
충남	72.1	14	73.9	10	76.2	6	75.2	9	73.5	15	76.3	14	2.8	4.2
전북	72.2	13	70.5	16	71.4	17	73.7	14	74.9	11	77.7	8	2.8	5.5
전남	71.2	16	72.7	14	73.5	14	74.0	12	74.4	14	77.5	11	3.1	6.3
경북	72.5	12	74.5	8	76.3	5	76.4	3	75.3	8	77.9	6	2.6	5.4
경남	75.9	2	74.5	9	77.5	3	76.3	4	75.5	7	77.6	9	2.1	1.7
제주	72.9	10	75.9	2	78.1	2	77.9	2	77.5	3	82.2	1	4.7	5.8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분야

가족 분야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8개 영역 중 7번째로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성평등 개선은 큰 편이다. 전반적으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도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높았다. 2022년 기준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72.9점)이며 충청남도(71.9점), 울산광역시(70.4점), 대전광역시(69.6점), 경상남도(69.2점)가 성평등 상위권 지역이며, 대구광역시(62.3점), 광주광역시(65.0점), 인천광역시(66.5점), 강원특별자치도(66.6점)가 하위권에 위치한다.

2017년과 비교하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성평등 점수의 개선을 보였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13.4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충청남도(12.3점), 대전광역시(11.0점), 부산광역시(10.9점), 서울특별시(10.5점), 경기도(10.4점), 울산광역시(10.0점)에서 10점 이상 높은 개선이 보였다. 한편, 2021년과 비교하여도 모든 지역이 개선되는데 전년 대비 경상남도가 4.2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서울특별시(3.9점), 울산광역시(3.8점), 세종특별자치시(3.8점) 등에서 개선 수준이 높았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10]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15〉 가족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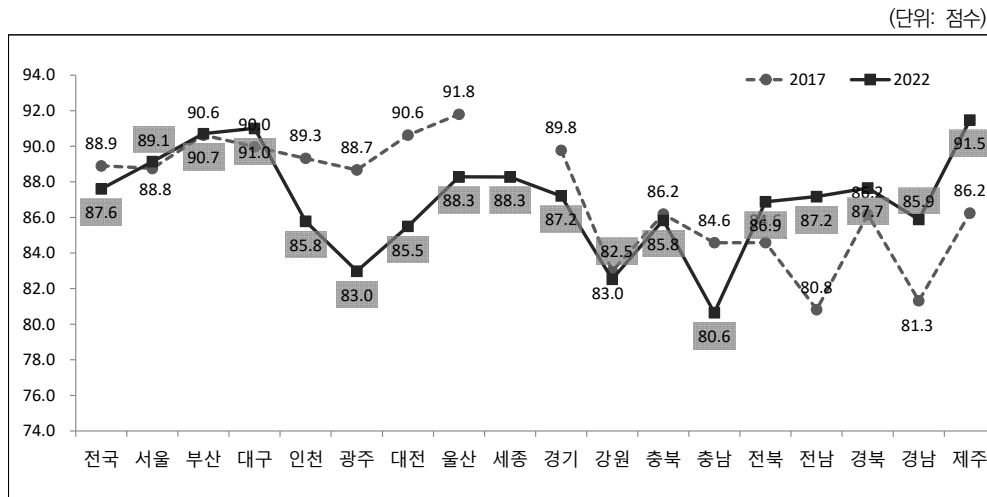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58.3	11	61.0	8	61.7	12	63.0	11	64.9	13	68.8	6	3.9	10.5
부산	57.9	14	59.9	11	62.4	11	62.0	14	67.5	3	68.8	7	1.3	10.9
대구	58.1	12	60.6	10	58.2	17	60.2	17	61.6	17	62.3	17	0.7	4.2
인천	56.6	16	57.6	15	60.1	16	62.4	13	64.7	14	66.5	15	1.8	9.9
광주	57.5	15	58.2	14	60.7	14	62.9	12	63.0	16	65.0	16	2.0	7.5
대전	58.6	10	56.5	16	61.5	13	61.1	15	66.5	8	69.6	4	3.1	11.0
울산	60.4	3	65.8	1	66.5	3	71.1	1	66.6	6	70.4	3	3.8	10.0
세종	-	-	-	-	60.2	15	61.0	16	63.8	15	67.6	13	3.8	-
경기	58.1	13	60.7	9	62.6	10	64.0	9	65.6	10	68.5	9	2.9	10.4
강원	59.5	6	61.2	7	62.8	8	64.1	8	65.0	11	66.6	14	1.6	7.1
충북	59.1	8	59.7	12	63.6	7	63.1	10	66.9	4	68.7	8	1.8	9.6
충남	59.6	5	62.2	5	65.6	4	68.7	2	69.3	2	71.9	2	2.6	12.3
전북	59.7	4	58.5	13	62.8	9	66.1	6	66.3	9	68.5	10	2.2	8.8
전남	61.5	2	63.8	4	64.9	5	65.5	7	66.5	7	67.8	12	1.3	6.3
경북	58.9	9	62.2	6	64.9	6	66.8	4	66.8	5	68.1	11	1.3	9.2
경남	70.5	1	65.3	2	67.7	2	66.7	5	65.0	12	69.2	5	4.2	-1.3
제주	59.5	7	64.9	3	68.3	1	68.4	3	69.7	1	72.9	1	3.2	13.4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는 시도 간 격차가 높은 분야이다.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91.5점이며, 대구광역시(91.0점), 부산광역시(90.7점), 서울특별시(89.1점), 울산광역시(88.3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80.6점)이고, 강원특별자치도(82.5점), 광주광역시(83.0점), 대전광역시(85.5점)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10.9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시도가 더 많다.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6.4점 향상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5.3점), 경상남도(4.6점), 전북특별자치도(2.3점)에서 2점 이상 개선되었다. 반면, 광주광역시(5.7점 하락)는 2017년 대비 5.7점 하락했고 대전광역시(-5.1점), 충청남도(-4.0점) 등에서는 4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2점 향상되었고 전라남도(5.0점), 경상북도(3.8점), 인천광역시(3.7점), 전북특별자치도(3.5점), 대구광역시(3.3점)에서 3점 이상 개선되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수준은 전년 대비 1.8점 하락했고, 울산광역시(-1.0점), 경상남도(-0.2점) 등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16〉 문화·정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1년 대비	2017년 대비
서울	88.8	7	89.0	7	89.1	4	89.5	2	88.9	3	89.1	4	0.2	0.3
부산	90.6	2	89.4	5	85.7	13	88.7	5	90.1	1	90.7	3	0.6	0.1
대구	90.0	4	90.4	2	90.7	1	88.9	3	87.7	4	91.0	2	3.3	1.0
인천	89.3	6	88.7	8	87.7	8	84.6	12	82.1	15	85.8	13	3.7	-3.5
광주	88.7	8	87.9	9	86.7	12	83.1	14	80.6	16	83.0	15	2.4	-5.7
대전	90.6	3	90.2	3	87.8	7	86.2	9	83.3	12	85.5	14	2.2	-5.1
울산	91.8	1	91.1	1	90.4	2	90.8	1	89.3	2	88.3	5	-1.0	-3.5
세종	-	-	-	-	85.0	14	88.2	6	87.6	5	88.3	6	0.7	-
경기	89.8	5	89.1	6	88.6	5	87.5	7	86.7	6	87.2	8	0.5	-2.6
강원	83.0	14	82.8	14	82.2	15	83.6	13	84.3	9	82.5	16	-1.8	-0.5
충북	86.2	10	89.6	4	90.2	3	88.8	4	83.2	13	85.8	12	2.6	-0.4
충남	84.6	13	85.6	12	86.8	11	81.7	16	77.7	17	80.6	17	2.9	-4.0
전북	84.6	12	82.6	15	80.1	17	81.4	17	83.4	11	86.9	10	3.5	2.3
전남	80.8	16	81.5	16	82.1	16	82.4	15	82.2	14	87.2	9	5.0	6.4
경북	86.2	11	86.9	11	87.7	9	86.0	10	83.9	10	87.7	7	3.8	1.5
경남	81.3	15	83.6	13	87.2	10	85.9	11	86.1	7	85.9	11	-0.2	4.6
제주	86.2	9	86.9	10	87.8	6	87.3	8	85.3	8	91.5	1	6.2	5.3

3. 지표별 성평등 수준 비교

지표별 지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는 성비로 측정된 값으로 비교하며, 비교 기준 연도는 2022년이다. 여기서 성비는 일부 지표에 대해 대상 집단의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며, 여성 수준이 남성 수준보다 높으면 완전 성평등 수준인 100점으로 제한하였다.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지역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활동 분야 지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로 구성되어 경제활동 참여 수준, 근로조건, 안정성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1위는 제주특별자치도(84.1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활동 분야를 구성하는 세 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임금격차에서 1위를 보이며,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87.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85.4점), 전북특별자치도(83.9점), 전라남도(82.6점), 서울특별시(81.3점) 순으로 높다. 반면에 울산광역시(68.3점), 세종특별자치시(71.6점), 경기도(75.7점), 경상남도(76.3점)의 지역은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1순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17순위인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9.2점으로 비교적 높다.

성별 임금격차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70.0점 이하로 낮은 편이며, 제주특별자치도(74.7점) 다음으로 대구광역시(67.3점), 대전광역시(66.8점), 광주광역시(66.7점), 서울특별시(66.7점) 등이 높았고, 전라남도(55.9점), 울산광역시(59.0점), 경상북도(61.7점), 경상남도(62.2점)에서 낮았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대전광역시(90.9점)가 가장 높으며, 서울특별시(90.8점), 제주특별자치도(90.1점), 경기도(88.1점), 세종특별자치시(86.7점) 순으로 높았다.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78.2점), 울산광역시(78.3점), 충청북도(81.5점), 경상북도(82.9점)이며, 1순위 지역과 17순위 지역의 격차는 12.7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경제활동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81.3	5	66.7	5	90.8	2
부산	77.1	13	65.5	10	85.7	7
대구	78.5	8	67.3	2	84.7	12
인천	78.5	7	64.4	13	85.1	10
광주	78.1	11	66.7	4	84.9	11
대전	78.4	9	66.8	3	90.9	1
울산	68.3	17	59.0	16	78.3	16
세종	71.6	16	66.5	7	86.7	5
경기	75.7	15	65.4	11	88.1	4
강원	85.4	2	66.6	6	86.7	6
충북	78.2	10	65.8	8	81.5	15
충남	79.2	6	64.6	12	85.4	8
전북	83.9	3	65.8	9	85.4	9
전남	82.6	4	55.9	17	78.2	17
경북	77.8	12	61.7	15	82.9	14
경남	76.3	14	62.2	14	83.2	13
제주	87.5	1	74.7	1	90.1	3

나. 의사결정 분야 지표

의사결정 분야는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정치, 행정, 민간의 대표성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1위는 광주광역시(54.2점)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1위(73.0점), 관리자 비율 1위(33.6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위(47.7점)로 높은 순위를 보이며,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가 다소 낮은 14위(62.7점)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광주광역시가 73.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65.3점), 대전광역시(61.2점), 경기도(50.8점), 서울특별시(49.2점)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이 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18.2점이며, 전북

특별자치도(24.3점), 제주특별자치도(24.4점), 경상남도(24.7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인 광주광역시와 가장 낮은 지역 경상북도의 격차는 54.8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56.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55.7점), 울산광역시(54.5점), 대구광역시(50.0점), 광주광역시(47.7점) 순으로 높았고, 충청남도(22.7점), 경기도(30.0점), 경상북도(30.2점), 전라남도(31.7점)의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1순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17순위 충청남도의 격차는 34.2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III-18〉 의사결정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49.2	5	43.2	6	19.3	10	74.7	3
부산	37.2	9	55.7	2	15.7	14	63.0	12
대구	47.8	6	50.0	4	30.9	3	70.5	7
인천	44.2	7	42.4	7	17.5	13	79.5	1
광주	73.0	1	47.7	5	33.6	1	62.7	14
대전	61.2	3	42.4	8	25.3	7	75.9	2
울산	37.3	8	54.5	3	15.6	15	64.8	10
세종	65.3	2	40.9	10	27.2	5	71.0	5
경기	50.8	4	30.0	16	18.5	11	69.0	9
강원	29.0	11	41.1	9	19.8	9	53.3	17
충북	26.1	12	40.7	11	18.1	12	74.7	4
충남	32.8	10	22.7	17	28.5	4	70.3	8
전북	24.3	16	35.1	13	31.0	2	57.3	16
전남	25.0	13	31.7	14	15.5	16	63.0	13
경북	18.2	17	30.2	15	24.3	8	60.3	15
경남	24.7	14	35.2	12	11.4	17	64.2	11
제주	24.4	15	56.9	1	26.7	6	70.7	6

관리자 비율은 광주광역시가 33.6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31.0

점), 대구광역시(30.9점), 충청남도(28.5점), 세종특별자치시(27.2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관리자 비율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11.4점)이며, 전라남도(15.5점), 울산광역시(15.6점), 부산광역시(15.7점)가 이 지표의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1위 지역과 17위 지역의 성평등 수준 격차는 22.2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는 인천광역시(79.5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75.9점), 서울특별시(74.7점), 충청북도(74.7점), 세종특별자치시(71.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53.3점)이며 전북특별자치도(57.3점), 경상북도(60.3점), 광주광역시(62.7점) 순으로 낮았다. 1위 지역인 인천광역시와 17위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격차는 26.2점으로 역시 20점 이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로 교육에서의 기회 평등을 측정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률가 전 지역 100.0점이므로 평균교육연수 1순위인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다.

평균교육연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서울특별시가 95.1점으로 1, 2위이며, 경기도(94.2점), 인천광역시(94.0점), 울산광역시(93.7점) 순으로 높다. 반면에 전라남도(85.7점), 경상북도(87.3점), 전북특별자치도(88.3점), 강원특별자치도(88.4점)는 평균교육연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해당 지표는 1위와 17위 간 성비 차이는 9.4점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III-19〉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95.1	2	100.0	1
부산	92.2	8	100.0	1
대구	92.3	7	100.0	1
인천	94.0	4	100.0	1
광주	92.7	6	100.0	1
대전	91.8	9	100.0	1
울산	93.7	5	100.0	1
세종	95.1	1	100.0	1
경기	94.2	3	100.0	1
강원	88.4	14	100.0	1
충북	90.0	12	100.0	1
충남	89.0	13	100.0	1
전북	88.3	15	100.0	1
전남	85.7	17	100.0	1
경북	87.3	16	100.0	1
경남	90.0	11	100.0	1
제주	91.7	10	100.0	1

라. 복지 분야 지표

복지 분야 성평등 지표는 공적연금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여 빈곤과 미래 소득 보장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복지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97.0점)이다. 복지 분야 지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적연금 가입자 지표가 100.0점으로 1위, 기초생활수급자 지표는 93.9점으로 2위를 차지한다.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두 100.0점으로 완전성평등 상태에 도달했다. 반면, 충청남도가 이 지표 성비가 가장 낮아 83.0점이었고 경상북도(83.9점), 경기도(85.7점), 울산광역시(86.7점) 등의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특별시가 9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도(93.9점), 경기도(90.4점), 제주특별자치도(86.1점), 울산광역시(84.9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54.3점), 부산광역시(67.4점), 광주광역시(67.8점), 대구광역시(68.6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더욱이 이 증가에서 여성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다.

〈표 Ⅲ-20〉 복지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87.2	13	94.0	1
부산	98.7	7	67.4	16
대구	98.9	6	68.6	14
인천	90.7	10	75.6	10
광주	100.0	1	67.8	15
대전	93.0	9	81.1	7
울산	86.7	14	84.9	5
세종	100.0	1	93.9	2
경기	85.7	15	90.4	3
강원	100.0	1	72.4	11
충북	89.6	11	75.9	9
충남	83.0	17	82.0	6
전북	100.0	1	54.3	17
전남	94.7	8	71.1	12
경북	83.9	16	70.1	13
경남	87.7	12	77.9	8
제주	100.0	1	86.1	4

마. 보건 분야 지표

보건 분야 성평등 지표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수준과 관리, 정신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보건 분야 지표는 모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고 지역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보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99.5점)이다. 대전광역시는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에서 1위를 보이며, 지표들이 완전 성평등 수준이거나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는 지역 대부분이 완전성평등 수준에 가까운 가운데, 대전광역시(98.6점)이며 세종특별자치시(98.5점), 대구광역시(98.5점), 제주특별자치도(98.4점), 경기도(98.3점)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전라남도(96.9점), 충청남도(97.1점), 경상북도(97.1점), 강원특별자치도(97.2점) 등에 다소 낮기는 했으나 지역 격차는 크지 않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점으로 1순위이며 인천광역시(99.5점), 부산광역시(99.3점), 강원특별자치도(98.6점) 순으로 높았다. 지역 중 울산광역시가 89.8점으로 가장 낮았고 충청남도(92.6점), 세종특별자치시(93.9점), 경상남도(95.2점)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위권에 속하나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인다.

스트레스인지율은 대전광역시가 100.0점으로 1위로 나타났고, 경기도(99.0점), 광주광역시(98.8점), 대구광역시(98.4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표의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4.5점)이며, 경상북도(95.0점), 충청남도(95.7점), 전북특별자치도(96.1점) 등에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나, 스트레스인지율 또한 지역 간 성별 격차가 크지 않고 모든 지역이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표 Ⅲ-21〉 보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¹³⁾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98.2	7	100.0	1	96.8	10
부산	98.0	10	99.3	8	97.8	6
대구	98.5	3	100.0	1	98.4	4
인천	98.1	9	99.5	7	94.5	17
광주	98.3	6	100.0	1	98.8	3
대전	98.6	1	100.0	1	100.0	1
울산	98.2	7	89.8	17	96.7	11
세종	98.5	2	93.9	15	98.3	5
경기	98.3	5	98.1	10	99.0	2
강원	97.2	14	98.6	9	96.6	12
충북	97.8	12	97.2	11	96.9	8
충남	97.1	16	92.6	16	95.7	15
전북	97.6	13	100.0	1	96.1	14
전남	96.9	17	97.1	12	96.5	13
경북	97.1	15	96.0	13	95.0	16
경남	97.9	11	95.2	14	97.3	7
제주	98.4	4	100.0	1	96.9	9

바. 안전 분야 지표

안전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로 측정된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포함하며, 사건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매우 높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로, 이들 범죄피해자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또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안전에 대한 주관적 생각으로 범죄, 질병, 개인 정보유출, 식량 안보, 먹거리, 위생 문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국가안보 문제 등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해 성 격차를 측정한다.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86.5점)로 사회 안전도 인식

13) 지표산정에는 스트레스 비인지율을 사용함.

성비에서는 1위, 강력범죄피해자 성비에서는 3위이다.

〈표 III-22〉 안전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사회 안전도 인식		강력범죄피해자 비율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77.3	11	65.3	16
부산	84.6	5	74.7	12
대구	81.6	7	77.8	7
인천	79.9	9	72.5	13
광주	85.0	4	76.5	8
대전	86.0	3	69.8	15
울산	72.4	15	74.9	11
세종	77.1	12	85.8	1
경기	81.3	8	78.9	5
강원	76.3	13	72.0	14
충북	90.6	2	75.2	10
충남	78.0	10	75.4	9
전북	70.3	17	81.0	2
전남	82.6	6	78.7	6
경북	92.1	1	80.8	3
경남	72.3	16	80.6	4
제주	73.7	14	64.9	17

지표별로 보면,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는 경상북도가 9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90.6점), 대전광역시(86.0점), 광주광역시(85.0점), 부산광역시(84.6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70.3점으로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가 가장 낮았고 경상남도(72.3점), 울산광역시(72.4점), 제주특별자치도(73.7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5.8점으로 가장 높다. 전북특별자치도(81.0점), 경상북도(80.8점), 경상남도(80.6점)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았다.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64.9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65.3점), 대전광역시(69.8점),

강원특별자치도(72.0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중 경상북도가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피해자 성비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된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지표의 성비가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각각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 1위와 17위를 차지했다.

사. 가족 분야 지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로 구성되어, 가족 내 성평등한 관계와 의식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72.9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사노동시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 관련된 다른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60.8점으로 1위를 보이며, 전북특별자치도(45.9점), 부산광역시(43.6점), 충청남도(39.5점), 서울특별시(38.7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지표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25.9점)이며 인천광역시(30.1점), 전라남도(31.5점), 경상북도(31.9점) 순으로 낮았다.

가족관계만족도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100.0점으로 가장 높고, 충청북도(98.8점), 서울특별시(98.7점)가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반면 충청남도가 가장 낮은 91.6점이었고 전북특별자치도(93.0점), 대구광역시(93.6점), 경상북도(94.0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저출생 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현저히 감소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6개 지역에서 완전성평등 상태인 100.0점을 보인다. 다른 지역 모두 90점 이상으로 성 격차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육아휴직 성비는 울산광역시가 61.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충청남도(56.5점), 경상북도(50.4점), 경상남도(49.3점), 제주특별자치도(46.7점) 지역 등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27.0점이었으며, 광주광역시(31.1점), 부산광역시(33.2점), 전북특별자치도(35.1점) 등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성비는 모든 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나 1순위 지역과 17순위 지역 격차는 34.2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III-23〉 가족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38.7	5	98.7	5	98.7	9	39.0	12
부산	43.6	3	100.0	1	98.3	10	33.2	15
대구	36.3	10	93.6	15	92.2	16	27.0	17
인천	30.1	16	95.0	10	96.7	12	44.4	8
광주	34.0	11	95.0	9	100.0	1	31.1	16
대전	38.3	6	100.0	1	95.2	14	45.0	7
울산	25.9	17	94.5	12	100.0	1	61.2	1
세종	32.6	13	100.0	1	98.9	8	38.8	13
경기	37.1	8	97.2	7	100.0	1	39.8	10
강원	37.5	7	96.1	8	93.4	15	39.2	11
충북	36.8	9	98.8	4	99.0	7	40.0	9
충남	39.5	4	91.6	17	100.0	1	56.5	2
전북	45.9	2	93.0	16	100.0	1	35.1	14
전남	31.5	15	97.5	6	96.7	11	45.6	6
경북	31.9	14	94.0	14	96.3	13	50.4	3
경남	32.9	12	94.7	11	100.0	1	49.3	4
제주	60.8	1	94.2	13	90.1	17	46.7	5

아. 문화·정보 분야 지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여가와 정보에서의 성 격차를 측정한다.

문화·정보 분야의 1순위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91.5점)로, 여가시간에서 1위, 여가만족도 6위, 인터넷 이용률에서 16위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81.4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대구광역시(74.6점), 울산광역시(73.9점), 전라남도(73.8점), 부산광역시(72.1점)가 상위권에 있다. 이 지표에서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61.1점)이며 대전광역시(61.1점), 인천광역시(61.3점), 광주광역시(62.9점)에서 하위권 순위를 보인다.

여가만족도는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100.0점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을 보이며,

대구광역시(99.1점), 서울특별시(98.5점), 경기도(97.0점)가 상위권에 해당하였다. 충청 남도가 80.9점으로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고, 전라남도(87.7점), 광주광역시 (88.4점), 강원특별자치도(88.5점)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률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100.0점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92.0점), 제주특별자치도(96.0점), 광주광역시 (97.6점), 세종특별자치시(98.0점)에서 성비가 다소 낮았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률은 모든 지역이 90.0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1위 지역의 성비인 100.0점과 17위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격차가 8.0점으로 크지 않다.

〈표 Ⅲ-24〉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2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68.9	8	98.5	4	100.0	1
부산	72.1	5	100.0	1	100.0	1
대구	74.6	2	99.1	3	99.4	13
인천	61.3	15	96.1	7	100.0	1
광주	62.9	14	88.4	15	97.6	15
대전	61.1	16	95.4	8	100.0	1
울산	73.9	3	91.0	12	100.0	1
세종	66.8	10	100.0	1	98.0	14
경기	64.6	13	97.0	5	100.0	1
강원	67.1	9	88.5	14	92.0	17
충북	65.0	11	92.5	11	100.0	1
충남	61.1	17	80.9	17	100.0	1
전북	70.7	6	89.9	13	100.0	1
전남	73.8	4	87.7	16	100.0	1
경북	69.5	7	93.8	9	99.7	12
경남	64.7	12	92.9	10	100.0	1
제주	81.4	1	97.0	6	96.0	16

IV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방향

1. 서울특별시	75
2. 부산광역시	82
3. 대구광역시	88
4. 인천광역시	94
5. 광주광역시	100
6. 대전광역시	106
7. 울산광역시	112
8. 세종특별자치시	118
9. 경기도	123
10. 강원특별자치도	129
11. 충청북도	135
12. 충청남도	140
13. 전북특별자치도	146
14. 전라남도	151
15. 경상북도	156
16. 경상남도	162
17. 제주특별자치도	168

1. 서울특별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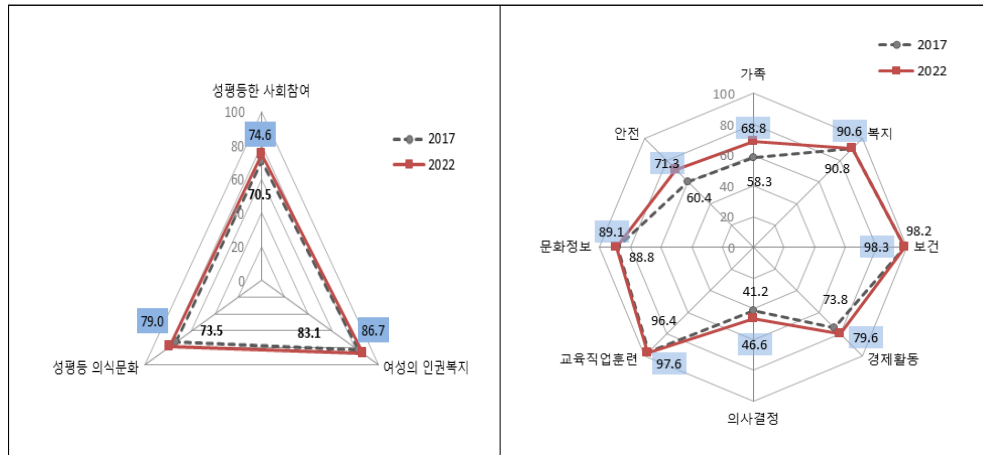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종합순위도 상위권이다. 2018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가 2019년 다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2년 74.6점으로 4위이다. 이 영역은 2017년 70.5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71.9점, 2019년 72.3점, 2020년 73.4점, 2021년 74.4점, 2022년 74.6점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순위는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변동이 있는 편이다. 2017년 2위에서 2018년 1위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3위로 하락하였다. 2021년 1위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2022년 4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0년까지 하위권에 머무르다 2021년 9위로 중상위권에 진입하나, 2022년은 86.7점으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2년에 79.0점, 4위이다. 2017년 73.5점에서 2022년 79.0점으로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표 IV-1〉 서울특별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상위권	70.5	2	83.1	16	73.5	7
2018	상위권	71.9	1	84.3	14	75.0	4
2019	중상위권	72.3	3	84.6	17	75.4	8
2020	상위권	73.4	3	85.9	15	76.3	5
2021	상위권	74.4	1	87.1	9	76.9	4
2022	상위권	74.6	4	86.7	10	79.0	4
2021년 대비 증감	동일	0.2	-3	-0.4	-1	2.1	0
2017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4.1	-2	3.6	6	5.5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 서울특별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된 경제활동 분야는 2위, 의사결정 분야는 5위,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위로 해당 영역 모든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7년 6위에서 2018년 5위로 상승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점수 역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2017년 73.8점에서 2018년 75.0점, 2019년 75.8점, 2020년 78.1점, 2021년 79.5점, 2022년 79.6점이다. 전년 대비 점수는 상승한 반면 순위는 2위로 동일하다. 세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지표 중 상용근로자비율은 점수는 상승하지만 순위가 하락하였고,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임금격차는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대비 점수는 0.3점 하락하고 순위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상용근로자비율은 2021년 89.1점에서 2022년 90.8점으로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위에서 2위로 하락하였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63.0점, 2018년 63.8점, 2019년 64.4점, 2020년 66.1점, 2021년 67.9점으로 꾸준히 점수가 상승해오다 2022년 66.7점으로 낮아졌으며, 순위 역시 2021년 2위에서 2022년 5위로 하락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2년 46.6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계단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6위, 관리자 비율 10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3위이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의 성비는 2021년과 동일하나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한 단계 하락하였으며, 관리자 비율은 네 단계 하락하였다.

특히 관리자 비율은 2020년 22.7점, 10위에서 2021년 25.1점, 6위로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2년 19.3점, 10위로 다시 하락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두 가지 지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교육연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 2022년 2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복지 분야는 상위권,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복지 분야는 지표 간 순위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2022년 기준 공적연금가입자가 13위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위이다. 공적연금가입자는 2017년 9위에서 2021년 14위까지 순위가 지속해서 낮아지다 2022년 13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속해서 1위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 분야는 2021년 대비 0.7점 상승한 98.3점으로 순위가 8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2017~2018년 2위로 상위권에 위치 하였으나 2019년 7위로 하락하고 2020년 5위, 2021년 8위, 2022년 7위로 순위의 등락이 보인다. 지표별 변화를 보면, 2018년 이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중상위권, 건강검진 수검률은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스트레스인지율은 2017년 14위, 2018년 8위, 2019~2020년 16위, 2021년 15위, 2022년 10위로 순위 변화가 변화하였다.

안전 분야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6위를 하였고 2020년 17위, 2021~2022년 16위로 지속적인 하위권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두 지표 모두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11위로 상승하여 중하위권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2017년 11위에서 2018년 8위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1년 13위를 기록하였다가 2022년 6위로 상승하였다.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가 5위, 가족관계만족도가 5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9위, 육아휴직자가 12위이며, 2021년 대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는 2021년 14위에서 2022년 5위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21년 14위에서 2022년 9위로 개선되었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8년까지 7위였으나 2019년 4위, 2020년 2위, 2021년 3위,

2022년 4위로 2019년 이후 상위권에 위치한다. 지표별로는 여가시간가 8위, 여가만족도가 4위, 인터넷 이용률가 1위로 2021년 대비 여가만족도가 1위에서 4위로 하락한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5위에서 1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종합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는 상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는 중상위권으로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 가족 분야 중상위권,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 위치했다. 2021년과 비교해볼 때, 가족 분야가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안전 분야는 2017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표 IV-2〉 서울특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3.8	6	75.0	5	75.8	4	78.1	2	79.5	2	79.6	2
경제활동참가율	77.6	6	79.1	2	79.6	3	79.7	5	81.6	4	81.3	5
성별 임금격차	63.0	3	63.8	6	64.4	7	66.1	3	67.9	2	66.7	5
상용근로자비율	80.8	7	82.0	7	83.3	10	88.3	2	89.1	1	90.8	2
○ 의사결정	41.2	2	44.0	3	44.3	4	45.0	4	46.4	4	46.6	5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34.9	3	44.6	4	44.4	4	44.3	4	44.3	4	49.2	5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2.8	1	43.5	1	44.1	4	38.4	5	41.3	5	43.2	6
관리자 비율	17.5	11	17.3	15	16.0	14	22.7	10	25.1	6	19.3	10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69.6	1	70.5	2	72.6	2	74.7	2	74.9	3	74.7	3
○ 교육·직업훈련	96.4	1	96.6	1	96.9	1	97.1	1	97.3	1	97.6	2
평균교육연수	92.8	1	93.3	1	93.8	1	94.2	1	94.7	1	95.1	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0.8	5	90.7	3	90.8	4	90.6	3	90.4	3	90.6	3
공적연금가입자	84.9	9	85.5	10	86.2	12	86.2	13	87.0	14	87.2	13
기초생활수급자	96.6	1	95.8	1	95.4	2	95.1	2	93.8	2	94.0	1
○ 보건	98.2	2	98.9	2	97.5	7	97.8	5	97.6	8	98.3	7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6	3	97.8	6	97.3	6	97.3	6	97.3	6	98.2	7
건강검진 수검률	99.6	2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97.4	14	98.9	8	95.1	16	96.1	16	95.5	15	96.8	10
○ 안전	60.4	16	63.2	16	65.5	17	69.3	17	73.2	16	71.3	1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1.6	16	63.8	14	68.6	16	72.6	16	75.0	14	77.3	11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59.3	16	62.7	16	62.3	17	66.1	16	71.3	16	65.3	16
○ 가족	58.3	11	61.0	8	61.7	12	63.0	11	64.9	13	68.8	6
가사노동시간	29.4	10	31.2	7	33.0	6	34.8	6	36.7	6	38.7	5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1.3	14	91.4	11	88.9	14	86.5	16	92.8	14	98.7	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4	10	100.0	1	100.0	1	100.0	1	94.9	14	98.7	9
육아휴직자	13.9	7	21.2	8	25.1	13	30.7	11	35.3	10	39.0	12
○ 문화·정보	88.8	7	89.0	7	89.1	4	89.5	2	88.9	3	89.1	4
여가시간	75.0	7	73.9	7	72.7	9	71.5	8	70.2	8	68.9	8
여가만족도	95.7	8	97.2	8	98.6	5	100.0	1	100.0	1	98.5	4
인터넷 이용률	95.5	6	96.0	6	95.8	8	97.1	5	96.5	5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서울특별시는 2017년 중상위권, 2018년 상위권, 2019년 중상위권에서 2020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2017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순위는 1위에서 4위로 하락하였으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순위는 상승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이고, 안전 분야가 하위권이다.

23개 지표 중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등의 지표가 상위권인 반면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서울특별시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상위권의 등급을 보인 것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2022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단, 안전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져 하위권에 위치한다.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은 지속해서 낮은 순위를 보이는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지표 역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표이다.

〈표 IV-3〉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하위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서울특별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강력범죄 (홍악법) 피해자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2. 부산광역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2년 부산광역시 종합순위는 중상위권이다. 2017년 중상위권에서 2018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세 영역 모두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6위에서 9위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4위에서 7위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위에서 2위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는 하락하였으나 점수는 2021년 78.8점에서 2022년 79.7점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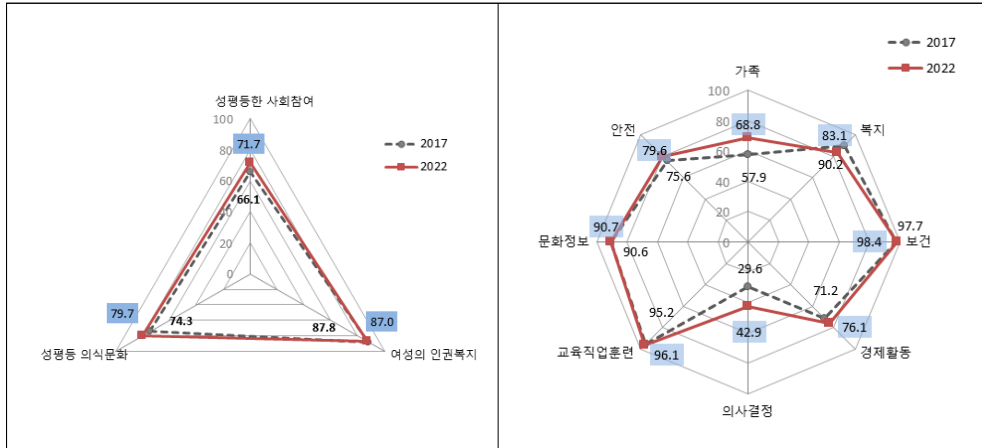
〈표 IV-4〉 부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상위권	66.1	10	87.8	5	74.3	4
2018	상위권	69.9	6	88.3	2	74.7	7
2019	상위권	71.5	5	88.9	2	74.0	11
2020	상위권	72.0	5	89.2	3	75.4	8
2021	상위권	71.9	6	88.0	4	78.8	1
2022	중상위권	71.7	9	87.0	7	79.7	2
2021년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0.2	-3	-1.0	-3	0.9	-1
2017년 대비 증감	동일	5.6	1	-0.8	-2	5.4	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 중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나, 경제활동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77.4점에서 2022년 77.1점으로 낮아져 순위는 7위에서 13위로 하락하였고, 성별 임금격차도 2021년 66.0점에서 2022년 65.5점으로 낮아져 2021년 5위에서 2022년 10위로 하락하였다. 상용근로자비율은 2021년 86.4점에서 2022년 85.7점으로 순위 역시 3위에서 7위로 하락하였다.



[그림 IV-2] 부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의사결정 분야는 2019년 5위, 2020~2021년 6위, 2022년 9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지표별 순위 차이가 큰 편인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1위를 기록하지만 2022년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2위로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은 2019년 10위, 202년 11위, 2021년 12위, 2022년 12위로 중하위권에 속하며, 관리자 비율 역시 2021년 13위에서 2022년 14위로 순위가 하락해 하위권에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중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위로 2019년 이후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지표별로 보아도 2019년 이후 평균교육연수는 8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위로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2년 복지 분야는 11위, 보건 분야는 6위, 안전 분야는 8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대비 보건 분야의 순위는 동일한 반면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의 순위는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7위로 2017년 이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하위권에 머무르다 2022년 16위로 하위권으로 하락하였다.

보건 분야의 경우 2022년 종합점수는 98.4점이고 순위는 6위이다. 2021년 대비 순위는 동일한 반면 점수는 0.7점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98.0점(10위), 건강검진 수검률은 99.3점(8위), 스트레스인지율은 97.8점(6위)이다. 2021년 대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순위변동이 없는 반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과 스트레스인지율은 순위가 상승했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은 2021년 11위에서 2022년 10위로 상승했으며, 스트레스인지율은 2021년 11위에서 2022년 6위로 상승하였다.

안전 분야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렀으나 2022년 8위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점수 역시 81.9점에서 79.6점으로 낮아졌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2021년 86.7점, 2022년 84.6점)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2021년 77.1점, 2022년 74.7점) 지표 모두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2위에서 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분야의 경우 점수는 1.3점 증가했으나 순위는 2021년 3위에서 2022년 7위로 하락해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세부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 43.6점(3위), 가족관계만족도는 100.0점(1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3점(10위), 육아휴직자 33.2점(15위)이다. 전년 대비, 가사노동시간(동일), 가족관계만족도(동일), 육아휴직자(한단계 순위 하락)의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순위가 1위에서 10위로 크게 하락해 가족 분야의 순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1년 1위에서 2022년 3위로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2021년 대비 여가시간(5위)과 여가만족도(1위)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3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여가만족도와 인터넷 이용률의 순위 변동이 큰 편인데, 여가만족도는 2019년 12위에서 2020년 7위, 2021년 1위, 2022년 1위를 기록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2019년 13위에서 2020년 7위, 2021년 3위, 2022년 1위이다.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 보면, 2018년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상승한 이후 2021년까지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9위,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8위로 중상위권인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22년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문화·정보 분야로 17개 시도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5〉 부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1.2	11	72.7	11	76.0	2	76.8	3	76.6	6	76.1	10
경제활동참가율	72.3	14	74.5	13	79.6	4	77.1	10	77.4	7	77.1	13
성별 임금격차	62.1	6	61.7	11	63.1	10	65.0	8	66.0	5	65.5	10
상용근로자비율	79.2	10	81.8	8	85.4	6	88.2	3	86.4	3	85.7	7
○ 의사결정	31.7	8	41.7	6	43.0	5	43.3	6	43.3	6	42.9	9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5.1	7	38.7	6	38.6	6	38.6	6	38.6	6	37.2	9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33.1	5	37.8	4	49.5	1	44.9	1	51.2	1	55.7	2
관리자 비율	11.5	15	27.7	6	18.4	12	25.6	9	20.1	13	15.7	14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57.2	7	62.6	9	65.5	10	64.3	11	63.2	12	63.0	12
○ 교육·직업훈련	95.2	6	95.4	7	95.6	8	95.8	8	95.9	8	96.1	8
평균교육연수	90.5	6	90.8	7	91.2	8	91.5	8	91.9	8	92.2	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0.2	7	89.5	5	89.0	7	87.9	7	84.5	9	83.1	11
공적연금가입자	90.3	7	92.0	6	93.8	6	95.5	6	97.7	6	98.7	7
기초생활수급자	90.1	12	87.0	12	84.2	13	80.3	13	71.2	13	67.4	16
○ 보건	97.7	6	98.1	6	97.5	8	97.2	9	97.7	6	98.4	6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4	7	97.9	4	97.0	11	97.0	11	97.0	11	98.0	10
건강검진 수검률	96.5	12	97.2	10	96.6	8	96.7	8	98.9	8	99.3	8
스트레스인지율	99.2	5	99.2	6	98.9	8	97.9	11	97.2	11	97.8	6
○ 안전	75.6	4	77.2	3	80.4	2	82.5	2	81.9	3	79.6	8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9.6	3	79.1	3	85.0	1	88.9	1	86.7	2	84.6	5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71.6	11	75.4	9	75.8	11	76.1	12	77.1	12	74.7	12
○ 가족	57.9	14	59.9	11	62.4	11	62.0	14	67.5	3	68.8	7
가사노동시간	32.7	2	34.7	2	36.8	3	38.9	3	41.2	3	43.6	3
가족관계만족도	92.0	13	88.5	13	91.3	11	93.8	8	98.7	1	100.0	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7.1	13	100.0	1	100.0	1	88.5	16	100.0	1	98.3	10
육아휴직자	10.0	13	16.3	12	21.3	14	26.8	15	29.9	14	33.2	15
○ 문화·정보	90.6	2	89.4	5	85.7	13	88.7	5	90.1	1	90.7	3
여가시간	75.0	8	74.5	6	74.0	4	73.4	4	72.8	5	72.1	5
여가만족도	100.0	1	98.0	5	90.0	12	96.9	7	100.0	1	100.0	1
인터넷 이용률	96.9	2	95.8	7	93.0	13	95.8	7	97.6	3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부산광역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 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에 속하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이며, 안전, 교육·직업훈련, 보건, 안전,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 경제활동과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이며, 하위권인 분야는 없다.

23개 지표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8개 지표가 상위권이며, 하위권 지표는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지표 3개이다.

전년과 비교해 교육·직업훈련과 보건 분야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나, 그 외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안전, 의사결정, 복지,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이 부산광역시 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지표별로는 관리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였다.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셋째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과 진단에 기반한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표 IV-6〉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문화·정보
		하위	-
	지표	상위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부산광역시는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등급이 낮아짐. 하락 원인은 안전, 의사결정, 복지, 경제활동,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으로, 지표별로 관리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3. 대구광역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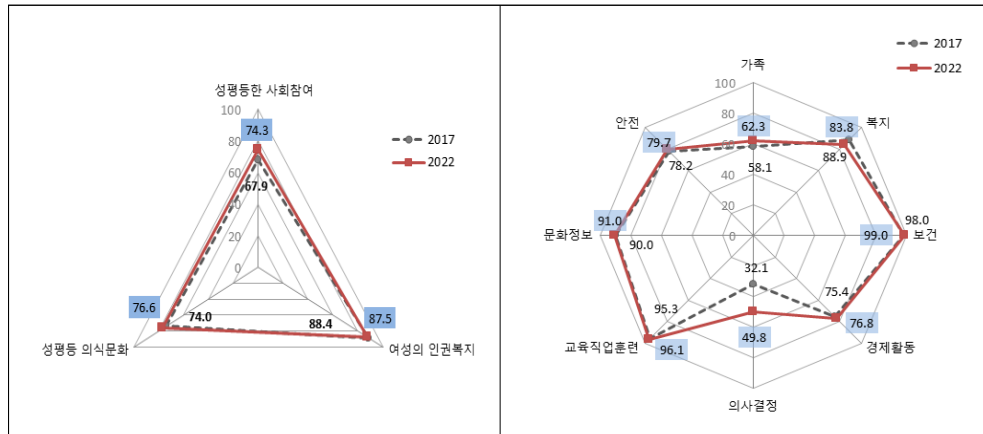
2022년 대구광역시 성평등 종합순위는 중상위권으로, 2020년 이래 지속해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74.3점으로 6위이다. 2021년 대비 3.1점, 순위는 한 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대비 순위는 한 단계 하락하였으나 점수는 6.4점 상승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7.5점으로 6위이다. 2021년 대비 0.3점 하락하였으며, 순위 역시 5위에서 6위로 하락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76.6점, 13위로 전년 대비 점수는 1.9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2위에서 13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 위치하였다.

〈표 IV-7〉 대구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상위권	67.9	5	88.4	3	74.0	5
2018	상위권	70.0	5	87.6	4	75.5	3
2019	중상위권	71.2	6	88.4	3	74.5	10
2020	중상위권	70.9	7	89.6	2	74.6	11
2021	중상위권	71.2	7	87.8	5	74.7	12
2022	중상위권	74.3	6	87.5	6	76.6	13
2021년 대비 증감	동일	3.1	1	-0.3	-1	1.9	-1
2017년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6.4	-1	-0.9	-3	2.6	-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3] 대구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6위, 의사결정 분야는 4위,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7위이다. 먼저 경제활동 분야 순위는 2017년 2위, 2018년 3위, 2019년 8위, 2020년 1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1년 8위, 2022년 6위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지표별로 보면, 세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성평등이 개선되며, 이로 인해 순위 또한 성별 임금격차는 3위에서 2위로, 경제활동참가율은 10위에서 8위로 개선된다. 단, 상용근로자비율은 12위로 동일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1년 대비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하였는데, 2021년 41.8점 8위에서 2022년 49.8점 4위를 기록했다. 지표별로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은 2021년 대비 순위변동이 없는 반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관리자 비율이 2021년 19.9점 14위에서 2022년 30.9점 3위로 크게 개선되어 의사결정 분야의 점수 및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7~2018년까지는 5위, 2019년 이후에는 계속하여 7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표를 보면, 평균교육연수 역시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2017~2018년: 5위, 2019~2022년: 7위). 반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 이후 계속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전년 대비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2021년 12위에서 2022년 9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안전 분야는 2021년 4위에서 2022년 7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보건 분야의 순위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3위로 동일하다. 복지 분야를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5~6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이후 15위를 유지해오다

2022년 14위로 개선되었다.

보건 분야는 2019년 9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3위로 상승한 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분야의 세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그중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021년 97.1점 9위에서 2022년 98.5점 3위로 상승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1년 6위에서 2022년 1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스트레스인지를 역시 2021년 9위에서 2022년 4위를 기록하였다.

안전 분야는 2021년까지 지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2022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한 분야이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1년 3위(84.0점)에서 2022년 7위(81.6점)로 전년 대비 네 단계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위(79.9점)에서 2022년 7위(77.8점)로 하락해 두 지표 2021년 대비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분야 간 순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가족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17위로 최하위이나 문화·정보 분야는 2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가족 분야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표 중 육아휴직자 역시 2019년 이후 계속해서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였기는 하나 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속하며,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는 2020년 1위에서 2021년 7위, 2022년 16위로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은 2021년 35.1점에서 2022년 36.3점으로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0위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2021년 대비 순위가 두 단계 상승하였으며, 점수는 3.3점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여가시간은 2위로 2018년 이후 순위가 동일하다. 여가만족도는 99.1점 3위로 2021년 대비 점수와 순위가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 대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순위가 4위에서 13위로 하락하였다.

대구광역시는 2017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9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20년 이후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모두 6위로 중상위권에 있지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1년 12위에서 2022년 13위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에 있다. 2022년 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정보 분야이며, 가장 낮은 분야는 가족 분야이다. 가족 분야는 17위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다.

〈표 IV-8〉 대구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5.4	2	75.7	3	75.3	8	74.6	12	75.7	8	76.8	6
경제활동참가율	78.5	5	78.8	4	74.2	14	74.3	13	77.1	10	78.5	8
성별 임금격차	63.5	2	64.0	4	65.9	3	65.1	7	66.7	3	67.3	2
상용근로자비율	84.1	2	84.3	4	85.8	3	84.5	7	83.4	12	84.7	12
○ 의사결정	33.1	7	38.8	9	42.7	6	42.2	7	41.8	8	49.8	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30.5	5	35.6	8	35.5	8	35.5	8	35.5	8	47.8	6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9.9	7	31.2	8	39.6	7	33.2	7	41.1	6	50.0	4
관리자 비율	18.2	10	24.6	10	26.3	7	31.4	7	19.9	14	30.9	3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53.7	10	63.7	6	69.2	5	68.5	7	70.7	7	70.5	7
○ 교육·직업훈련	95.3	5	95.5	5	95.6	7	95.8	7	96.0	7	96.1	7
평균교육연수	90.6	5	90.9	5	91.3	7	91.6	7	91.9	7	92.3	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8.9	9	88.2	8	87.9	8	87.0	10	83.5	12	83.8	9
공적연금가입자	90.6	6	92.6	5	94.9	5	96.6	5	98.2	5	98.9	6
기초생활수급자	87.1	15	83.8	14	81.0	15	77.3	15	68.7	15	68.6	14
○ 보건	98.0	4	97.8	9	97.0	9	97.9	4	98.1	3	99.0	3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5	5	97.8	5	97.1	9	97.1	9	97.1	9	98.5	3
건강검진 수검률	97.1	10	97.7	6	97.1	6	97.5	6	99.6	6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99.5	4	97.7	11	96.9	12	99.1	9	97.5	9	98.4	4
○ 안전	78.2	3	76.9	4	80.2	3	83.9	1	81.9	4	79.7	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6.4	4	77.0	4	83.5	2	86.9	2	84.0	3	81.6	7
강력범죄(흉악법) 피해자 비율	79.9	4	76.8	7	76.9	9	80.8	4	79.9	5	77.8	7
○ 가족	58.1	12	60.6	10	58.2	17	60.2	17	61.6	17	62.3	17
가사노동시간	30.8	6	31.8	6	32.9	7	34.0	8	35.1	10	36.3	10
가족관계만족도	95.4	5	98.5	2	92.5	8	87.3	15	90.6	17	93.6	1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0	11	100.0	1	92.7	16	100.0	1	98.9	7	92.2	16
육아휴직자	8.2	15	11.9	16	15.0	17	19.6	17	21.9	17	27.0	17
○ 문화·정보	90.0	4	90.4	2	90.7	1	88.9	3	87.7	4	91.0	2
여가시간	76.1	5	75.9	2	75.6	2	75.2	2	74.9	2	74.6	2
여가만족도	97.3	6	97.2	7	97.2	7	94.4	8	91.4	8	99.1	3
인터넷 이용률	96.5	3	98.1	1	99.3	1	97.0	6	96.9	4	99.4	1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대구광역시의 2022년 종합 등급은 중상위권이다. 2019년 상위권에서 2020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중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등급 변화는 없다. 2022년 기준 의사결정, 보건, 문화·정보의 성평등 순위는 상위권인 반면, 가족 분야는 하위권으로 특히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여가시간, 여가활동 만족도는 상위권에 속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는 하위권에 속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육아휴직자 지표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 총 6개(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9〉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문화·정보
		하위	가족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여가시간, 여가활용만족도
		하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대구광역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의사결정, 보건,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4. 인천광역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인천광역시는 성평등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까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2020년 중상위권, 2021년 중하위권으로 순위가 등락하나, 2022년 중상위권으로 재진입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2년 73.0점으로 7위이다. 전년 대비 점수는 1.0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두 단계 하락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2년 85.6점으로 2021년 대비 0.4점 낮아졌으며, 순위는 한 단계 하락하여 13위에 위치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7년 9위에서 2018~2019년 12위, 2020~2021년 16위로 순위가 매우 낮아졌으나 2022년 한 단계 상승해 15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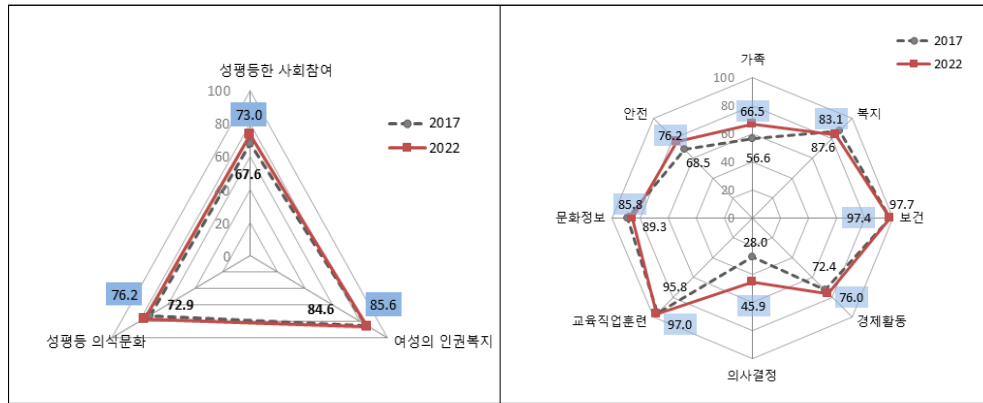
〈표 IV-10〉 인천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하위권	67.6	6	84.6	13	72.9	9
2018	중하위권	69.6	8	85.5	10	73.2	12
2019	중하위권	70.8	7	86.0	11	73.9	12
2020	중상위권	71.1	6	86.5	13	73.5	16
2021	중하위권	72.0	5	86.0	12	73.4	16
2022	중상위권	73.0	7	85.6	13	76.2	15
2021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1.0	-2	-0.4	-1	2.8	1
2017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5.4	-1	1.0	0	3.3	-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1년 10위에서 2022년 1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74.6점, 14위에서 2022년 78.5점, 7위로 점수 및 순위 모두 크게 상승한 반면 성별 임금 격차와 상용근로자비율은 점수 및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64.7점, 8위에서 2022년 64.4점, 13위로 하락하였으며, 상용근로자비율은 2021년 85.2점, 9위에서 2022년 85.1점, 10위로 하락하였다.



[그림 IV-4] 인천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의사결정 분야의 종합점수는 45.9점, 6위이다. 2021년 대비 점수는 1.6점 상승하나,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순위에 있어서는 2018년 이후 7위로 계속해서 변동이 없는 반면 점수는 2021년 대비 7.2점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점수와 순위 모두 전년 대비 동일하며, 2018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전년 대비 7.2점 개선되어 순위는 7위로 개선되었고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 개선을 견인하였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은 점수와 순위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해 의사결정 분야의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계속해서 4위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 지표 모두 상위권으로 평균교육연수는 4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00.0점으로 1위이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2년 13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하며, 해당 영역의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10위로 중하위권에, 보건 및 가족 분야는 각각 10위, 중하위권과 15위,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복지 분야는 2021년 13위에서 2022년 10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는 공적연금가입자가 2021년 11위에서 2022년 10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10위이다.

보건 분야는 2021년 중상위권에서 2022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8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2022년 9위를 기록하였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은 7위로 2021년과 순위가 동일하다. 반면 스트레스인지율은 연도별로 편차가 큰 지표로 2018년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6위, 2020년 7위,

2021년 12위, 2022년 17위로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의 점수 및 순위 하락이 보건 분야의 점수 및 순위 하락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안전 분야는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중하위권이며, 2022년 12위로 2021년 대비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지표별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1년 79.7점 7위, 2022년 79.9점 9위로 점수는 다소 상승했으나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하였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021년 75.5점 14위, 2022년 72.5점 13위로 점수는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상승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2년 하위권으로 가족 분야가 15위, 문화·정보 분야가 13위이다. 가족 분야는 2017년 16위, 2018년 15위, 2019년 16위, 2020년 13위, 2021년 14위, 2022년 15위로 지속해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16위)가 하위권이고, 가족관계만족도(10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12위)가 중하위권, 육아휴직자(8위)가 중상위권이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순위 변동이 큰 편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2년 85.8점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82.1점 15위 대비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하였다. 세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여가 시간은 한 단계, 여가만족도는 세 단계 상승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2021년 12위에서 2022년 1위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2017년 대비 여가만족도의 순위는 1위에서 7위로 하락했지만, 인터넷 이용률은 10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하면, 2021년 중하위권에서 2022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한다. 2022년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17개 시도 중 4위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가족 분야로 15위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6위로 중상위권이며 복지(10위), 경제활동(11위), 보건(10위), 안전(12위), 문화·정보(13위)는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표 IV-11〉 인천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2.4	7	74.4	6	75.4	7	75.4	8	74.8	10	76.0	11
경제활동참가율	74.9	9	76.2	7	77.0	8	77.0	11	74.6	14	78.5	7
성별 임금격차	61.5	7	63.8	7	65.0	5	65.6	5	64.7	8	64.4	13
상용근로자비율	80.8	8	83.2	6	84.4	8	83.4	10	85.2	9	85.1	10
○ 의사결정	34.7	6	38.5	10	40.7	7	41.4	8	44.3	5	45.9	6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1.8	10	37.0	7	37.0	7	37.0	7	37.0	7	44.2	7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30.1	6	29.7	9	35.6	9	30.0	11	36.5	9	42.4	7
관리자 비율	21.2	7	14.6	16	13.7	15	21.1	13	24.2	7	17.5	13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65.7	2	72.6	1	76.3	1	77.4	1	79.5	1	79.5	1
○ 교육·직업훈련	95.8	4	96.0	4	96.3	5	96.5	4	96.8	4	97.0	4
평균교육연수	91.5	4	92.0	4	92.5	5	93.0	4	93.5	4	94.0	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7.6	11	87.5	10	87.4	11	85.9	13	83.0	13	83.1	10
공적연금가입자	83.9	11	86.6	8	88.7	9	89.2	10	90.3	11	90.7	10
기초생활수급자	91.4	10	88.4	8	86.1	9	82.6	11	75.7	10	75.6	10
○ 보건	97.7	7	98.3	3	97.6	6	97.6	7	97.6	9	97.4	10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6	4	97.5	8	97.2	8	97.2	8	97.2	8	98.1	9
건강검진 수검률	97.3	9	97.4	9	96.2	9	96.3	9	99.1	7	99.5	7
스트레스인지율	98.1	13	100.0	1	99.3	6	99.3	7	96.3	12	94.5	17
○ 안전	68.5	12	70.7	10	73.0	12	76.0	12	77.6	11	76.2	1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2.1	5	72.6	6	77.0	7	79.4	7	79.7	7	79.9	9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65.0	15	68.7	15	69.0	15	72.6	15	75.5	14	72.5	13
○ 가족	56.6	16	57.6	15	60.1	16	62.4	13	64.7	14	66.5	15
가사노동시간	27.2	16	27.8	15	28.4	16	29.0	16	29.5	16	30.1	16
가족관계만족도	92.3	11	86.6	14	88.6	15	90.5	12	92.8	13	95.0	1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7.1	12	100.0	1	98.0	13	95.9	13	100.0	1	96.7	12
육아휴직자	9.7	14	16.1	13	25.6	11	34.2	7	36.5	6	44.4	8
○ 문화·정보	89.3	6	88.7	8	87.7	8	84.6	12	82.1	15	85.8	13
여가시간	73.4	13	71.3	14	69.0	15	66.6	16	64.0	16	61.3	15
여가만족도	100.0	1	100.0	1	98.4	6	93.0	9	87.2	10	96.1	7
인터넷 이용률	94.6	10	94.9	10	95.8	10	94.3	13	95.1	12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인천광역시는 2022년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진입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것은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 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017년과 비교하여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순위가 동일하며,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가 하락하였다. 특히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7년 9위에서 2022년 1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분야가 상위권에 해당하고 가족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한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이용률 총 4개이며,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스트레스인지율, 가사노동 시간, 여가시간 총 3개이다.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이고, 30점 미만 지표는 관리자 비율로 해당 지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성별 임금격차, 상용 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홍악법)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표 IV-12〉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하위	가족	
	지표	상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이용률	
		하위	스트레스인지율,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인천광역시는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등급이 높아짐.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5. 광주광역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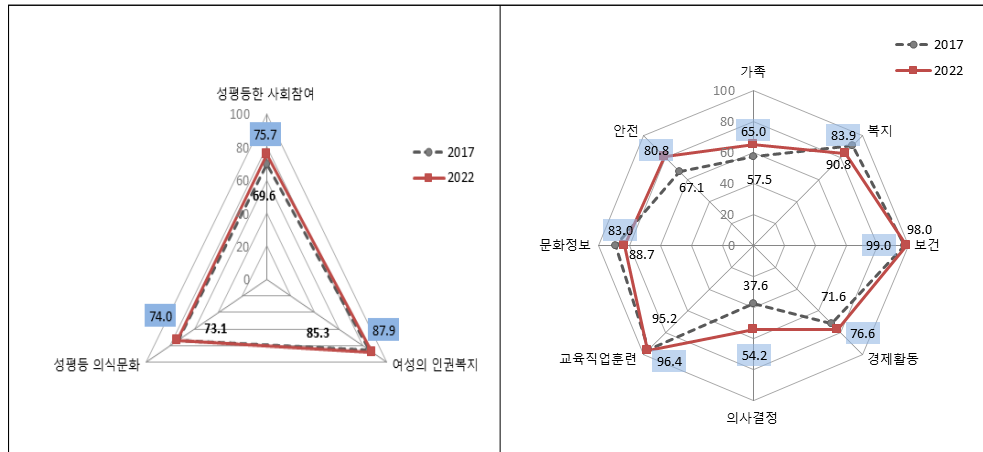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는 2021년 중상위권에서 2022년 상위권으로 성평등 등급이 상승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2년 75.7점으로 1위이다. 이 영역은 2017년 69.6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71.3점, 2019년 75.7점, 2020년 73.3점, 2021년 73.5점, 2022년 75.7점으로 202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며, 2017년 이후 상위권에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8년 15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9년 8위, 2020~2021년 6위, 2022년 4위로 점차 순위가 개선되고 있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7년 8위에서 2022년 17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2020년 이후 계속해서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13〉 광주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상위권	69.6	3	85.3	8	73.1	8
2018	중하위권	71.3	4	83.9	15	73.0	13
2019	상위권	75.7	1	86.7	8	73.7	13
2020	중상위권	73.3	4	87.7	6	73.0	17
2021	중상위권	73.5	2	87.6	6	71.8	17
2022	상위권	75.7	1	87.9	4	74.0	17
2021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2.2	1	0.3	2	2.2	0
2017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6.1	2	2.6	4	0.9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5] 광주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순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8년 12위에서 2020년 9위, 2022년 7위로 개선되었으며, 점수 역시 2018년 대비 4.5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수 개선과 더불어 순위도 상승하여 12위에서 11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비율은 2021년 대비 11위로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이에 비해 성별 임금격차는 다섯 단계 상승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7년 이후 지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순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점수는 2017년 대비 12.3점 상승했다. 지표별 순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2022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은 상위권이지만,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은 1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은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위권이지만,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은 2021년부터 순위가 하락하여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6위로 2018년 이후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지표별로 보아도 2018년 이후 평균교육연수는 6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위로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전년 대비 순위가 두 단계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2021년 10위에서 2022년 8위로 순위가 두 단계 상승하였으며, 안전 분야는 2021년 6위에서 2022년 4위로 두 단계 상승하였다. 반면 보건 분야는 2021년 2위를 유지하여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한다. 복지 분야를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2020년 4위에서 2021년 1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5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보건 분야는 순위가 계속해서 변동하며 중상위권과 상위권 안에서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5위, 2018년 7위 2019년 3위, 2020년 6위, 2021년 2위, 2022년 2위로 2022년 기준 상위권에 해당한다. 지표를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017년 10위에서 2019년 3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뒤 2021년까지 3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6위로 하락하였다. 반면 점수는 2021년 대비 0.6점 상승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2018년 4위에서 2021년 1위로 상승한 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연도별 변화폭이 큰 편인데 2017년 12위, 2018년 14위, 2019년 7위, 2020년 14위, 2021년 8위, 2022년 3위로 나타났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두 분야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하위권에 있다. 가족 분야는 지속해서 순위가 낮은 편이다. 2017년 15위에서 2020년 12위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다시 16위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역시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표를 보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7년 이후 계속하여 1위를 기록하다 2020년 10위로 크게 하락하였고 2021년부터 다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육아휴직자는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2021년 33.2점 11위에서 2022년 34.0점 11위로 순위에 변동이 없고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1년 95.9점 5위, 2022년 95.0점 9위로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0년 14위, 2021년 16위, 2022년 15위로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세 지표 모두 하위권에 속하는데, 2021년 대비 인터넷 이용률의 순위가 크게 하락한 점이 특징이다. 여가시간은 2021년 65.3점 14위에서 2022년 62.9점 14위로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여가만족도는 2021년 78.6점 16위에서 2022년 88.4점 15위로 점수 및 순위가 상승하였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2021년 2위에서 2022년 1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표 IV-14〉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1.6	10	72.1	12	73.4	12	74.8	9	75.0	9	76.6	7
경제활동참가율	76.5	8	75.9	8	76.8	9	79.1	7	75.7	12	78.1	11
성별 임금격차	61.1	9	61.8	9	63.3	9	63.4	10	64.4	9	66.7	4
상용근로자비율	77.1	13	78.6	12	80.2	14	81.9	12	85.0	11	84.9	11
○ 의사결정	41.9	1	46.3	1	57.9	1	49.3	1	49.4	1	54.2	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41.8	1	49.3	2	49.3	2	49.4	2	49.6	2	73.0	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0.2	2	41.5	2	46.7	3	40.5	4	43.0	4	47.7	5
관리자 비율	28.1	5	31.5	5	75.6	1	44.9	1	42.1	2	33.6	1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57.6	6	63.0	7	60.0	12	62.2	12	62.8	14	62.7	14
○ 교육·직업훈련	95.2	7	95.4	6	95.7	6	95.9	6	96.1	6	96.4	6
평균교육연수	90.4	7	90.8	6	91.3	6	91.8	6	92.3	6	92.7	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0.8	4	89.0	6	89.2	6	87.3	9	84.3	10	83.9	8
공적연금가입자	93.2	4	95.2	3	97.7	3	98.8	4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88.3	14	82.8	15	80.7	16	75.8	16	68.5	16	67.8	15
○ 보건	98.0	5	97.9	7	98.3	3	97.8	6	98.4	2	99.0	2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0	10	97.4	9	97.7	3	97.7	3	97.7	3	98.3	6
건강검진 수검률	98.9	3	99.2	4	98.1	3	98.8	3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98.1	12	97.2	14	99.2	7	96.8	14	97.5	8	98.8	3
○ 안전	67.1	15	64.9	15	72.4	13	77.9	7	80.0	6	80.8	4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3.3	13	58.8	15	72.3	13	78.8	9	81.5	6	85.0	4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70.8	13	70.9	12	72.6	13	76.9	10	78.5	9	76.5	8
○ 가족	57.5	15	58.2	14	60.7	14	62.9	12	63.0	16	65.0	16
가사노동시간	30.4	8	31.1	9	31.8	12	32.5	12	33.2	11	34.0	11
가족관계만족도	92.1	12	86.1	15	91.5	10	96.9	3	95.9	5	95.0	9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100.0	1	98.5	10	100.0	1	100.0	1
육아휴직자	7.5	16	15.6	14	19.5	16	23.9	16	22.9	16	31.1	16
○ 문화·정보	88.7	8	87.9	9	86.7	12	83.1	14	80.6	16	83.0	15
여가시간	74.1	10	72.1	13	69.9	13	67.7	13	65.3	14	62.9	14
여가만족도	96.5	7	95.3	9	94.3	10	86.9	14	78.6	16	88.4	15
인터넷 이용률	95.4	7	96.2	5	95.8	9	94.7	11	97.8	2	97.6	1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상위권에서 2020년과 2021년 중상위권으로 등급이 하락하나 2022년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에 있는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영역 간 순위 차이가 큰 편이다. 2022년 기준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1위)이며,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가족 분야(16위)이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광주광역시는 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를 보면,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의사결정, 보건, 안전 분야이며,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이다. 반면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가족, 문화·정보 분야로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성비, 인터넷이용률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이다.

광주광역시는 2022년 상위권이다. 그러나 분야 간 순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하위권에 속한 가족, 문화·정보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표를 보면,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없으나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표들(상용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Ⅳ-15〉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안전
		하위	가족, 문화·정보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광주광역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의사결정, 보건,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지표별로 가족 관계만족도, 여가시간성비, 인터넷이용률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없음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비율,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6. 대전광역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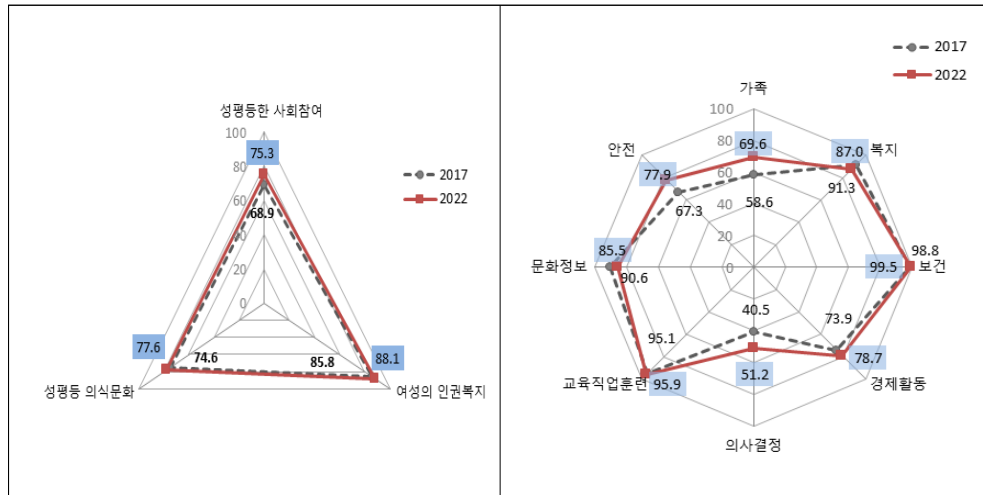
2022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종합순위는 상위권으로 2019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75.3점으로 2위이다. 2021년 대비 2.3점,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으며, 2017년 대비 6.4점, 순위는 두 단계 상승했다. 2022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8.1점으로 3위이다. 2021년 대비 점수는 0.2점 하락하였으며 순위는 한 단계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해보면 점수는 2.3점, 순위는 네 단계 상승하였다. 두 영역이 순위가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2022년 순위는 2021년과 동일하게 10위이며, 2017년 대비 7단계 하락한 순위이다.

〈표 IV-16〉 대전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상위권	68.9	4	85.8	7	74.6	3
2018	중상위권	71.6	2	85.3	11	73.3	11
2019	상위권	73.5	2	86.8	7	74.7	9
2020	상위권	73.5	1	88.1	5	73.6	15
2021	상위권	73.0	3	88.3	2	74.9	10
2022	상위권	75.3	2	88.1	3	77.6	10
2021년 대비 증감	동일	2.3	1	-0.2	-1	2.7	0
2017년 대비 증감	동일	6.4	2	2.3	4	3.0	-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6] 대전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에 속하며,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에 속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8년 2위에서 2019년 6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이후 2020년 4위, 2021년 7위, 2022년 4위로 순위가 등락하면서 상승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77.2점에서 2022년 78.4점으로 높아졌으나, 순위는 9위로 동일했고,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7위에서 2022년 3위로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비율 역시 2021년 2위에서 2022년 1위로 상승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7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순위는 2위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해오다 2022년 3위로 하락하였는데, 점수는 2021년 대비 10.2점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2021년 37.2점 8위에서 2022년 42.4점 5.2점 개선되나 순위는 8위로 동일한 반면, 관리자 비율은 2021년 24.1점 8위에서 2022년 25.3점으로 소폭 개선되면서 순위 또한 7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은 2021년 76.0점 2위에서 2022년 75.9점 2위로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9위로 2019년 이후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지표별로 보아도 2019년 이후 평균교육연수는 9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위로 동일한 순위를 보인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을 보면 복지 분야는 2022년 5위, 보건 분야는 1위, 안전

분야는 9위이다. 복지 분야는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21년 중상위권에서 하락했으나, 2022년은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한다. 보건 분야는 2018년 5위에서 2019년 2위로 순위가 상승한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안전 분야는 2022년 9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9위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하여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 분야 지표를 보면 세 지표 모두 2022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021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년도에 이어 1위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인지를 지표는 2021년 6위에서 2022년 1위로 상승하였다.

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17년 대비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2017년 14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8년 13위, 2019년 10위, 2020년 8위, 2021년 4위, 2022년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해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의 순위는 15위로 전년대비 한 단계 하위권에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가 4위로 상위권이고 문화·정보 분야는 14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분야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가족 분야는 2021년 8위에서 2022년 4위로 순위가 상승하지만, 문화·정보 분야는 2021년 12위에서 2022년 1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가족 분야를 지표별로 보면 전년 대비 가족관계만족도와 육아휴직자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지만,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4위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6위로 하락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2017~2019년까지 하위권에 위치하다 2020년 13위로 중하위권에 진입, 2021년 6위로 중상위권, 2022년 1위로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지속해서 순위가 상승한 지표이다. 반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21년 1위에서 2022년 14위로 하락하였다. 육아휴직자는 2021년 12위에서 2022년 7위로 다섯 단계 순위가 상승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1년 12위에서 2022년 1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여가시간의 순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지만, 여가만족도는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은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2021년 11위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 1위로 다시 상위권으로 분류되었다.

〈표 IV-17〉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3.9	5	75.7	2	75.5	6	76.6	4	76.4	7	78.7	4
경제활동참가율	74.1	11	77.3	6	76.3	11	79.0	8	77.2	9	78.4	9
성별 임금격차	62.4	5	63.8	5	64.8	6	66.2	2	65.0	7	66.8	3
상용근로자비율	85.1	1	86.1	2	85.6	5	84.6	6	87.0	2	90.9	1
○ 의사결정	37.9	5	44.0	4	49.5	2	48.5	2	47.0	3	51.2	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40.8	2	50.7	1	50.7	1	50.9	1	51.0	1	61.2	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34.1	4	33.6	6	35.4	10	31.2	9	37.2	8	42.4	8
관리자 비율	11.9	14	23.4	12	39.6	3	39.4	4	24.1	8	25.3	7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64.9	3	68.2	3	72.4	3	72.5	3	76.0	2	75.9	2
○ 교육·직업훈련	95.1	8	95.2	8	95.4	9	95.6	9	95.7	9	95.9	9
평균교육연수	90.1	8	90.5	8	90.8	9	91.1	9	91.4	9	91.8	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1.3	3	90.5	4	89.8	5	88.9	5	87.5	6	87.0	5
공적연금가입자	90.9	5	91.4	7	91.2	7	91.6	8	93.1	8	93.0	9
기초생활수급자	91.7	9	89.6	7	88.4	8	86.2	8	82.0	7	81.1	7
○ 보건	98.8	1	98.1	5	98.5	2	98.9	1	98.5	1	99.5	1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8.0	2	98.2	1	97.9	2	97.9	2	97.9	2	98.6	1
건강검진 수검률	98.4	5	98.8	5	97.7	5	98.6	4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7.3	13	100.0	1	100.0	1	97.6	6	100.0	1
○ 안전	67.3	14	67.3	14	72.0	14	76.4	10	78.8	8	77.9	9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3.1	14	64.3	13	73.3	10	79.0	8	82.5	4	86.0	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71.5	12	70.3	13	70.7	14	73.8	14	75.2	15	69.8	15
○ 가족	58.6	10	56.5	16	61.5	13	61.1	15	66.5	8	69.6	4
가사노동시간	32.6	3	33.7	4	34.7	4	35.9	4	37.0	4	38.3	6
가족관계만족도	89.7	16	85.4	16	87.1	17	88.9	13	95.8	6	100.0	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88.0	16	97.9	14	88.2	17	100.0	1	95.2	14
육아휴직자	12.2	10	18.9	11	26.3	9	31.2	10	32.9	12	45.0	7
○ 문화·정보	90.6	3	90.2	3	87.8	7	86.2	9	83.3	12	85.5	14
여가시간	75.9	6	73.3	9	70.6	12	67.7	14	64.5	15	61.1	16
여가만족도	100.0	1	100.0	1	94.9	8	92.5	10	90.2	9	95.4	8
인터넷 이용률	96.0	4	97.2	3	97.8	3	98.5	2	95.2	11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대전광역시는 2017년 이후 2018년(중상위권)을 제외하고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에 속하며,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 속한다.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분야가 상위권이고 교육·직업훈련, 안전 분야가 중상위권,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이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대전광역시는 2019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22년 기준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분야이며,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문화·정보 분야이다. 전년 대비 여가시간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져서 하위권에 위치한다.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12개 지표(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는 상위권에 속한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 시간 등 3개 지표는 하위권에 속했다.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는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관리자 비율)와 30점 이상 50점 미만인 지표(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자)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18〉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하위	문화·정보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대전광역시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 대비 여가시간성비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 져서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7. 울산광역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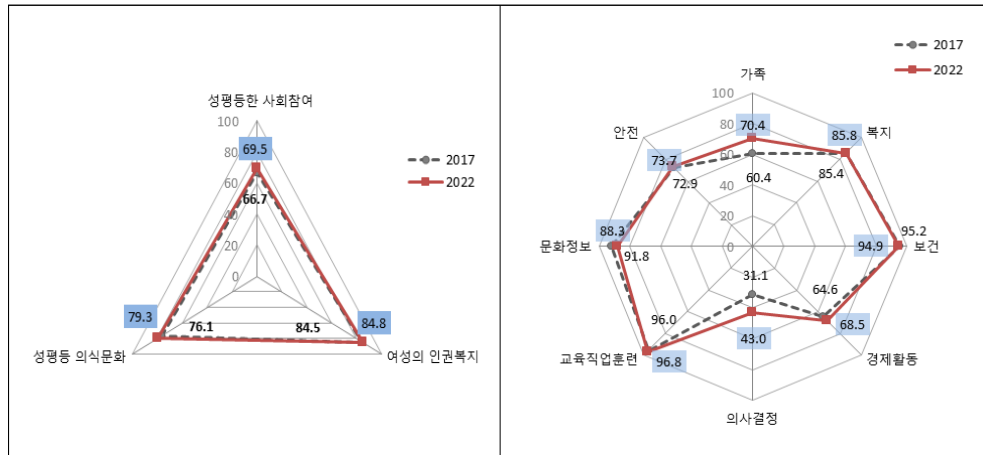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는 2022년 종합순위에서 하위권이다. 종합순위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7년 중하위권에서 2018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가 2019년 다시 중하위권을 기록하였고, 2020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22년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2년 69.5점으로 14위이다. 전년 대비 점수는 1.2점, 순위는 5단계 하락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1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과 2021년 대비 1단계 하락한 순위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위, 2021년 2위, 2022년 3위이다.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한다.

〈표 IV-19〉 울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하위권	66.7	7	84.5	14	76.1	1
2018	중상위권	68.3	10	85.6	9	78.4	1
2019	중하위권	67.8	13	85.8	13	78.5	1
2020	중상위권	69.7	9	86.4	14	80.9	1
2021	중하위권	70.7	9	85.8	14	78.0	2
2022	하위권	69.5	14	84.8	15	79.3	3
2021년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1.2	-5	-1.0	-1	1.3	-1
2017년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2.8	-7	0.3	-1	3.2	-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7] 울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된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5위, 의사결정 분야는 8위, 경제활동 분야 17위로 각각 상위권, 중상위권, 하위권에 위치한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7년 이래 하위권이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6위였으며,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 지표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17위,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비율은 16위로 모두 하위권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2년 43.0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점수는 4.7점 하락하였으며, 순위는 6단계 하락하였다.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8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3위, 관리자 비율 15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10위이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점수는 4.3점 개선되었으나, 순위는 3위로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하며,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크게 하락하면서 순위 또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가 각각 5위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순위에 변동이 없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 세 가지 분야 중 보건 분야와 안전 분야의 순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복지 분야가 7위, 보건 분야가 17위, 안전 분야가 15위이다. 복지 분야는 2017년 14위에서 지속해서 순위가 상승해 2021년 4위였으나 2022년 두 단계 하락한 7위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전 분야는 2020년 6위에서 2021년 14위로 급격하게 순위가 하락한 후 2022년 15위로 한 단계 더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의 지표별 변화를 보면, 2022년 기준 공적연금가입자가 14위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5위로 지표 간 순위 격차가 크다.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019년 이후 7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17위, 스트레스인지율은 11위에 해당한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순위지만, 스트레스인지율은 2021년 17위에서 여섯 단계 상승하였다.

안전 분야는 2017년 6위, 2018년과 2019년 7위, 2020년 6위에서 2021년 14위, 2022년 15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하위권으로 15위에 해당하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1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0년 6위에서 2021년 이후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018년 4위에서 2019년 10위, 2020년 13위, 2021년 11위로 순위가 변동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두 분야 모두 상위권에 해당한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이후 1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와 육아휴직자는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가족관계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섯 단계 하락한 12위에 위치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 1위로 상위권이 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2022년 순위는 전년 대비 세 단계 하락한 5위이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가만족도는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다 2021년 6위, 2022년 12위로 하락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은 2019년 7위에서 2020년 4위, 2021~2022년 1위로 지속해서 개선되었다.

〈표 IV-20〉 울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4.6	16	64.2	16	66.7	17	66.1	17	67.8	17	68.5	17
경제활동참가율	66.2	16	67.3	16	67.8	17	62.9	17	67.8	17	68.3	17
성별 임금격차	52.2	15	50.0	16	53.6	17	57.2	16	56.3	16	59.0	16
상용근로자비율	75.3	16	75.1	16	78.6	16	78.3	17	79.4	16	78.3	16
○ 의사결정	39.4	4	44.6	2	40.5	8	46.5	3	47.7	2	43.0	8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9.6	6	42.1	5	42.1	5	42.3	5	42.4	5	37.3	8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8.9	9	36.5	5	47.1	2	43.7	2	50.2	2	54.5	3
관리자 비율	38.9	2	33.0	3	6.5	17	31.7	6	33.5	3	15.6	15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60.4	5	66.9	4	66.3	8	68.4	8	64.8	10	64.8	10
○ 교육·직업훈련	96.0	2	96.2	2	96.3	4	96.5	4	96.7	5	96.8	5
평균교육연수	92.0	2	92.4	2	92.7	4	93.0	4	93.4	5	93.7	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5.4	14	87.2	11	87.1	12	87.8	8	87.6	5	85.8	7
공적연금가입자	74.4	16	80.3	14	81.7	15	85.4	14	88.3	13	86.7	14
기초생활수급자	96.3	2	94.2	3	92.6	4	90.1	5	86.9	4	84.9	5
○ 보건	95.2	16	95.5	16	94.1	17	93.4	17	93.0	17	94.9	17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8.4	1	98.2	2	97.2	7	97.2	7	97.2	7	98.2	7
건강검진 수검률	88.9	16	88.4	16	87.4	17	86.4	17	89.5	17	89.8	17
스트레스인지율	98.4	9	100.0	1	97.7	10	96.8	15	92.3	17	96.7	11
○ 안전	72.9	6	74.0	7	76.2	7	78.0	6	76.8	14	73.7	1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8.0	7	69.7	7	76.2	8	80.1	6	76.2	13	72.4	15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77.7	6	78.4	4	76.2	10	76.0	13	77.3	11	74.9	11
○ 가족	60.4	3	65.8	1	66.5	3	71.1	1	66.6	6	70.4	3
가사노동시간	27.2	15	27.0	16	26.7	17	26.5	17	26.2	17	25.9	17
가족관계만족도	93.5	8	96.6	4	96.6	2	96.7	4	95.6	7	94.5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9.0	8	100.0	1	92.2	17	100.0	1	83.6	17	100.0	1
육아휴직자	21.8	2	39.5	2	50.3	2	61.0	1	61.0	1	61.2	1
○ 문화·정보	91.8	1	91.1	1	90.4	2	90.8	1	89.3	2	88.3	5
여가시간	76.3	3	75.9	3	75.4	3	74.9	3	74.4	3	73.9	3
여가만족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95.6	6	91.0	12
인터넷 이용률	99.1	1	97.3	2	95.9	7	97.4	4	98.0	1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하면, 2022년 하위권으로,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 참여 영역은 69.5점, 14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또한 15위로 하위권에 있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으나 3위로 여전히 상위권이다. 8개 분야 중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가족 분야가 상위권이며, 의사결정, 복지 분야가 중상위권,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가 하위권에 해당한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울산광역시는 2022년 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인 반면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가 하위권에 속한다. 상용근로자성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성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였으며,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나, 순위는 변화가 없다.

성평등 지표 중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 등 8개 지표가 상위권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등 8개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보건, 안전 등 하위권 분야의 성평등 수준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표별로는 5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관리자 성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점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21〉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하위	경제활동, 보건, 안전
	지표	상위	5급 이상 공무원,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울산광역시는 전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하며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이지만,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 위치함. 지표별로 상용근로자 성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강력 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비율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8. 세종특별자치시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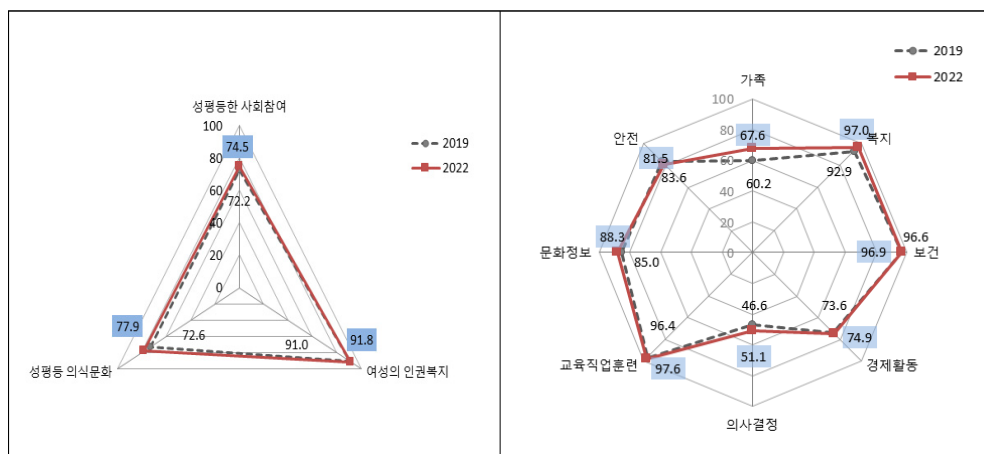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순위는 2019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74.5점, 5위로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하여 종합 등급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91.8점, 1위로 전년과 같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77.9점, 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순위 상승했다.

〈표 IV-2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9	상위권	72.2	4	91.0	1	72.6	15
2020	상위권	69.8	8	90.9	1	74.6	10
2021	상위권	69.4	12	91.9	1	75.7	6
2022	상위권	74.5	5	91.8	1	77.9	5
2021년 대비	동일	5.1	7	-0.1	0	2.2	1
2019년 대비	동일	2.3	-1	0.8	0	5.3	1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8]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74.9점, 13위로 중하위권에 속했고 전년 순위와 동일하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16위로 낮았고 전년 순위와 동일했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7위로 전년 대비 5단계 크게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비율은 5위로 전년과 같았다.

의사결정 분야는 51.1점, 3위로 상위권에 속했고 전년 대비 9단계 크게 상승했다. 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가 2위, 관리자 비율가 5위로 전년 대비 각각 8단계, 12단계 상승하여 의사결정 분야 종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0위로 전년 대비 3.4점 개선되었으나, 순위는 10위로 3단계 하락했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도 5위로 전년과 같았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97.6점, 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평균교육연수는 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도 1위로 전년과 같았다.

복지 분야 순위는 97.0점으로 상위권에 속했고 2020년 이래 1위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공적연금가입자가 1위로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보건 분야는 96.9점, 12위로 전년과 같고 중하위권에 속했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5위로 하위권에 속했고, 스트레스인지율은 5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안전 분야는 81.5점, 3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순위 하락했다.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12위로 전년과 같고, 중하위권에 속했다. 한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의 순위는 2020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 중이다.

가족 분야는 67.6점, 13위로 중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은 13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가족관계만족도는 1위로 전년 대비 14단계 크게 상승했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도 8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는 13위로 2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는 88.3점, 6위로 중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가 10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고, 여가만족도는 1위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4위로 전년 대비 7단계 급격히 하락했다.

〈표 IV-23〉 세종특별자치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3.6	11	74.7	10	73.7	13	74.9	13
경제활동참가율	71.1	16	71.9	15	72.0	16	71.6	16
성별 임금격차	65.1	4	64.3	9	63.3	12	66.5	7
상용근로자비율	84.7	7	87.9	4	85.8	5	86.7	5
○ 의사결정	46.6	3	37.8	11	37.3	12	51.1	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7.9	10	27.9	10	28.0	10	65.3	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3.5	5	33.8	6	37.5	7	40.9	10
관리자 비율	45.6	2	19.1	15	12.8	17	27.2	5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69.5	4	70.4	5	71.0	5	71.0	5
○ 교육·직업훈련	96.4	2	96.8	2	97.2	2	97.6	1
평균교육연수	92.8	2	93.6	2	94.4	2	95.1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2.9	2	95.0	1	96.0	1	97.0	1
공적연금가입자	89.6	8	94.6	7	97.1	7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96.1	1	95.3	1	95.0	1	93.9	2
○ 보건	96.6	10	96.5	11	97.3	12	96.9	12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8.4	1	98.4	1	98.4	1	98.5	2
건강검진 수검률	91.5	16	91.2	15	93.8	15	93.9	15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100.0	1	99.6	1	98.3	5
○ 안전	83.6	1	81.2	4	82.5	2	81.5	3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7.9	6	76.2	10	76.6	12	77.1	12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89.3	1	86.1	1	88.4	1	85.8	1
○ 가족	60.2	15	61.0	16	63.8	15	67.6	13
가사노동시간	32.6	8	32.6	11	32.6	12	32.6	13
가족관계만족도	87.9	16	84.0	17	92.7	15	100.0	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4.9	15	100.0	1	95.9	12	98.9	8
육아휴직자	25.5	12	27.3	14	34.1	11	38.8	13
○ 문화·정보	85.0	14	88.2	6	87.6	5	88.3	6
여가시간	66.8	17	66.8	15	66.8	12	66.8	10
여가만족도	89.9	13	98.0	5	100.0	1	100.0	1
인터넷 이용률	98.5	2	99.7	1	95.9	7	98.0	1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하면 2022년 종합 등급은 상위권으로, 분야별로는 의사결정(3위), 교육·직업훈련(1위), 복지(3위), 안전(3위)이 상위권에 속했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없었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전년 대비 9단계 크게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 등급은 2019년 이래 상위권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4개 분야가 상위권에 속했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총 23개 지표 중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11개 지표가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건강검진 수검률, 인터넷 이용률 3개 지표는 하위권에 속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종합 등급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가족 분야 순위 상승 때문으로, 세부 지표별로는 특히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관리자 성비, 가족관계만족도에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지표이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스트레스인자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표 IV-24〉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하위	-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건강검진 수검률,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동일임. 분야별로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가족 분야의 성평등이 개선되었고, 지표별로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9. 경기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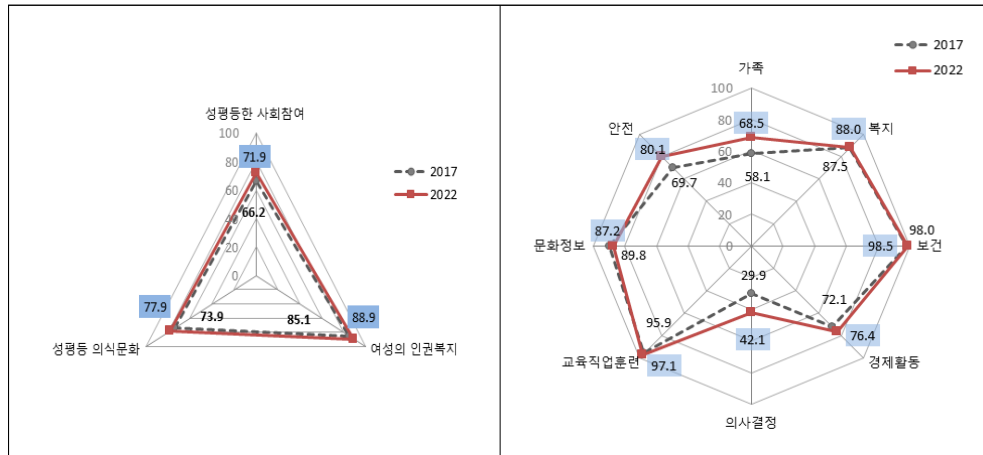
2022년 경기도 종합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중상위권이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이 71.9점, 8위로 중상위권에, 여성의 인권·복지는 88.9점, 2위로 상위권에, 그리고 성평등 의식·문화는 77.9점, 7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전년 대비 여성의 인권·복지는 1단계 상승한 데 반해, 성평등한 사회참여영역은 변화가 없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전년 대비 2단계의 순위 하락을 보였다.

〈표 IV-25〉 경기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하위권	66.2	8	85.1	10	73.9	6
2018	중상위권	69.7	7	85.8	8	74.9	5
2019	중상위권	70.1	9	86.5	9	75.6	7
2020	중하위권	69.6	10	87.3	7	75.7	7
2021	중상위권	70.9	8	88.2	3	76.1	5
2022	중상위권	71.9	8	88.9	2	77.9	7
2021년 대비	동일	1.0	0	0.7	1	1.8	-2
2017년 대비	1단계 상승	5.7	0	3.8	8	4.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9] 경기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76.4점, 8위로 중상위권에 속했고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15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하여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성별 임금격차는 1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은 4위로 전년 대비 6단계 크게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2.1점, 10위로 중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4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16위, 관리자 비율이 11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이 9위였다. 전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단계, 관리자 비율은 2단계 하락한 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97.1점, 3위로 상위권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평균교육연수는 3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위로, 2019년 이후 두 지표 모두 순위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는 88.0점, 4위로 소폭 점수는 상승하나 순위는 동일하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2020년 이후 계속 15위로 하위권을 유지 중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3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보건 분야는 98.5점, 4위로 상위권으로 전년과 같다. 지표별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10위로 전년과 같다. 스트레스인자율은 2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안전 분야는 80.1점, 6위로 중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데 반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가족 분야는 68.5점, 9위로 중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8위를 기록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7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1위로 전년 대비 무려 10단계 크게 상승했다. 반면, 육아휴직자는 10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는 87.2점, 8위로 중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가 13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고, 여가만족도는 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인터넷 이용률은 1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했다.

경기도 성평등 수준을 요약하면 2022년 종합 등급은 상위권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8위, 여성 인권·복지 영역은 2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7위로, 특히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순위가 높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교육·직업훈련(3위), 복지(3위), 보건 분야(4위) 3개 분야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없었으나 의사결정(10위) 분야가 중하위권에 속했다.

〈표 IV-26〉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2.1	8	73.6	9	73.4	13	73.0	13	74.5	11	76.4	8
경제활동참가율	72.9	12	72.8	14	73.4	15	71.0	16	75.0	13	75.7	15
성별 임금격차	60.8	10	61.7	10	62.7	11	63.1	11	63.6	10	65.4	11
상용근로자비율	82.7	3	86.2	1	84.1	9	84.9	5	85.0	10	88.1	4
○ 의사결정	30.6	9	39.5	7	40.5	9	39.1	9	41.5	9	42.1	10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31.8	4	46.8	3	46.8	3	47.0	3	47.1	3	50.8	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4.3	11	24.7	12	25.2	14	22.4	14	25.7	16	30.0	16
관리자 비율	10.7	16	25.1	9	24.3	8	21.2	12	24.1	9	18.5	11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55.8	9	61.4	10	65.8	9	66.0	10	69.0	9	69.0	9
○ 교육·직업훈련	95.9	3	96.1	3	96.4	3	96.6	3	96.9	3	97.1	3
평균교육연수	91.8	3	92.3	3	92.8	3	93.2	3	93.7	3	94.2	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7.5	12	87.7	9	87.9	9	88.2	6	87.9	4	88.0	4
공적연금가입자	79.2	12	81.1	13	82.5	14	84.0	15	85.6	15	85.7	15
기초생활수급자	95.8	3	94.4	2	93.3	3	92.5	3	90.3	3	90.4	3
○ 보건	98.0	3	98.2	4	97.6	5	97.3	8	97.9	4	98.5	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4	6	97.6	7	97.5	4	97.5	4	97.5	4	98.3	5
건강검진 수검률	96.7	11	97.0	12	95.3	11	95.1	11	97.9	10	98.1	10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100.0	1	100.0	1	99.4	6	98.1	5	99.0	2
○ 안전	69.7	9	71.3	8	74.0	11	76.3	11	78.9	7	80.1	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3.5	12	64.9	11	70.4	14	73.8	13	77.4	10	81.3	8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76.0	8	77.7	5	77.5	6	78.8	6	80.3	4	78.9	5
○ 가족	58.1	13	60.7	9	62.6	10	64.0	9	65.6	10	68.5	9
가사노동시간	29.4	11	30.9	10	32.4	10	34.0	9	35.5	8	37.1	8
가족관계만족도	92.9	10	93.2	7	92.0	9	90.9	10	94.2	9	97.2	7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4	14	98.6	10	100.0	1	99.7	9	97.4	11	100.0	1
육아휴직자	13.6	8	20.3	10	25.9	10	31.5	8	35.3	9	39.8	10
○ 문화·정보	89.8	5	89.1	6	88.6	5	87.5	7	86.7	6	87.2	8
여가시간	74.5	9	72.7	11	70.9	11	68.9	11	66.9	11	64.6	13
여가만족도	100.0	1	100.0	1	98.7	4	97.8	6	96.8	4	97.0	5
인터넷 이용률	94.9	9	94.6	11	96.1	6	95.8	8	96.4	6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경기도 종합 등급은 중상위권이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3개 분야가 상위권에 속했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없다. 세부 지표별로는 상위권에 포함된 지표는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총 11개 지표다. 반면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총 3개 지표이다.

전년 대비 종합 등급은 중상위권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안전, 가족 분야의 순위가 상승했고, 지표별로는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순위가 높아져서이다.

반면, 2022년 관리자 비율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여가시간들 또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27〉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하위	-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 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기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경제활동, 안전,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했고, 지표별로는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 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의 순위가 높아져서 상위권에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0. 강원특별자치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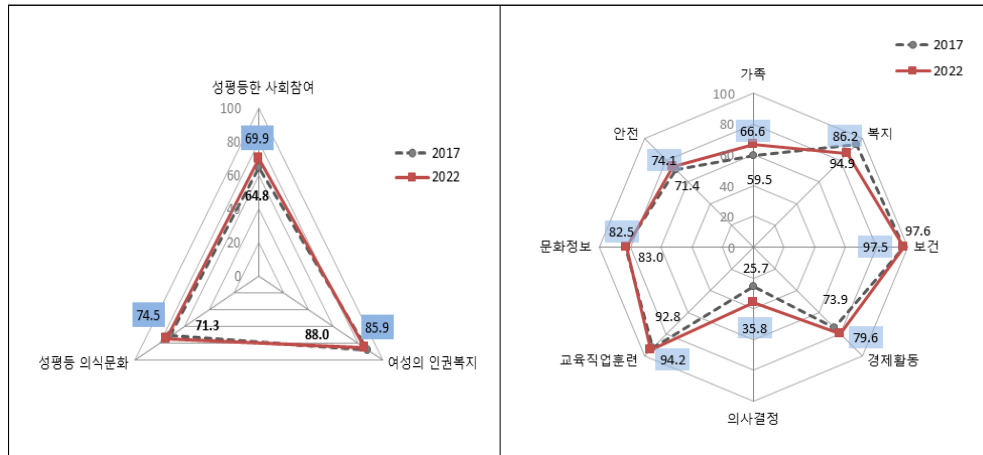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한 사회 참여 점수는 69.9점, 1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순위 상승했다.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5.9점, 1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순위 하락했다.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4.5점, 16위로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표 IV-28〉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상위권	64.8	11	88.0	4	71.3	15
2018	중하위권	67.0	11	87.0	6	72.0	15
2019	중하위권	68.1	11	86.3	10	72.5	16
2020	중하위권	68.5	13	87.0	9	73.8	13
2021	중하위권	68.8	13	86.5	11	74.6	13
2022	중하위권	69.9	12	85.9	12	74.5	16
2021년 대비	동일	1.1	1	-0.6	-1	-0.1	-3
2017년 대비	1단계 하락	5.1	-1	-2.1	-8	3.2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0] 강원특별자치도 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로 보면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동 분야는 79.6점, 3위로 상위권에 속했고 전년 순위와 동일하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위, 성별 임금격차는 6위로 두 지표 모두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한편, 상용근로자비율은 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35.8점, 14위로 하위권에 속했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1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데 반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관리자 비율은 9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17위로 2019년 이후 계속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94.2점, 14위로 2019년 이래 계속 14위이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평균교육연수는 14위로 2019년 이후 계속 14위이다. 반면 평균교육연수는 1위로 전년과 같다.

복지 분야 순위는 86.2점, 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공적 연금가입자는 1위로 2017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보건 분야는 97.5점, 9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중상위권이다. 세부 지표별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1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9위이다. 스트레스인지율은 12위로 전년 대비 9단계 크게 하락하여 보건 분야 종합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전 분야는 74.1점, 1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순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13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14위로 전년 대비 6단계 크게 하락했다.

가족 분야는 66.6점, 14위로 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은 7위로 전년과 같은 반면, 가족관계만족도는 8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도 15위로 전년 대비 5단계 하락했다. 하지만, 육아 휴직자는 11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문화·정보 분야는 82.5점, 16위로 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은 9위로 전년과 같고, 여가만족도는 14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하락하여 문화·정보 분야 종합순위 하락을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률은 17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다.

요약하면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분야별로는 경제활동(2위)이 상위권에 속했지만, 의사결정(14위), 교육·직업 훈련(14위), 안전(14위), 가족(14위), 문화·정보(16위)는 하위권에 속했다.

〈표 IV-29〉 강원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3.9	4	73.5	10	75.8	3	76.4	5	78.2	3	79.6	3
경제활동참가율	80.3	2	79.0	3	81.7	2	81.9	2	83.5	2	85.4	2
성별 임금격차	60.5	11	62.1	8	64.0	8	65.3	6	65.5	6	66.6	6
상용근로자비율	80.8	6	79.3	11	81.7	13	81.9	13	85.6	7	86.7	6
○ 의사결정	27.9	13	34.4	11	35.2	13	35.6	14	34.1	15	35.8	1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17.8	14	25.7	12	25.7	13	25.8	13	25.8	13	29.0	1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9.0	8	31.6	7	37.1	8	31.7	8	36.1	10	41.1	9
관리자 비율	20.2	8	26.3	8	24.0	9	30.4	8	21.2	11	19.8	9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44.4	13	54.1	13	54.1	17	54.5	17	53.3	17	53.3	17
○ 교육·직업훈련	92.8	13	93.1	13	93.4	14	93.7	14	93.9	14	94.2	14
평균교육연수	85.5	13	86.1	13	86.7	14	87.3	14	87.9	14	88.4	1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4.9	1	93.3	2	91.7	3	89.7	4	85.6	7	86.2	6
공적연금가입자	98.8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91.0	11	86.5	13	83.4	14	79.4	14	71.1	14	72.4	11
○ 보건	97.6	8	96.9	11	95.6	15	96.8	10	97.7	5	97.5	9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6.8	11	96.2	13	96.0	15	96.0	15	96.0	15	97.2	14
건강검진 수검률	97.6	7	97.5	7	96.7	7	96.9	7	98.5	9	98.6	9
스트레스인지율	98.4	10	97.0	15	94.1	17	97.5	12	98.7	3	96.6	12
○ 안전	71.4	8	71.0	9	71.5	15	74.4	15	76.1	15	74.1	14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6.3	9	68.5	9	69.6	15	70.5	17	73.6	15	76.3	1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76.6	7	73.4	11	73.4	12	78.3	8	78.6	8	72.0	14
○ 가족	59.5	6	61.2	7	62.8	8	64.1	8	65.0	11	66.6	14
가사노동시간	32.3	4	33.3	5	34.3	5	35.4	5	36.4	7	37.5	7
가족관계만족도	90.8	15	88.9	12	89.8	13	90.7	11	93.4	11	96.1	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99.1	10	100.0	1	97.5	10	93.4	15
육아휴직자	15.0	6	22.8	6	27.9	7	30.4	12	32.6	13	39.2	11
○ 문화·정보	83.0	14	82.8	14	82.2	15	83.6	13	84.3	9	82.5	16
여가시간	73.7	12	72.6	12	71.4	10	70.1	10	68.7	9	67.1	9
여가만족도	85.6	13	84.9	14	84.3	15	88.5	12	93.4	7	88.5	14
인터넷 이용률	89.6	15	90.8	15	90.9	16	92.1	14	90.7	15	92.0	1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이다. 분야별로 보면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분야가 상위권에 속했고,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가족, 문화·정보, 안전 5개 분야는 하위권에 속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 연금가입자 3개 지표가 상위권에 속했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7개 지표는 하위권에 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등급변화가 없었으나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데 반해, 보건, 가족, 문화·정보 분야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지표별로는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는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은 순위가 하락하였다.

한편,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그리고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로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성평등 점수가 하락한 관리자 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6개 지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30〉 강원특별자치도 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가족, 문화·정보,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보건, 가족, 문화·정보는 순위가 하락함. 지표별로는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설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순위가 높아진 반면,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은 순위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관리자 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1. 충청북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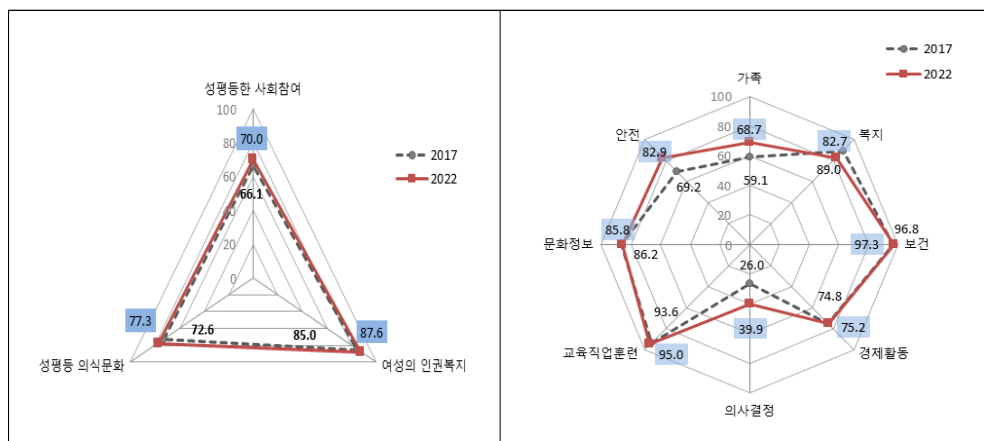
2022년 충청북도 성평등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70.0점, 11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7.6점, 5위로 상위권이고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7.3점, 12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표 IV-31〉 충청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하위권	66.1	9	85.0	11	72.6	11
2018	중상위권	69.6	9	86.4	7	74.7	6
2019	중상위권	69.8	10	85.9	12	76.9	4
2020	중하위권	69.0	11	85.8	16	75.9	6
2021	중상위권	70.3	10	87.3	8	75.1	9
2022	중하위권	70.0	11	87.6	5	77.3	12
2021년 대비	1단계 하락	1.3	-1	0.3	3	2.2	-3
2017년 대비	동일	3.9	-2	2.6	6	4.7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1] 충청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충청북도 경제활동 점수는 75.2점, 12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0위로 전년 대비 5단계 하락했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는 8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비율은 15위로 전년 대비 11단계 크게 하락하여 경제활동 순위 하락을 이끈 주요 요인이다.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9.9점, 11위로 중하위권이었고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3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1위로 전년 대비 4.7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동일했다. 관리자 비율은 12위로 전년대와 같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도 4위로 2020년 이후 계속 4위를 유지 중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95.0점, 12위로 중하위권으로 2019년 이후 계속 12위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교육연수는 12위로 전년대와 같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위로 전년대와 같다.

복지 분야는 82.7점, 14위로 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공적연금가입자는 1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위로 전년대와 동일했다.

보건 분야는 97.3점, 11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하여 중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12위로 2019년 이후 계속 12위를 유지 중이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11위로 전년대와 같다. 스트레스인지율은 8위로 전년 대비 6단계 크게 하락하여 보건 분야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 종합점수는 82.9점, 2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데 반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10위로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가족 분야는 68.7점, 8위 중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은 9위로 전년대와 같다. 가족관계만족도는 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7위로 전년 대비 6단계 크게 하락했다. 육아휴직자는 9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는 85.8점, 12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여가시간은 1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고, 여가만족도는 11위로 전년대와 같다. 인터넷 이용률은 1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상승했다.

〈표 IV-32〉 충청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4.8	3	75.5	4	75.7	5	75.6	7	76.8	5	75.2	12
경제활동참가율	78.6	4	75.8	10	78.7	5	80.5	3	80.9	5	78.2	10
성별 임금격차	64.4	1	64.7	3	61.9	12	62.0	13	63.5	11	65.8	8
상용근로자비율	81.4	5	86.1	3	86.5	1	84.4	8	86.0	4	81.5	15
○ 의사결정	29.9	10	39.2	8	39.5	10	37.0	12	39.3	10	39.9	1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0.9	11	26.2	11	26.3	11	26.5	11	26.6	11	26.1	1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6.8	10	29.3	10	31.5	11	30.4	10	36.0	11	40.7	11
관리자 비율	15.7	13	38.8	1	31.9	5	20.6	14	20.2	12	18.1	12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56.4	8	62.7	8	68.2	7	70.7	4	74.4	4	74.7	4
○ 교육·직업훈련	93.6	11	93.9	11	94.2	12	94.4	12	94.7	12	95.0	12
평균교육연수	87.2	11	87.8	11	88.3	12	88.9	12	89.4	12	90.0	1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9.0	8	87.2	12	86.6	13	86.2	12	83.7	11	82.7	14
공적연금가입자	85.4	8	86.5	9	87.4	10	89.7	9	91.2	10	89.6	11
기초생활수급자	92.7	6	87.8	9	85.7	11	82.7	10	76.1	9	75.9	9
○ 보건	96.8	13	97.7	10	95.8	14	96.2	12	97.6	7	97.3	11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6.7	12	97.0	11	96.5	12	96.5	12	96.6	12	97.8	12
건강검진 수검률	97.3	8	97.2	11	95.2	12	95.3	10	97.2	11	97.2	11
스트레스인지율	96.3	15	98.8	9	95.7	15	96.9	13	99.1	2	96.9	8
○ 안전	69.2	10	74.4	6	75.4	8	74.9	14	80.8	5	82.9	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3.9	11	73.1	5	73.3	11	73.4	14	82.0	5	90.6	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74.5	10	75.8	8	77.5	7	76.3	11	79.5	7	75.2	10
○ 가족	59.1	8	59.7	12	63.6	7	63.1	10	66.9	4	68.7	8
가사노동시간	29.8	9	31.1	8	32.5	9	33.9	10	35.3	9	36.8	9
가족관계만족도	93.5	7	94.6	6	94.4	5	94.3	7	96.7	3	98.8	4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92.1	15	100.0	1	92.7	14	100.0	1	99.0	7
육아휴직자	13.1	9	20.9	9	27.4	8	31.4	9	35.5	7	40.0	9
○ 문화·정보	86.2	10	89.6	4	90.2	3	88.8	4	83.2	13	85.8	12
여가시간	77.3	2	75.1	4	72.8	8	70.3	9	67.7	10	65.0	11
여가만족도	86.2	12	97.4	6	100.0	1	98.1	4	86.1	11	92.5	11
인터넷 이용률	95.1	8	96.3	4	97.8	4	97.9	3	95.8	8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종합하면 2022년 충청북도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이고, 분야별로는 안전(2위) 분야만 상위권에 속했다. 가족(8위)은 중상위권에 속했고 복지(14위)는 하위권에 속했다. 그 외 나머지 분야는 모두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충청북도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중하위권에서 2021년에 중상위권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다시 중하위권으로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8개 분야 중 안전만 상위권에 속했고 복지 분야만 하위권에 속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5개 지표고,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상용근로자비율 1개 지표 뿐이다.

충청북도는 전년 대비 종합 등급이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했는데, 하락 요인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분야 하락 때문으로 세부 지표별로는 특히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서 순위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2년 충청북도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로 성평등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 시간도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33〉 충청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상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하위	복지
	지표	상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상용근로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충청북도는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등급이 낮아짐. 하락 원인은 경제활동, 의사 결정, 복지, 보건, 가족 때문으로, 지표별로는 특히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서 상대적으로 순위 하락이 크게 나타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2. 충청남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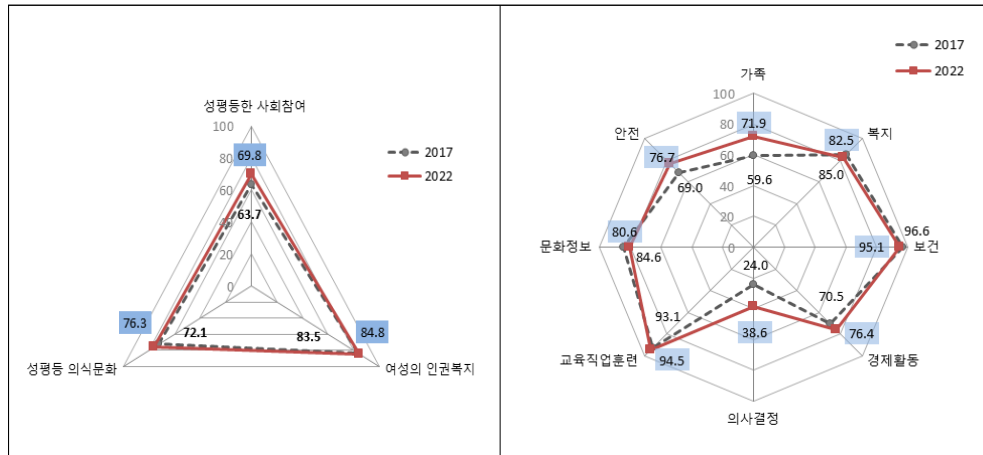
2022년 충청남도 성평등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으로, 2017년 이후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다 2022년 중하위권에 진입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9.8점, 13위로 중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는 84.8점, 1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여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는 76.3점, 1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표 IV-34〉 충청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하위권	63.7	14	83.5	15	72.1	14
2018	하위권	66.1	13	83.7	16	73.9	10
2019	하위권	66.7	15	85.3	16	76.2	6
2020	하위권	67.3	15	86.6	12	75.2	9
2021	하위권	68.3	14	85.6	15	73.5	15
2022	중하위권	69.8	13	84.8	16	76.3	14
2021년 대비	1단계 상승	1.5	1	-0.8	-1	2.8	1
2017년 대비	1단계 상승	6.1	1	1.3	-1	4.2	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2] 충청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충청남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6.4점, 9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하여서 중상위권이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했고, 성별 임금 격차는 1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상용 근로자비율은 8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8.6점, 13위로 전년 순위와 동일했고, 중하위권이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32.8점, 10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22.7점으로 전년 대비 1.8점 개선되었으나, 순위는 17위로 전체 시도 중 최하위이다. 관리자 비율은 28.5점, 4위로 전년과 같은 상위권이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70.3점, 8위로 전년과 같고, 중상위권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종합점수는 94.5점, 13위로 중하위권이고 2019년 이후 계속 13위에 머물고 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교육연수 점수는 89.0점, 13위로 중하위권이고 2019년 이후 계속 13위를 유지 중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위로 전년과 같다.

복지 분야는 82.5점, 1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고, 하위권이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83.0점, 17위로 전체 시도 중 최하위고 2020년부터 계속 17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2.0점, 6위로 전년과 동일하다.

보건 분야는 95.1점, 16위로 전년과 같고, 하위권이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97.1점, 16위로 2019년 이후 계속 16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92.6점, 16위로 2020년 이후 계속 16위다. 스트레스인지율은 97.5점, 15위로 전년 대비 8단계 크게 하락하였다.

안전 분야의 종합점수는 76.7점이고 10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여 중하위권에 속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78.0점, 10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75.4점, 9위로 반대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가족 분야는 71.9점, 2위로 2020년 이후 계속 2위를 유지하여서 상위권이다. 세부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은 39.5점, 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17위로 전체 시도 중 최하위고,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하락했다. 반면,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1위로 전년 대비 8단계 크게 상승했다. 육아휴직자는 2위로 전년과 같다.

문화·정보 분야 종합점수는 80.6점, 17위로 전년대와 같고 전체 시도 중 최하위다. 세부 지표별로는 여가시간은 17위로 2020년 이후 계속 최하위다. 여가만족도도 17위로 전년대와 같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1위로 전년 대비 9단계 크게 상승했다.

요약하자면 2022년 충청남도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분야별로 보면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가족(2위) 분야이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복지(15위), 보건(16위), 문화·정보(17위) 3개 분야이다.

〈표 IV-35〉 충청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0.5	12	73.7	7	73.7	10	74.7	11	73.9	12	76.4	9
경제활동참가율	72.8	13	75.7	11	77.1	7	77.5	9	76.1	11	79.2	6
성별 임금격차	61.1	8	61.7	12	61.3	13	63.1	12	63.2	13	64.6	12
상용근로자비율	77.5	12	83.6	5	82.6	11	83.5	9	82.5	13	85.4	8
○ 의사결정	27.4	14	31.4	14	32.7	15	33.2	15	36.8	13	38.6	1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18.4	12	30.7	9	30.7	9	31.0	9	31.1	9	32.8	10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6.2	16	19.0	16	19.1	17	17.9	17	20.9	17	22.7	17
관리자 비율	29.2	4	20.0	14	18.7	11	17.0	16	25.3	4	28.5	4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46.0	12	55.9	11	62.2	11	66.9	9	70.0	8	70.3	8
○ 교육·직업훈련	93.1	12	93.4	12	93.7	13	94.0	13	94.2	13	94.5	13
평균교육연수	86.1	12	86.7	12	87.3	13	87.9	13	88.5	13	89.0	1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5.0	15	84.9	15	85.1	16	84.9	16	82.8	14	82.5	15
공적연금가입자	76.7	14	78.4	15	80.3	16	81.5	17	82.9	17	83.0	17
기초생활수급자	93.4	5	91.4	6	90.0	6	88.3	6	82.6	6	82.0	6
○ 보건	96.6	14	96.7	13	95.9	12	95.3	15	95.5	16	95.1	16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6.4	14	96.2	15	96.0	16	96.0	16	96.0	16	97.1	16
건강검진 수검률	94.5	14	94.3	14	91.8	14	89.9	16	93.0	16	92.6	16
스트레스인지율	99.0	6	99.5	5	100.0	1	100.0	1	97.5	7	95.7	15
○ 안전	69.0	11	69.6	13	75.0	9	79.6	5	78.4	9	76.7	10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2.6	15	64.9	12	73.1	12	80.7	5	79.2	8	78.0	10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75.3	9	74.3	10	76.9	8	78.5	7	77.7	10	75.4	9
○ 가족	59.6	5	62.2	5	65.6	4	68.7	2	69.3	2	71.9	2
가사노동시간	28.1	13	30.1	12	32.2	11	34.5	7	36.9	5	39.5	4
가족관계만족도	94.0	6	92.4	8	94.1	7	95.9	5	93.7	10	91.6	17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98.9	11	100.0	1	98.4	9	100.0	1
육아휴직자	16.2	5	26.3	4	37.2	3	44.5	3	48.2	2	56.5	2
○ 문화·정보	84.6	13	85.6	12	86.8	11	81.7	16	77.7	17	80.6	17
여가시간	73.0	14	70.9	15	68.7	16	66.3	17	63.8	17	61.1	17
여가만족도	86.8	11	90.9	11	94.5	9	84.3	15	74.0	17	80.9	17
인터넷 이용률	93.9	12	95.1	8	97.4	5	94.6	12	95.4	10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충청남도의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계속 하위권에 머물다 2022년 처음으로 중하위권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가족 분야가 유일했지만,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복지, 보건, 문화·정보 3개 분야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7개 지표고,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8개 지표다.

2022년 충청남도의 성평등 종합 등급은 2021년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상승했는데, 상승 요인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2개 분야 순위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등에서의 순위 상승 때문이다.

한편, 2022년 충청남도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로 향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도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36〉 충청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복지, 보건, 문화·정보
	지표	상위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 수급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하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충청남도는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등급이 높아짐. 상승 원인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 순위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등에서의 순위 상승 때문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3. 전북특별자치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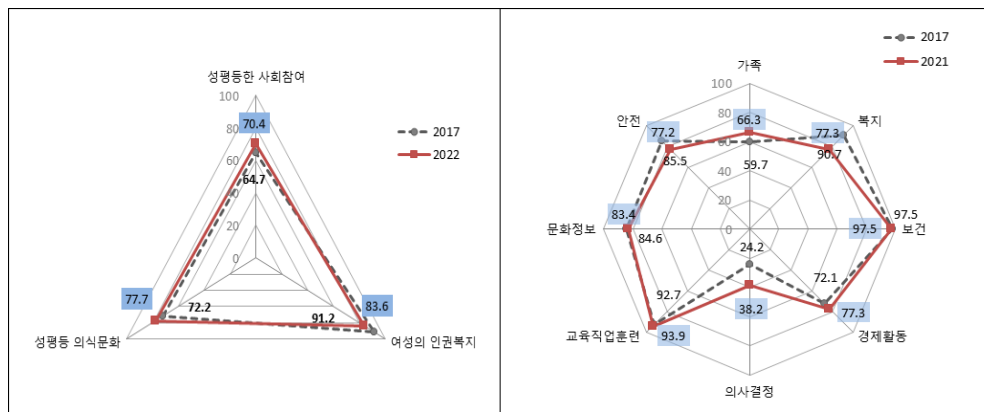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70.4점, 10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3.6점, 17위로 마찬가지로 하위권이고 순위는 전년 대비 동일하다.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7.7점, 8위로 중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표 IV-37〉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상위권	64.7	12	91.2	1	72.2	13
2018	중하위권	66.6	12	89.2	1	70.5	16
2019	중하위권	68.1	12	87.9	4	71.4	17
2020	중하위권	68.6	12	87.1	8	73.7	14
2021	중하위권	69.8	11	84.0	17	74.9	11
2022	중하위권	70.4	10	83.6	17	77.7	8
2021년 대비	동일	0.6	1	-0.4	0	2.8	3
2017년 대비	2단계 하락	5.7	2	-7.6	-16	5.5	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3]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8.4점, 5위로 상위권이지만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은 3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고, 성별 임금 격차는 9위로 전년 대비 5단계 하락했다. 상용근로자비율은 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8.7점, 12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1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5.1점으로 전년 대비 5.2점 개선되었으나 순위는 13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관리자 비율은 31.0점, 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16위로 전년과 같았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종합점수는 94.2점, 15위로 하위권이고, 2019년 이후 계속 15위에 머물고 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교육연수 점수는 15위로 2019년 이후 계속 15위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1위로 전년과 변동 없다.

복지 분야 종합점수는 77.1점, 16위로 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1위로 2020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 중이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7위로 하위권이며, 순위가 전년대비 동일하다.

보건 분야 종합점수는 97.9점, 8위로 중상위권이고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13위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1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14위로 전년보다 1단계 내려왔다.

안전 종합점수는 75.7점, 13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17위로 전체 시도 중 최하위로 전년과 순위변동이 없었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위로 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가족 종합점수는 68.5점, 10위로 중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은 2위로 2019년 이후 계속 2위를 유지 중이다. 가족관계만족도는 16위로 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8단계 크게 하락했다. 반대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1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1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표 IV-38〉 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2.1	9	73.6	8	74.9	9	75.9	6	77.3	4	78.4	5
경제활동참가율	76.7	7	74.6	12	76.0	12	79.6	6	79.8	6	83.9	3
성별 임금격차	60.5	12	66.1	2	66.9	2	65.9	4	66.7	4	65.8	9
상용근로자비율	79.1	11	80.2	10	81.9	12	82.4	11	85.5	8	85.4	9
○ 의사결정	29.2	12	33.2	12	35.9	12	36.4	13	38.2	11	38.7	1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18.3	13	22.5	14	22.4	15	22.5	15	22.6	15	31.3	1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0.6	12	24.9	11	28.4	12	25.9	12	29.9	13	35.1	13
관리자 비율	34.2	3	32.9	4	38.2	4	40.4	3	43.2	1	31.0	2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43.7	15	52.5	14	54.7	15	56.5	15	57.2	16	57.3	16
○ 교육·직업훈련	92.7	14	93.0	14	93.3	15	93.6	15	93.9	15	94.2	15
평균교육연수	85.5	14	86.1	14	86.6	15	87.2	15	87.8	15	88.3	1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0.7	6	89.0	7	87.8	10	85.6	14	77.3	17	77.1	16
공적연금가입자	96.1	2	97.6	2	99.1	2	100.0	1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85.3	16	80.4	16	76.5	17	71.2	17	54.6	17	54.3	17
○ 보건	97.5	10	97.8	8	97.9	4	98.1	3	97.5	10	97.9	8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5.7	16	96.2	14	96.3	14	96.3	14	96.3	14	97.6	13
건강검진 수검률	98.8	4	99.3	3	97.9	4	98.0	5	99.9	5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98.1	11	97.8	10	99.5	5	100.0	1	96.2	13	96.1	14
○ 안전	85.5	1	80.7	2	78.0	4	77.5	9	77.2	12	75.7	13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89.6	1	82.9	2	78.2	4	74.8	11	72.6	17	70.3	17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81.4	2	78.5	3	77.7	5	80.2	5	81.7	3	81.0	2
○ 가족	59.7	4	58.5	13	62.8	9	66.1	6	66.3	9	68.5	10
가사노동시간	31.5	5	34.3	3	37.0	2	39.9	2	42.9	2	45.9	2
가족관계만족도	95.7	4	91.5	10	94.6	4	97.8	2	95.2	8	93.0	16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94.1	14	98.4	12	98.1	11	98.8	8	100.0	1
육아휴직자	11.7	12	14.1	15	21.0	15	28.5	13	28.5	15	35.1	14
○ 문화·정보	84.6	12	82.6	15	80.1	17	81.4	17	83.4	11	86.9	10
여가시간	74.0	11	73.5	8	72.9	7	72.3	7	71.5	6	70.7	6
여가만족도	84.2	15	79.2	16	74.7	17	79.9	17	85.5	13	89.9	13
인터넷 이용률	95.6	5	95.1	9	92.5	14	91.9	15	93.2	14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문화·정보 분야 종합점수는 86.9점, 10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여가시간은 6위로 전년과 같고, 여가만족도도 13위로 전년과 같다. 한편, 인터넷 이용률은 1위로 전년 대비 13단계 크게 상승하여 문화·정보 분야 종합순위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요약하면 전북특별자치도 2022년 종합 등급은 하위권이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5위) 분야만 상위권이고 교육·직업 훈련(15위) 및 복지(16위)는 하위권이다. 반면, 보건(8위)은 중상위권이고 그 외 분야는 모두 중하위권에 속했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2020년 이후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1개뿐이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및 복지 2개 분야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이고,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종합 등급 변화 없었다. 하지만, 복지, 보건, 문화·정보 3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데 반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4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가 없다. 이에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등의 하락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39〉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음.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분야는 순위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 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없음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 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4. 전라남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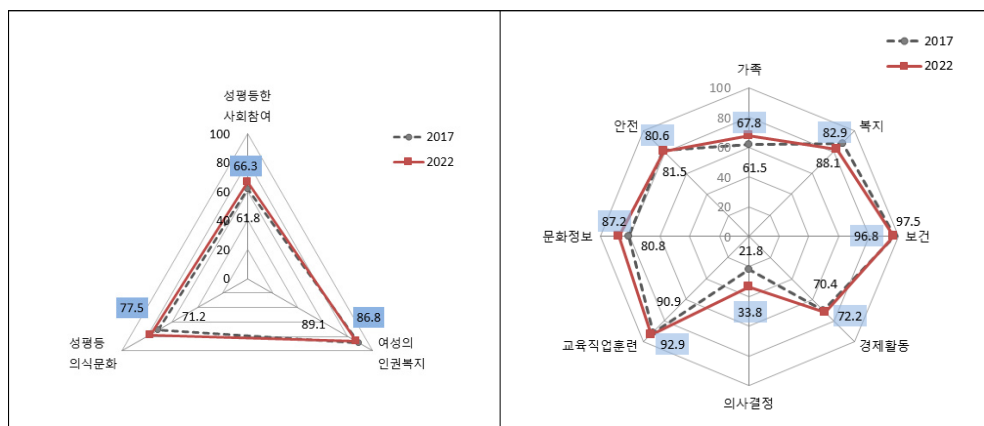
2022년 전라남도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17년 이후 계속 하위권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6.3점, 17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여 전체 17개 시도 중 제일 낮았다.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6.8점, 9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상승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7.5점,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표 IV-40〉 전라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하위권	61.8	15	89.1	2	71.2	16
2018	하위권	63.8	16	87.9	3	72.7	14
2019	하위권	65.0	16	86.8	6	73.5	14
2020	하위권	64.6	17	85.3	17	74.0	12
2021	하위권	65.9	16	85.2	16	74.4	14
2022	하위권	66.3	17	86.8	9	77.5	11
2021년 대비	동일	0.4	-1	1.6	7	3.1	3
2017년 대비	동일	4.5	-2	-2.3	-7	6.3	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4] 전라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전라남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점수는 72.2점, 16위로 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은 4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다. 성별 임금 격차는 17위로 2020년 이후 계속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또한 상용근로자비율도 17위로 전년과 같다.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3.8점, 16위로 하위권이고 전년 순위와 동일하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4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4위로 전년과 같고, 관리자 비율은 16위로 전년 대비 6단계 크게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13위로 2020년 이후 계속 13위를 보인다.

교육·직업훈련 종합점수는 92.9점, 17위로 전체 시도 중 최하위고 2019년 이후 계속 최하위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교육연수 점수가 17위로 2019년 이후 계속 17위에 머물고 있고, 교육·직업 훈련 종합 등급 최하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100.0점으로 1위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변별력이 없어, 전체 순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점수는 82.9점, 12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8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하였다.

보건의 종합점수는 96.8점, 13위로 중하위권이고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17위로 2019년 이후 계속 17위 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12위로 2020년 이후 계속 12위에 머물고 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13위로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안전 종합점수는 80.6점, 5위고 전년 대비 8단계 크게 상승하여 상위권에 속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6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했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도 6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크게 상승하였다. 두 개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여 안전 분야 종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종합점수는 67.8점, 12위로 전년 대비 5단계 하락하여 중하위권에 위치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은 15위로 전년과 같고, 가족관계만족도는 6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다.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는 11위로 전년 대비 10단계 크게 하락하여 가족 분야 종합 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육아휴직자는 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표 IV-41〉 전라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0.4	13	70.6	14	73.2	14	71.6	14	71.8	15	72.2	16
경제활동참가율	78.6	3	78.8	5	77.8	6	79.9	4	81.6	3	82.6	4
성별 임금격차	51.8	16	54.5	15	56.1	16	53.8	17	55.1	17	55.9	17
상용근로자비율	80.7	9	78.4	13	85.8	4	81.0	14	78.7	17	78.2	17
○ 의사결정	24.1	15	29.5	15	30.1	17	30.3	16	33.5	16	33.8	16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15.3	15	21.1	15	21.1	16	21.3	16	21.4	16	25.0	1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7.8	15	21.1	14	24.1	16	21.8	15	27.9	14	31.7	14
관리자 비율	19.2	9	23.4	11	16.5	13	15.9	17	21.9	10	15.5	1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44.0	14	52.3	15	58.8	14	62.0	13	62.8	13	63.0	13
○ 교육·직업훈련	90.9	16	91.3	16	91.7	17	92.1	17	92.5	17	92.9	17
평균교육연수	81.7	16	82.5	16	83.4	17	84.2	17	85.0	17	85.7	1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8.1	10	86.7	13	86.3	15	85.5	15	81.6	15	82.9	12
공적연금가입자	84.1	10	85.5	11	86.9	11	87.9	11	91.4	9	94.7	8
기초생활수급자	92.2	7	87.8	10	85.8	10	83.0	9	71.8	11	71.1	12
○ 보건	97.5	9	96.3	14	96.3	11	95.3	16	96.8	14	96.8	13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6.2	15	95.6	16	95.9	17	95.9	17	95.9	17	96.9	17
건강검진 수검률	97.6	6	97.5	8	96.0	10	94.9	12	97.2	12	97.1	12
스트레스인지율	98.7	7	95.8	16	96.8	13	95.1	17	97.3	10	96.5	13
○ 안전	81.5	2	80.9	1	77.9	5	75.1	13	77.1	13	80.6	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84.6	2	84.6	1	77.9	5	72.8	15	77.3	11	82.6	6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78.4	5	77.2	6	77.9	4	77.5	9	77.0	13	78.7	6
○ 가족	61.5	2	63.8	4	64.9	5	65.5	7	66.5	7	67.8	12
가사노동시간	30.5	7	30.7	11	30.9	13	31.1	13	31.2	15	31.5	15
가족관계만족도	98.3	2	96.4	5	95.7	3	95.0	6	96.3	4	97.5	6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96.7	11
육아휴직자	17.3	3	28.2	3	33.1	4	36.0	6	38.5	5	45.6	6
○ 문화·정보	80.8	16	81.5	16	82.1	16	82.4	15	82.2	14	87.2	9
여가시간	73.0	15	73.1	10	73.3	6	73.4	5	73.6	4	73.8	4
여가만족도	85.5	14	84.1	15	82.8	16	82.9	16	83.1	15	87.7	16
인터넷 이용률	84.0	16	87.3	16	90.1	17	90.9	17	89.9	17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문화·정보 분야 종합점수는 87.2점, 9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하여 중상위권에 위치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여가시간은 4위로 전년대와 같고, 여가만족도는 1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률은 1위로 전년 17위에서 크게 상승했다.

요약하면, 2022년 전라남도 종합 등급은 하위권으로, 분야별로는 안전(5위)만 상위권에 속했고, 경제활동(16위), 의사결정(15위), 교육·직업 훈련(17위)은 하위권에 속했다. 문화·정보(9위)는 중상위권이고, 복지(11위), 보건(12위) 및 가족(12) 분야는 중하위권에 속했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전라남도 종합 등급은 하위권으로 2017년 이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8개 분야 중 안전만 상위권에 속한 데 반해,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3개 분야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4개 지표인 반면,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평균교육연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가사노동시간, 여가만족도 8개 지표로 그 수가 더 많았다.

전라남도는 전년 대비 종합 등급변화는 없었으나, 경제활동, 가족 2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한 반면, 의사결정, 복지, 안전, 문화·정보 4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안전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순위 상승했다. 지표별로는 셋째 이상 출생성비가 3.3점 성평등이 하락하여 순위는 10단계 떨어진 것에 반해,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 대비 10.1점 상승하여 순위가 16단계 상승하여 1위로 나타났다.

2022년 전라남도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로 향후 보다 세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이상 출생성비도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42〉 전라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평균교육연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가사노동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라남도는 등급변화가 없음.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가족 분야는 순위가 하락한 반면, 의사결정, 복지, 안전, 문화·정보는 순위가 상승함. 지표별로는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크게 하락한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크게 상승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5. 경상북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2년 경상북도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17년 이래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2년 경상북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7.0점으로 16위이다. 2021년 대비 1.6점 소폭 상승했고 순위도 1단계 상승했다. 2017년 대비 5.3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6위로 동일하다. 둘째, 2022년 경상북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6.5점으로 11위이다. 2021년 대비 0.7점 상승했고 순위도 2단계 상승했다. 2017년 대비 1.5점 상승했고, 순위도 1단계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경상북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7.9점으로 6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2.6점 상승했고 순위도 2단계 상승했다. 2017년과 대비해서는 5.4점 상승했고 6단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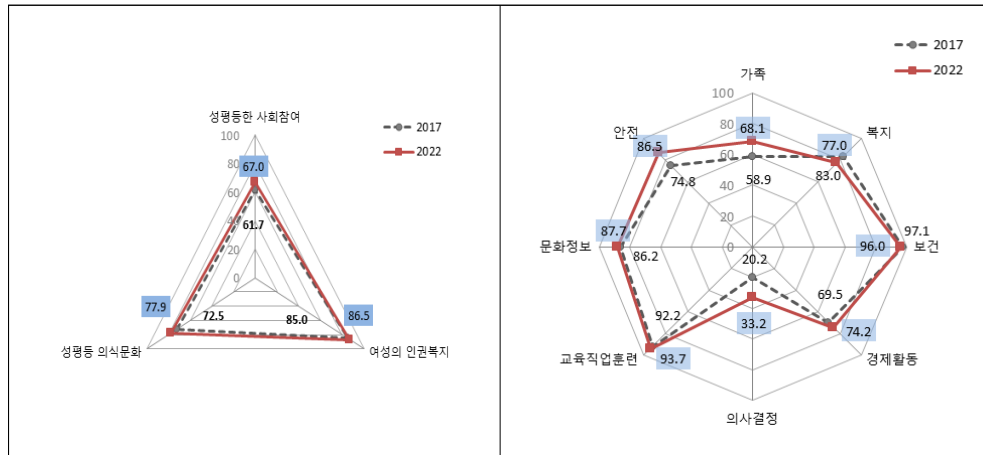
〈표 IV-43〉 경상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하위권	61.7	16	85.0	12	72.5	12
2018	하위권	64.1	15	84.6	12	74.5	8
2019	하위권	64.5	17	85.4	15	76.3	5
2020	하위권	64.8	16	86.9	10	76.4	3
2021	하위권	65.4	17	85.8	13	75.3	8
2022	하위권	67.0	16	86.5	11	77.9	6
2021년 대비	동일	1.6	1	0.7	2	2.6	2
2017년 대비	동일	5.3	0	1.5	1	5.4	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경상북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4.2점으로 14위이다. 2021년 대비 2.7점 상승했고, 순위도 2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77.8점(12위), 성별 임금 격차는 61.7점(15위), 상용 근로자비율은 82.9점(14위)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3.5점 상승했고 순위도 3단계 상승했다. 성별 임금 격차도 3.0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상용 근로자비율도 1.5점 상승했지만, 순위변동은 없었다.



[그림 IV-15] 경상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2년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3.2점으로 17위였다. 2021년 대비 1.8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8.2점(17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0.2점(15위), 관리자 비율은 24.3점(8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은 60.3점(15위)이다. 2021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2.7점 하락했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도 1.2점 하락했다. 관리자 비율은 5.8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0.2점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전년 대비 4.1점 상승하였으나, 순위 개선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또한 소폭 개선되었으나, 15위로 순위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해 관리자 비율은 15위에서 8위로 7단계 상승했고,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6위에서 17위로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2022년 경상북도 종합점수는 93.7점으로 16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0.3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경상북도 평균교육연수 점수는 87.3점(16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모든 시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100.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 대비 평균교육연수 점수는 0.5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다.

복지 분야의 2022년 경상북도 점수는 77.0점으로 17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0.6점 소폭 감소했으며, 순위도 1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2년 공적연금가입자는 83.9점(16위), 기초생활수급자는 70.1점(13위)이었다. 2021년 대비

공적연금가입자는 0.1점 상승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4점 하락했다. 공적연금가입자는 전년 대비 순위변동은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2022년 보건 분야 종합점수는 96.0점으로 15위였다. 2021년 대비 점수와 순위의 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97.1점(15위), 건강검진 수검률은 96.0점(13위), 스트레스인지율은 95.0점(16위)이었다. 2021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0.6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0.2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0.8점 하락했고, 순위도 1단계 하락했다.

안전의 경우 2022년 경상북도 종합점수는 86.5점으로 1위였다. 2021년 대비 2.7점 상승했고 순위는 2021년, 2022년 모두 1위에 해당한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92.1점(1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80.8점(3위)이었다. 2021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3점 상승했고 순위는 연속 1위이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1.0점 상승했고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3단계 상승하였다.

가족의 경우 2022년 경상북도 종합점수는 68.1점으로 11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점수는 1.3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5위에서 11위로 6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2년 가사노동시간은 31.9점(14위), 가족관계만족도는 94.0점(14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96.3점(13위), 육아휴직자는 50.4점(3위)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여 가족 관계만족도는 3.5점 하락하고 순위도 2위에서 14위로 12단계나 크게 하락하였다. 가사 노동시간은 0.6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4위로 동일하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도 1.0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3위로 동일한 수준이다. 육아휴직자는 점수는 7.4점 상승했고 순위는 1단계 상승하였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2년 경상북도 종합점수는 87.7점으로 7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3.8점 상승했고 순위도 3단계나 상승하여 7위에 해당한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경상북도 여가시간은 69.5점(7위), 여가활용 만족도는 93.8점(9위), 인터넷 이용률은 99.7점(12위)이었다. 2021년 대비 여가시간은 1.6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동일했고, 여가활용 만족도는 8.3점 상승하여 순위도 12위에서 9위로 3단계 상승하였고, 인터넷 이용률도 4.7점 상승하여 순위도 13위에서 12위로 1단계 상승했다.

〈표 IV-44〉 경상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9.5	14	70.7	13	70.6	16	71.4	15	71.5	16	74.2	14
경제활동참가율	74.2	10	75.8	9	76.5	10	75.3	12	74.3	15	77.8	12
성별 임금격차	57.1	14	58.0	14	58.0	15	59.4	15	58.7	15	61.7	15
상용근로자비율	77.1	14	78.1	14	77.2	17	79.6	15	81.4	14	82.9	14
○ 의사결정	23.5	16	29.0	16	30.2	16	29.9	17	31.4	17	33.2	17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12.4	16	20.7	16	20.7	17	20.8	17	20.9	17	18.2	17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0.6	13	23.9	13	24.2	15	21.7	16	26.1	15	30.2	15
관리자 비율	17.4	12	21.4	13	21.8	10	21.4	11	18.5	15	24.3	8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43.6	16	50.0	16	54.2	16	55.9	16	60.1	15	60.3	15
○ 교육·직업훈련	92.2	15	92.5	15	92.8	16	93.1	16	93.4	16	93.7	16
평균교육연수	84.4	15	85.0	15	85.6	16	86.2	16	86.8	16	87.3	1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3.0	16	82.5	16	82.6	17	82.3	17	77.6	16	77.0	17
공적연금가입자	76.3	15	78.0	16	80.0	17	82.2	16	83.8	16	83.9	16
기초생활수급자	89.7	13	87.0	11	85.2	12	82.3	12	71.5	12	70.1	13
○ 보건	97.1	12	96.8	12	95.9	13	96.2	13	96.0	15	96.0	1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6.5	13	96.6	12	96.5	13	96.5	13	96.5	13	97.1	15
건강검진 수검률	94.7	13	94.9	13	93.9	13	92.6	13	95.8	13	96.0	13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9.1	7	97.4	11	99.6	5	95.8	14	95.0	16
○ 안전	74.8	5	74.4	5	77.7	6	82.2	3	83.8	1	86.5	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8.3	6	67.3	10	76.0	9	82.6	4	87.8	1	92.1	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81.4	1	81.5	2	79.3	3	81.9	2	79.8	6	80.8	3
○ 가족	58.9	9	62.2	6	64.9	6	66.8	4	66.8	5	68.1	11
가사노동시간	29.1	12	29.7	13	30.2	14	30.7	15	31.3	14	31.9	14
가족관계만족도	96.4	3	100.0	1	100.0	1	100.0	1	97.5	2	94.0	14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2.9	15	94.5	13	100.0	1	96.2	12	95.3	13	96.3	13
육아휴직자	17.2	4	24.5	5	29.3	6	40.2	4	43.0	4	50.4	3
○ 문화·정보	86.2	11	86.9	11	87.7	9	86.0	10	83.9	10	87.7	7
여가시간	76.2	4	75.1	5	73.9	5	72.6	6	71.1	7	69.5	7
여가만족도	90.1	9	91.8	10	93.4	11	89.8	11	85.5	12	93.8	9
인터넷 이용률	92.2	13	93.8	12	95.6	11	95.7	9	95.0	13	99.7	1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2022년 경상북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안전 분야로 17개 시도 중 1위이다. 반면 의사결정, 복지 분야로 17개 시도 중 17위로 가장 낮다. 2021년 대비 문화·정보(10위→7위) 및 경제활동(16위→14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복지(16위→17위), 가족(5위→11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안전(1위), 보건(15위), 교육·직업훈련(16위), 의사결정(17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경상북도 종합 등급은 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안전 1개 분야이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과 같이 총 5개 분야에 해당한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육아휴직자 총 4개 지표였다.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공적 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인지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가 해당하며 총 12개 지표였다.

전년 대비 23개 지표 중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여가활용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 육아휴직자, 인터넷이용률 순으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7단계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순으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특히 가족관계만족도는 전년 대비 12단계나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경상북도는 2020년 이후 종합 등급이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성평등 개선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 등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의 성평등을 수준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 상기 분야는 2021년에도 하위권 분야에 해당했다. 지표별로는 3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의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45〉 경상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육아휴직자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스트레스인지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상북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상위권임. 단,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지표별로 전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여 성평등을 낮추는 효과를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 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6. 경상남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2년 경상남도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17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2년 경상남도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7.6점으로 15위이다. 2021년 대비 0.1점 소폭 상승하나, 순위 변동은 없다. 2017년과 대비해서는 3.8점 상승하나, 순위는 오히려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2022년 경상남도의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5.4점으로 14위이다. 2021년 대비 1.2점 하락했고 순위도 4단계 하락했다. 2017년과 대비해서는 0.2점 상승한 수준이고 순위로는 5단계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경상남도의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7.6점으로 9위로 나타난다. 2021년 대비 2.1점 상승한 수준이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하였다. 반면 2017년 대비해서는 1.7점 상승한 수준이고, 순위로는 무려 7단계나 하락하였다.

〈표 IV-46〉 경상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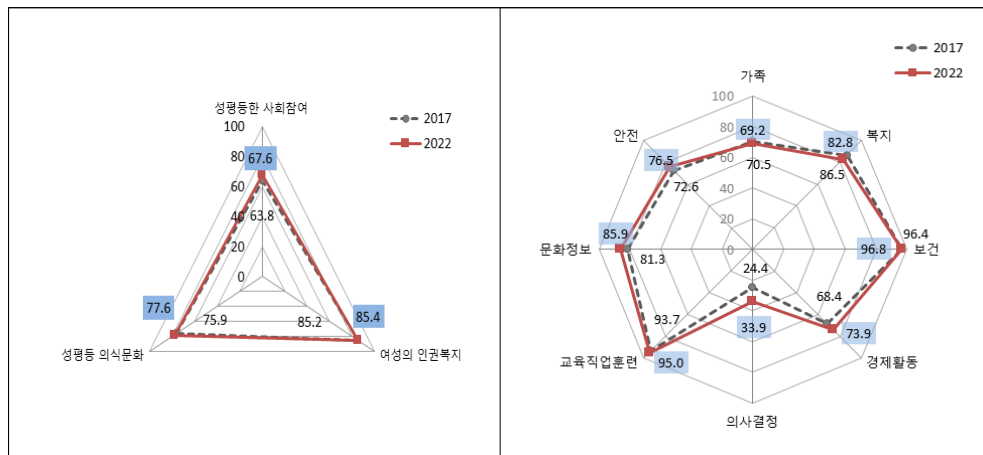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하위권	63.8	13	85.2	9	75.9	2
2018	하위권	65.2	14	84.4	13	74.5	9
2019	하위권	66.9	14	85.4	14	77.5	3
2020	하위권	68.2	14	86.9	11	76.3	4
2021	하위권	67.5	15	86.6	10	75.5	7
2022	하위권	67.6	15	85.4	14	77.6	9
2021년 대비	동일	0.1	0	-1.2	-4	2.1	-2
2017년 대비	동일	3.8	-2	0.2	-5	1.7	-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3.9점으로 15위였다. 2021년 대비 0.3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76.3점(14위), 성별 임금 격차는 62.2점(14위), 상용근로자비율은 83.2점(13위)이었다. 2021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1.0점 하락하고

순위는 6단계 낮아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0.3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은 2.2점 상승하고 순위도 2단계 상승하였다.



[그림 IV-16] 경상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2년의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3.9점으로 15위였다. 2021년 대비 0.3점 하락했고 순위도 1단계나 떨어졌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2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24.7점(14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5.2점(12위), 관리자 비율은 11.4점(17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64.2점(11위)이었다. 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0.1점), 관리자 비율(6.0점 하락),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0.3점 하락)은 하락한 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5.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위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지방자치단체위원회 비율은 전년과 동일했고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비율은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2022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95.0점으로 11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0.3점 소폭 증가했으며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평균교육연수 점수는 90.0점(11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대비 평균교육연수는 0.5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점수와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의 2022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82.8점이고 순위는 13위였다. 2021년 대비 1.9점 하락했고 순위도 5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경상남도

공적연금가입자는 87.7점이고 12위였다. 전년 대비 1.2점 하락하였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77.9점으로 7위였다. 전년 대비 2.5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동일했다.

보건의 경우 2022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96.8점으로 14위였다. 2021년 대비 점수 변동은 없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97.9점(11위), 건강검진 수검률은 95.2점(14위), 스트레스인지율은 97.3점(8위)이었다. 2021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0.9점 상승했지만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0.3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1.3점 하락하고 순위도 4단계나 하락하였다.

안전의 경우 2022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76.5점으로 11위였다. 2021년 대비 1.7점 하락하고 순위도 1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는 72.3점(16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점수는 80.6점(4위)이었다. 2021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는 0.7점 하락하고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2.9점이나 하락하고 순위도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경우 2022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69.2점으로 5위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대비 4.2점 상승했고 순위는 7단계나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2년 가사노동 시간은 32.9점(12위), 가족관계만족도는 94.7점(11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100점(1위), 육아휴직자는 49.3점(4위)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은 1.1점 상승했고 순위도 1단계 상승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3.4점 상승했고 순위도 5단계나 상승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7.7점이나 상승했고 순위도 15단계나 크게 상승하였다. 육아휴직자도 4.8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정보 분야의 2022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85.9점으로 11위에 해당한다. 2021년 대비 0.2점 하락했고 순위는 4단계나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여가 시간은 64.7점(12위), 여가만족도는 92.9점(10위), 인터넷 이용률은 100점(1위)이다. 2021년 대비 여가시간은 1.7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하였다. 여가만족도는 3.3점 하락했고 순위는 5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4.3점 크게 상승하고 순위도 8단계나 크게 상승하였다.

〈표 IV-47〉 경상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8.4	15	69.5	15	71.7	15	71.3	16	73.6	14	73.9	15
경제활동참가율	70.3	15	71.3	15	75.6	13	73.4	14	77.3	8	76.3	14
성별 임금격차	59.0	13	61.5	13	60.3	14	61.4	14	62.5	14	62.2	14
상용근로자비율	75.9	15	75.8	15	79.4	15	79.2	16	81.0	15	83.2	13
○ 의사결정	29.3	11	32.2	13	34.6	14	38.8	10	34.2	14	33.9	15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2.0	9	24.8	13	24.8	14	24.9	14	25.0	14	24.7	15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9.7	14	21.1	15	25.3	13	25.6	13	30.1	12	35.2	12
관리자 비율	26.3	6	27.7	7	28.5	6	42.8	2	17.4	16	11.4	17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49.2	11	55.4	12	59.8	13	61.9	14	64.1	11	64.2	11
○ 교육·직업훈련	93.7	10	94.0	10	94.2	11	94.5	11	94.7	11	95.0	11
평균교육연수	87.4	10	87.9	10	88.4	11	89.0	11	89.5	11	90.0	1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6.5	13	86.5	14	86.6	14	86.9	11	84.7	8	82.8	13
공적연금가입자	78.8	13	81.4	12	83.3	13	86.5	12	88.9	12	87.7	12
기초생활수급자	94.2	4	91.6	4	89.8	7	87.3	7	80.4	8	77.9	8
○ 보건	96.4	15	96.1	15	95.0	16	95.9	14	96.8	13	96.8	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1	8	97.2	10	97.0	10	97.0	10	97.0	10	97.9	11
건강검진 수검률	93.6	15	93.7	15	91.8	15	91.6	14	94.9	14	95.2	14
스트레스인지율	98.6	8	97.4	12	96.1	14	99.2	8	98.6	4	97.3	7
○ 안전	72.6	7	70.6	11	74.8	10	77.8	8	78.2	10	76.5	1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3.9	10	58.7	16	67.6	17	73.8	12	73.0	16	72.3	16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81.3	3	82.5	1	81.9	2	81.9	3	83.5	2	80.6	4
○ 가족	70.5	1	65.3	2	67.7	2	66.7	5	65.0	12	69.2	5
가사노동시간	27.9	14	28.8	14	29.8	15	30.8	14	31.8	13	32.9	12
가족관계만족도	93.3	9	91.8	9	89.8	12	88.0	14	91.3	16	94.7	1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5	9	96.5	11	100.0	1	100.0	1	92.3	16	100.0	1
육아휴직자	62.2	1	44.1	1	51.2	1	48.0	2	44.5	3	49.3	4
○ 문화·정보	81.3	15	83.6	13	87.2	10	85.9	11	86.1	7	85.9	11
여가시간	71.8	16	70.6	16	69.3	14	67.9	12	66.4	13	64.7	12
여가만족도	78.2	16	87.6	13	100.0	3	98.2	3	96.2	5	92.9	10
인터넷 이용률	94.0	11	92.7	14	92.4	15	91.6	16	95.7	9	100.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2022년 경상남도의 분야별 성평등을 보면, 가족 분야가 상위권이고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분야에서 하위권이었다. 2021년 대비 가족(12위→5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복지(8위→13위), 문화·정보(7위→11위), 경제활동(14위→15위), 의사결정(14위→15위), 보건(13위→14위), 안전(10위→11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그리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11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2년 경상남도 종합 등급은 하위권이다. 상위권은 가족 분야가 유일하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그리고 보건 등 3개의 분야가 하위권이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총 5개 지표였다.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총 6개 지표였다.

전년 대비 가족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가족 분야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순위가 16위에서 1위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의사결정, 복지,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는 하락했는데, 특히 문화·정보 분야의 여가만족도가 5위에서 10위로 하락하였다.

경상남도는 2020년 이래 종합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은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인 경제활동, 의사결정 및 보건 분야의 성평등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이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인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개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표 IV-48〉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 2022년 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상남도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등급이 낮아짐. 하락 원인은 안전, 의사결정,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으로, 지표별로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가활동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보임. 단, 가족분야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 크게 상승으로 상위권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 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17. 제주특별자치도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순위는 상위권으로, 2017년 이래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74.9점으로 3위이다. 2021년 대비 2.4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하였다. 2017년 대비 4.3점 상승한 수준이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6.9점으로 9위이다. 2021년 대비 0.5점, 순위는 2단계 하락하였다. 2017년과 대비해서는 0.5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3단계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82.2점으로 1위이다. 2021년 대비 4.7점 상승하였고 순위도 2단계나 상승하였다. 2017년과 대비해서는 9.3점 상승한 수준이며 순위로는 9단계나 상승한 것이다.

〈표 IV-49〉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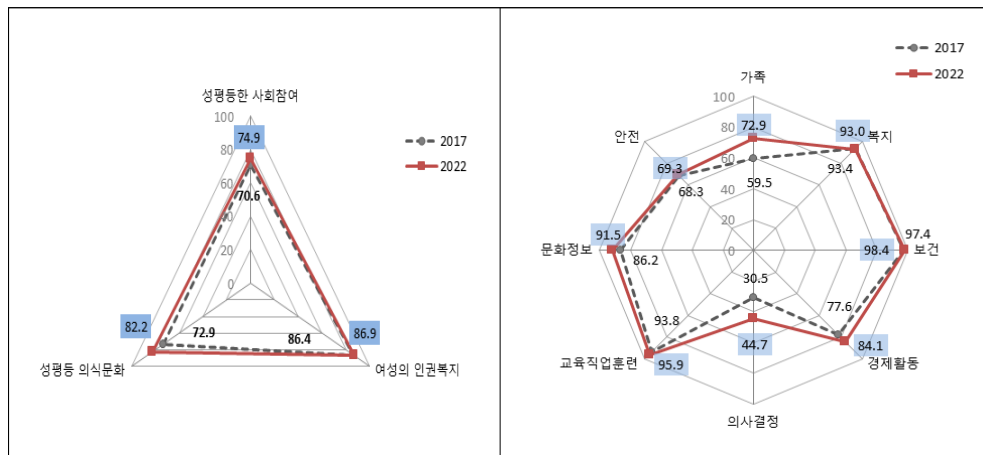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상위권	70.6	1	86.4	6	72.9	10
2018	상위권	71.5	3	87.5	5	75.9	2
2019	상위권	70.5	8	87.8	5	78.1	2
2020	상위권	73.5	2	89.1	4	77.9	2
2021	상위권	72.5	4	87.4	7	77.5	3
2022	상위권	74.9	3	86.9	8	82.2	1
2021년 대비	동일	2.4	1	-0.5	-1	4.7	2
2017년 대비	동일	4.3	-2	0.5	-2	9.3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로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동 분야는 84.1점으로 1위로, 2017년 이래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점(1위), 성별 임금 격차는 74.7점(1위), 상용 근로자비율은 90.1점(3위)이었다. 전년 대비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3점

상승,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5.9점 상승하여 각각 1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상용 근로자비율은 전년 대비 4.4점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3단계 순위 상승을 보였다.



[그림 IV-17]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44.7점으로 7위이다. 2021년 대비 2.8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점수는 24.4점(16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56.9점(1위), 관리자 비율은 26.7점(6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70.7점(6위)이었다. 2021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은 1.7점 하락하였고 순위도 4단계 하락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1.2점 상승하여 순위는 2단계 개선되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점수와 순위 모두 전년대와 동일하다. 한편 관리자 비율은 1.5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직업훈련 분야 종합점수는 95.9점으로 10위였다. 전년 대비 점수는 0.5점 소폭 증가했으며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평균교육연수 점수는 95.9점(10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 대비 평균교육연수는 0.8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 없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경우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점수는 93.0점으로 2위이다. 2021년 대비 0.2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전년대와 동일하게 2위를 유지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공적연금가입자는 100.0점으로 1위로, 전년과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86.1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하여 순위는 4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였다.

보건의 경우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점수는 98.4점으로 5위였다. 2021년 대비 1.1점 상승했고 순위는 6단계나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98.4점(4위), 건강검진 수검률은 100.0점(1위), 스트레스인지율은 96.9점(9위)이었다. 2021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1.0점 상승하였고 순위도 1단계 상승했다. 스트레스인지율도 2.3점 상승했고 순위도 7단계나 상승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속해서 100점, 완전평등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1위를 유지하였다.

안전의 경우 2022년 점수는 69.3점으로 17위이다. 2021년 대비 2.9점 하락했고 순위는 동일하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는 73.7점(14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점수는 64.9점(17위)이었다. 전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는 5.0점 하락하였고 순위도 5단계나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점수는 0.7점 하락하였고 순위변동은 없다.

가족의 경우 2022년 종합점수는 72.9점으로, 1위였다. 2021년 대비하여 3.2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2년 가사노동시간은 60.8점(1위), 가족관계만족도는 94.2점(13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90.1점(17위), 육아 휴직자는 46.7점(5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은 4.4점 상승했고 순위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1.3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는 3.8점 하락하고 순위도 2단계 하락했다. 한편, 육아휴직자는 11.3점 상승했고 순위도 3단계 상승하였다.

〈표 IV-50〉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7.6	1	78.1	1	79.8	1	81.4	1	80.2	1	84.1	1
경제활동참가율	87.3	1	84.3	1	86.0	1	86.4	1	86.2	1	87.5	1
성별 임금격차	63.0	4	69.5	1	67.4	1	66.7	1	68.8	1	74.7	1
상용근로자비율	82.6	4	80.6	9	86.1	2	91.2	1	85.7	6	90.1	3
○ 의사결정	40.5	3	42.2	5	37.1	11	44.0	5	41.9	7	44.7	7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3.8	8	26.3	10	26.1	12	26.2	12	26.1	12	24.4	16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35.2	3	38.5	3	42.1	6	41.4	3	45.7	3	56.9	1
관리자 비율	38.9	1	37.9	2	12.1	16	38.6	5	25.2	5	26.7	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64.0	4	66.0	5	68.2	6	69.8	6	70.7	6	70.7	6
○ 교육·직업훈련	93.8	9	94.2	9	94.6	10	95.0	10	95.4	10	95.9	10
평균교육연수	87.6	9	88.4	9	89.2	10	90.1	10	90.9	10	91.7	10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3.4	2	93.3	1	93.8	1	94.6	2	92.8	2	93.0	2
공적연금가입자	94.6	3	95.1	4	96.0	4	98.9	3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92.2	8	91.6	5	91.6	5	90.4	4	85.7	5	86.1	4
○ 보건	97.4	11	99.2	1	98.5	1	98.5	2	97.3	11	98.4	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97.1	9	98.1	3	97.4	5	97.4	5	97.4	5	98.4	4
건강검진 수검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95.2	16	99.5	4	98.2	9	98.2	10	94.6	16	96.9	9
○ 안전	68.3	13	69.8	12	71.1	16	74.2	16	72.2	17	69.3	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7.3	8	69.7	8	78.3	3	83.1	3	78.7	9	73.7	14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69.3	14	70.0	14	63.9	16	65.2	17	65.6	17	64.9	17
○ 가족	59.5	7	64.9	3	68.3	1	68.4	3	69.7	1	72.9	1
가사노동시간	40.6	1	44.3	1	48.1	1	52.1	1	56.4	1	60.8	1
가족관계만족도	98.7	1	97.3	3	94.4	6	91.8	9	92.9	12	94.2	13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6.7	16	95.5	12	100.0	1	91.6	15	93.9	15	90.1	17
육아휴직자	11.8	11	22.5	7	30.7	5	38.2	5	35.4	8	46.7	5
○ 문화·정보	86.2	9	86.9	10	87.8	6	87.3	8	85.3	8	91.5	1
여가시간	77.5	1	78.2	1	78.9	1	79.7	1	80.5	1	81.4	1
여가만족도	89.9	10	89.7	12	89.6	14	87.3	13	85.1	14	97.0	6
인터넷 이용률	91.4	14	92.8	13	94.9	12	95.0	10	90.3	16	96.0	1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점수는 91.5점으로 1위이다. 2021년 대비 6.2점 상승했고 순위도 1위로 7단계나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여가시간은 81.4점(1위), 여가만족도는 97.0점(6위), 인터넷 이용률은 96.0점(16위)이다. 2021년 대비 여가시간은 0.9점 상승했고 순위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가만족도는 11.9점 상승했고 8단계나 상승했다. 인터넷 이용률은 5.7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변동없다.

2022년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경제활동, 복지, 가족 및 문화·정보 분야 4분야로 17개 시도 중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안전 분야로 17개 시도 중 17위를 차지했다. 2021년 대비 비교하여 살펴보면 문화·정보(8위→1위), 보건(11위→6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다. 그 외 분야는 경제활동(1위), 복지(1위), 가족(1위), 의사결정(7위), 교육·직업훈련(10위), 안전(17위) 분야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 등급은 2017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로는 경제활동, 복지, 가족, 문화·정보 4개 분야이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안전 1개 분야이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총 12개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이었다. 반면, 하위에 속한 지표는 총 5개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이 해당하였다.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인지율, 육아휴직자, 여가만족도이고 하락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였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개 분야 중 안전 분야가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 지표에 대한 성평등 검토가 필요한데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로는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에 대한 성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총 4개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 대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IV-5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 등급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 2022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복지, 가족, 문화·정보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으며,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성평등 수준이 낮아 안전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 단, 가족, 경제활동, 문화정보 분야에서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크게 높아져서 상위권 위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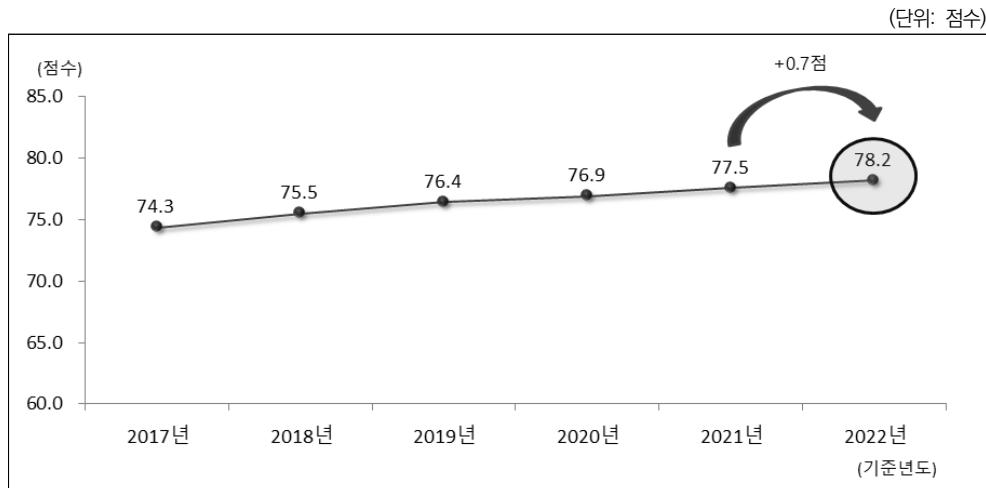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 관리방안

1. 지역성평등지수 요약	177
2.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방안	181

1. 지역성평등지수 요약

지역성평등지수는 2014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를 연계하여 산정하고 있다. 2023년은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에 있어 2022년 기본 틀을 사용하고 있다. 단지, 일부 지표의 추정치가 실제 값으로 대체되어 이전 지수값 일부가 갱신된다. 6년간 시계열을 통해 지역성평등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지역성평등지표의 종합지수(통계생산년도 기준)는 2017년 74.3점에서 2018년 75.5점, 2019년 76.4점, 2020년 76.9점, 2021년 77.5점, 그리고 2022년은 78.2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하였다.



[그림 V-1]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의 종합점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간 성평등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순위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구분하여 보면,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81.10~79.39점)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고, 중상위권 지역은 79.03~77.86점의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순위가 중간 이하인 그룹을 보면,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77.63~76.48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며, 성평등 하위권(76.09~77.21점)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성평등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이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중하위권에서 2022년 중상위권으로, 광주광역시는 2021년 중상위권에서 2022년 상위권으로, 충청남도는 2021년 하위권에서 2022년 중하위권으로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반면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는 전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경기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2017년 대비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은 4.8점으로 전국 평균 3.9점보다 0.9점 더 높다. 다음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017년 대비 4.4점 개선되었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4.3점, 제주특별자치도 4.1점, 광주광역시 4.0점, 경상북도 4.0점 등에서 전국 평균(3.9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한편 2021년과의 비교에서 성평등 수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5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제주특별자치도(1.8점), 광주광역시(1.5점), 경상북도(1.5점), 대구광역시(1.5점), 대전광역시(1.4점), 전라남도(1.3점), 경기도(1.1점), 충청남도(1.0점), 인천광역시(0.8점) 등에서 전국 평균(0.7점)보다 높은 개선 수준을 보였다.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84.1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9.6점), 강원특별자치도(79.6점), 대전광역시(78.7점), 전북특별자치도(78.4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78점 이상으로 상위권에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2.7점), 충청남도(2.5점), 대전광역시(2.3점), 경기도(1.9점), 광주광역시(1.6점) 순으로 개선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충청북도(-1.6점)와 부산광역시(-0.5점)에서는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2022년 기준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시도는 광주광역시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54.2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51.2점), 세종특별자치시(51.1점)에서 50점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외 대구광역시(49.8점), 서울특별시(46.6점), 인천광역시(45.9점) 순으로 높아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은 특·광역시에서 1위에서 6위까지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 분야에서 경상북도(33.2점), 전라남도(33.8점), 경상남도(33.9점), 강원특별자치도(35.8점) 등 하위권은 모두 도지역에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이 1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8.0점), 광주광역시(4.8점), 대전광역시(4.2점) 등의 지역이 4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반면, 울산광역시(-4.7점), 부산광역시(-0.4점), 경상남도(-0.3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8개 분야 중에서도 보건 다음으로 높은 영역이다.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상위권은 세종특별자치시(97.6점), 서울특별시(97.6점), 경기도(97.1점), 인천광역시(97.0점), 울산광역시(96.8점)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는 2022년 기준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7.0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93.0점), 서울특별시(90.6점), 경기도(88.0점), 대전광역시(87.0점)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라남도(1.3점), 세종특별자치시(1.0점), 강원특별자치도(0.6점), 대구광역시(0.3점), 제주특별자치도(0.2점), 서울특별시(0.2점), 경기도(0.1점), 인천광역시(0.1점)에서 성평등이 개선되며, 이외 지역은 복지 분야의 성평등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평등을 보이며,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95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2022년 기준 이 분야에서 대전광역시가 99.5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99.0점), 대구광역시(99.0점), 경기도(98.5점), 제주특별자치도(98.4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1년 대비 보건 분야 1점 이상 성평등 개선 지역은 울산광역시(1.9점), 제주특별자치도(1.1점), 대전광역시(1.0점) 등이며, 성평등이 악화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0.4점), 충청남도(-0.4점), 충청북도(-0.3점), 인천광역시(-0.2점), 강원특별자치도(-0.2점) 등 5개 지역이다.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2022년 기준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상북도(86.5점)이며, 충청북도(82.9점), 세종특별자치시(81.5점), 광주광역시(80.8점), 전라남도(80.6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3.5점 상승하였고 그 외 경상북도(2.7점)와 충청북도(2.1점)에서 2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3.1점), 제주특별자치도(-2.9점), 부산광역시(-2.3점), 대구광역시(-2.2점), 강원특별자치도(-2.0점)에서는 안전 분야 성평등이 전년 대비 2점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전반적으로 도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높았다. 2022년 기준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72.9점)이며 충청남도(71.9점),

울산광역시(70.4점), 대전광역시(69.6점), 경상남도(69.2점)가 성평등 상위권 지역이며, 대구광역시(62.3점), 광주광역시(65.0점), 인천광역시(66.5점), 강원특별자치도(66.6점)가 하위권에 위치한다. 2021년과 비교하여도 모든 지역이 개선되는데 전년 대비 경상남도가 4.2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서울특별시(3.9점), 울산광역시(3.8점), 세종특별자치시(3.8점) 등에서 개선 수준이 높았다.

문화·정보 분야는 시도 간 격차가 높은 분야로,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91.5점이며, 대구광역시(91.0점), 부산광역시(90.7점), 서울특별시(89.1점), 울산광역시(88.3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2점 향상되었고 전라남도(5.0점), 경상북도(3.8점), 인천광역시(3.7점), 전북특별자치도(3.5점), 대구광역시(3.3점)에서 3점 이상 개선되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수준은 전년 대비 1.8점 하락했고, 울산광역시(-1.0점), 경상남도(-0.2점) 등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개편 지역성평등지수의 시범 측정 결과, 2022년 기준 70.6점으로 현행 지역성평등지수(78.2점)와 비교하면, 7.6점 낮다. 개편 지역성평등지수가 현행 지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이유는 정책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측정지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2022년 기준 시범 측정은 안전 영역을 가점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안전 영역의 가점은 현행 지수의 안전 영역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5점을 부여하였다.

2022년 기준 시범 측정 결과를 보면, 구간별 점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성평등 지역의 구분 결과는 현행과 개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4개의 지역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 개편 전후로 볼 때, 울산광역시(하위→중하위)와 충청남도(중하위→중상위)는 1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천광역시(중상위→중하위)와 충청북도(중하위→하위)는 1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방안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 비교하고 취약 영역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 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지역여성문제와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인식 제고, 성인지 통계생산 제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는 이와 같은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2.>)”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생산 및 보급 주체로, 지역성평등 수준에 대해 영역, 분야, 지표별로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역성평등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¹⁴⁾(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은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성평등지수의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규정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생산과 보급의 주체로서, 지역성평등지수를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성평등 정책의 우선 추진 방향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지표 개선의 주체로서, 여성가족부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평등 정책을 검토하여 성 불평등이 높은 분야와 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성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협의하여 불평등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지표의 관리와 생산기관을 의미한다. 지표관리는 주로 중앙행정부처가 담당하게 되며, 생산기관은 중앙행정부처와 산하기관들이다. 지표관리 기관은 지역성평등 수준을 참조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14) 관계기관장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이며,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표 V-1〉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련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협력기관
여성가족부	- 지역성평등지수 생산 및 보급 주체 - 지역별 성평등 정책의 우선 추진 방향과 정보제공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력망 구축의 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영역별, 지표별 성평등 수준 진단 - 성평등 DB 관리
지방자치단체	- 지표 개선 주체 - 성불평등한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 - 여성가족부와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의 -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 구성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협력관계 유지 - 분야별 지표별 불평등 개선 정책 추진과 점검 - 성평등기반 구축
관계기관	- 통계생산과 관리의 주체 - 관련 지표의 개선 방안 마련 - 성평등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정책 추진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망 구축	-

자료: 주재선 외(2021). 「2021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pp.209~210. 인용 및 수정

지표별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관리 주체로 가장 많으며, 고용노동부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육아휴직자 등 5개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 교육부는 평균교육연수, 고등기관 진학률에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은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 대해, 국회사무처와 각 정당은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에 대해 관리 주체로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지표의 전반적 조정 역할과 더불어,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등의 관리 주체로 지표를 관리해야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처,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주기적 모임을 통해 지역 성평등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분야	지표	관리기관	통계생산기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고용노동부	통계청
	성별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고용노동부	통계청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국회사무처/각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리자 비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교육부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교육부	교육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트레스인지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경찰청/검찰청	통계청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경찰청/검찰청	경찰청
가족	가사노동시간	여성가족부	통계청
	육아휴직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가족관계만족도	여성가족부	통계청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문화·정보	여가시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여가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인터넷 이용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성 불평등이 높은 분야의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작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목적이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분야,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사업분석에

대해 성평등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성주류화 도구 중 하나이다.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선정에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기관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더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성 불평등한 지표와 연계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및 지표와 관련된 사업(혹은 계획)을 선정하고 이를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e-나라 지표와 같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선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부처간 협의와 관리를 통해야만 가능하며, 지역성평등 측정결과는 정책 개선뿐 아니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여 지역성평등지수를 게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거나, e-나라지표 등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e-나라 지표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국정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통계 기반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구축·서비스하는 것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지역성평등지수는 부처 간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역성평등에 대해 국정모니터링지표로써 e-나라지표로 구축하는 것은 성평등 개선과 홍보에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정모니터링 지표로 e-나라지표에 28종의 통계를 제출 및 관리¹⁵⁾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과 발표 또한 법률에 기반하고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만큼, 이를 국정모니터링 지표로 e-나라 지표 DB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 e-나라 지표는 단일 지표가 아니라 국가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영역별 지표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구축 시 지표의 관리 주체는 여성가족부로 하며, 통계의 분석과 원인 파악은 지방자치단체이 하되, 부처의 협력 하에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15) 해당 지표는 e-나라지표에서 부처별 지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참고문헌

-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여성가족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 외(2021), 「2021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효주·김은정·민보람(2022),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 외(2022), 「2022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효주·조선미·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통계DB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성인지통계시스템 DB
- 통계청(2023),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 공무원연금공단(각년도), 공무원연금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건강검진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
- 보건복지부(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사학연금공단(각년도), 통계연보
- 여성가족부(각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시스템
- 질병관리청(각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청(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통계청(각년도),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한국고용정보원(각년도), 고용보험DB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

한국정보화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각년도),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부 록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189
〈부록 2〉 개편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192
〈부록 3〉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195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경제활동 분야 (3개)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8월)
	성별 임금격차(성비)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한 성비 * 세금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 활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8월)
	상용근로자비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의사결정 분야 (4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해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지역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1년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자 비율 ※ 2018년 직업분류(제7차 개정) 기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1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위원 성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반기
교육·직업 훈련 분야 (3개)	평균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통계청, 「인구총조사」	5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복지 분야 (2개)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보건 분야 (3개)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의 성 격차	건강 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값에 대한 성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건강검진 수검자를 성별 건강검진대상자로 나눈 백분율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스트레스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성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안전 분야 (2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인식 성비	현 사회에서 범죄위험으로부터 느끼는 안전도의 남녀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수시 (1년)
가족 분야 (4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를 한 사람의 1주일 평균 시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만족도	만 15세 이상 인구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정도(매우만족+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의 성비	만 8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의 성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분석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문화정보 분야 (3개)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인터넷 이용률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며,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경험자 성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부록 2〉 개편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로 측정 *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국회의원연맹(IPU)	4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역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1년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자 비율 ※ 2018년 직업분류(제7차 개정) 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1년
		초중고 교장·교감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로 측정 *만 15~64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상용근로자비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정해진 고용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성비 * 지표의 측정은 기존 상용근로자 범위에서 고용 계약 기간이 없는 정년제 근로자만으로 측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년
		경력단절 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율 * 측정은 비취업 상태가 경력단절 사유가 아닌 비율을 활용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1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년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수급자 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년
	교육	평균 교육 연수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연수의 성비(여성/남성)로 측정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분석	1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응답한 인구 비율의 성비로 측정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1년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특정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며, 지수 측정은 0세의 기대수명인 평균수명의 성비를 활용	통계청, 「생명표」	2년
		스트레스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로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로 측정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이며, 취업자비율 조정한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돌봄노동) 역성비로 측정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육아휴직 참여	만 8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의 성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분석	1년
	양성 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 수준 여성 인권에 대해 '매우 존중된다'와 '존중되는 편이다'의 합 비율로 측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년
		성차별 경험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경험 *차별 유형 ① 신체적/언어적 차별: 폭행, 위협, 놀림,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② 고용 관련 차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③ 재화/용역 차별: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④ 사회적 차별: 결혼·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 중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하는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4개 질문에 대한 비동의 비율 평균으로 계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3년

〈부록 3〉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부표 3-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69.3	59.2	79.2	69.4	59.6	79.0	69.6	60.2	78.7
서울특별시	69.6	61.0	78.6	68.9	61.1	77.2	69.5	61.8	77.6
부산광역시	65.8	55.4	76.6	66.0	56.5	75.8	67.3	59.7	75.0
대구광역시	66.8	58.8	74.9	67.8	59.8	75.9	66.3	56.5	76.1
인천광역시	70.9	60.7	81.0	71.4	61.7	81.0	70.9	61.6	80.0
광주광역시	65.8	57.1	74.6	66.9	57.8	76.2	67.0	58.2	75.8
대전광역시	66.0	56.2	75.8	66.6	58.1	75.2	68.8	59.5	78.0
울산광역시	66.5	52.6	79.4	67.0	53.5	79.5	66.4	53.3	78.6
세종특별자치시	66.0	53.4	78.1	67.5	56.3	78.4	67.8	56.2	79.0
경기도	70.6	59.4	81.5	70.4	59.2	81.3	70.1	59.2	80.6
강원특별자치도	70.5	62.7	78.1	70.2	61.8	78.2	71.7	64.4	78.8
충청북도	71.9	63.0	80.2	71.1	61.0	80.5	70.7	62.0	78.8
충청남도	70.3	58.8	80.8	72.1	61.8	81.6	72.2	62.4	80.9
전북특별자치도	65.8	57.0	74.3	65.9	56.1	75.2	66.6	57.3	75.4
전라남도	70.0	61.4	78.1	70.3	61.6	78.2	72.0	62.6	80.5
경상북도	70.1	59.4	80.1	70.5	60.5	79.8	70.2	60.5	79.1
경상남도	68.6	56.3	80.1	69.3	57.3	80.4	69.4	59.5	78.7
제주특별자치도	76.4	71.1	81.4	74.8	68.3	81.0	74.4	68.6	79.8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68.5	59.0	77.9	69.3	60.4	78.0	70.7	62.0	79.2
서울특별시	68.9	61.4	77.0	69.7	62.9	77.1	70.6	63.5	78.2
부산광역시	65.6	57.3	74.3	65.8	57.5	74.3	68.0	59.2	76.8
대구광역시	67.0	57.1	76.9	67.9	59.2	76.7	68.8	60.6	77.1
인천광역시	69.8	60.6	78.7	69.7	59.5	79.7	71.7	63.1	80.3
광주광역시	66.6	58.8	74.3	65.3	56.3	74.3	66.9	58.6	75.1
대전광역시	68.8	60.7	76.8	69.2	60.3	78.1	70.0	61.4	78.3
울산광역시	65.1	49.9	79.2	66.1	53.0	78.1	67.4	54.1	79.3
세종특별자치시	67.5	56.4	78.4	66.9	55.9	77.7	68.5	57.1	79.7
경기도	68.0	56.3	79.3	69.9	59.7	79.7	71.9	61.8	81.6
강원특별자치도	70.1	63.1	77.0	70.8	64.3	77.0	70.9	65.2	76.4
충청북도	71.2	63.2	78.5	72.3	64.4	79.5	72.7	63.6	81.3
충청남도	71.5	62.1	80.1	71.0	60.9	80.0	73.1	64.2	81.1
전북특별자치도	67.8	59.9	75.3	68.0	60.2	75.5	68.6	62.4	74.4
전라남도	70.6	62.4	78.1	72.4	64.7	79.2	73.5	66.2	80.1
경상북도	69.7	59.5	79.0	68.2	57.7	77.7	70.7	61.5	79.0
경상남도	68.2	57.4	78.2	68.5	59.4	76.8	68.4	58.9	77.2
제주특별자치도	72.5	67.0	77.6	73.2	67.6	78.5	78.2	72.9	83.3

주: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2〉 성별 임금격차

(단위: 천원,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전국	1,811	2,972	60.9	1,925	3,099	62.1	2,009	3,193	62.9
서울특별시	1,988	3,154	63.0	2,106	3,301	63.8	2,219	3,443	64.4
부산광역시	1,728	2,785	62.1	1,829	2,966	61.7	1,877	2,977	63.1
대구광역시	1,737	2,737	63.5	1,857	2,901	64.0	1,994	3,028	65.9
인천광역시	1,662	2,703	61.5	1,768	2,771	63.8	1,906	2,933	65.0
광주광역시	1,724	2,820	61.1	1,865	3,020	61.8	1,937	3,061	63.3
대전광역시	1,911	3,064	62.4	1,961	3,072	63.8	2,038	3,147	64.8
울산광역시	1,836	3,520	52.2	1,803	3,604	50.0	1,887	3,523	53.6
세종특별자치시	2,128	3,416	62.3	2,390	3,554	67.2	2,454	3,771	65.1
경기도	1,871	3,077	60.8	2,010	3,259	61.7	2,078	3,312	62.7
강원특별자치도	1,565	2,585	60.5	1,647	2,653	62.1	1,738	2,714	64.0
충청북도	1,843	2,862	64.4	1,890	2,921	64.7	1,916	3,096	61.9
충청남도	1,777	2,907	61.1	1,882	3,053	61.7	1,954	3,190	61.3
전북특별자치도	1,670	2,760	60.5	1,797	2,720	66.1	1,885	2,818	66.9
전라남도	1,533	2,960	51.8	1,618	2,966	54.5	1,700	3,033	56.1
경상북도	1,598	2,798	57.1	1,717	2,958	58.0	1,783	3,072	58.0
경상남도	1,699	2,879	59.0	1,797	2,921	61.5	1,814	3,010	60.3
제주특별자치도	1,679	2,666	63.0	1,861	2,678	69.5	1,903	2,825	67.4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전국	2,027	3,181	63.7	2,125	3,295	64.5	2,278	3,493	65.2
서울특별시	2,280	3,447	66.1	2,439	3,592	67.9	2,611	3,917	66.7
부산광역시	1,872	2,880	65.0	1,944	2,946	66.0	2,041	3,118	65.5
대구광역시	1,932	2,966	65.1	2,034	3,050	66.7	2,118	3,147	67.3
인천광역시	1,890	2,879	65.6	1,991	3,078	64.7	2,164	3,358	64.4
광주광역시	1,969	3,105	63.4	2,030	3,152	64.4	2,194	3,288	66.7
대전광역시	2,040	3,082	66.2	2,137	3,288	65.0	2,302	3,446	66.8
울산광역시	1,893	3,309	57.2	1,968	3,497	56.3	2,199	3,725	59.0
세종특별자치시	2,472	3,842	64.3	2,531	3,999	63.3	2,746	4,129	66.5
경기도	2,090	3,313	63.1	2,192	3,445	63.6	2,366	3,617	65.4
강원특별자치도	1,808	2,767	65.3	1,839	2,809	65.5	2,011	3,020	66.6
충청북도	1,947	3,138	62.0	2,003	3,156	63.5	2,121	3,222	65.8
충청남도	1,997	3,167	63.1	2,081	3,292	63.2	2,167	3,356	64.6
전북특별자치도	1,889	2,868	65.9	1,911	2,865	66.7	1,985	3,015	65.8
전라남도	1,684	3,128	53.8	1,732	3,142	55.1	1,828	3,270	55.9
경상북도	1,840	3,097	59.4	1,842	3,138	58.7	2,019	3,272	61.7
경상남도	1,799	2,932	61.4	1,896	3,036	62.5	2,060	3,311	62.2
제주특별자치도	1,912	2,865	66.7	1,995	2,900	68.8	2,152	2,883	74.7

주: 1) 취업자의 지난 3개월 평균임금.

2) 임금 격차=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3〉 상용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3,428	5,196	8,232	38.7	13,772	5,425	8,347	39.4	14,216	5,680	8,536	40.0
서울특별시	2,671	1,103	1,568	41.3	2,689	1,130	1,559	42.0	2,840	1,209	1,631	42.6
부산광역시	848	326	522	38.4	891	357	534	40.1	917	392	525	42.7
대구광역시	578	251	327	43.4	585	251	334	42.9	612	258	354	42.2
인천광역시	788	298	490	37.8	820	322	498	39.3	830	337	493	40.6
광주광역시	379	146	233	38.5	397	156	241	39.3	412	163	249	39.6
대전광역시	430	172	258	40.0	416	171	245	41.1	440	178	262	40.5
울산광역시	336	101	235	30.1	337	104	233	30.9	339	111	228	32.7
세종특별자치시	82	30	52	36.6	99	37	62	37.4	113	43	70	38.1
경기도	3,633	1,390	2,243	38.3	3,775	1,478	2,297	39.2	3,861	1,498	2,363	38.8
강원특별자치도	349	143	206	41.0	354	142	212	40.1	369	153	216	41.5
충청북도	420	165	255	39.3	442	176	266	39.8	453	183	270	40.4
충청남도	552	199	353	36.1	591	228	363	38.6	600	230	370	38.3
전북특별자치도	388	151	237	38.9	387	151	236	39.0	400	160	240	40.0
전라남도	351	135	216	38.5	364	138	226	37.9	379	150	229	39.6
경상북도	640	230	410	35.9	627	228	399	36.4	630	231	399	36.7
경상남도	832	287	545	34.5	851	292	559	34.3	871	317	554	36.4
제주특별자치도	155	71	84	45.8	152	66	86	43.4	153	68	85	44.4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4,522	5,855	8,667	40.3	14,887	6,092	8,795	40.9	15,693	6,523	9,170	41.6
서울특별시	2,955	1,309	1,646	44.3	2,996	1,339	1,657	44.7	3,088	1,394	1,694	45.1
부산광역시	873	375	498	43.0	848	362	486	42.7	858	366	492	42.7
대구광역시	618	257	361	41.6	665	283	382	42.6	696	297	399	42.7
인천광역시	857	343	514	40.0	884	358	526	40.5	930	375	555	40.3
광주광역시	411	172	239	41.8	407	171	236	42.0	426	175	251	41.1
대전광역시	448	183	265	40.8	451	188	263	41.7	481	202	279	42.0
울산광역시	342	108	234	31.6	346	115	231	33.2	366	123	243	33.6
세종특별자치시	125	48	77	38.4	131	50	81	38.2	141	53	88	37.6
경기도	3,990	1,537	2,453	38.5	4,197	1,654	2,543	39.4	4,613	1,882	2,731	40.8
강원특별자치도	375	157	218	41.9	374	165	209	44.1	398	179	219	45.0
충청북도	459	187	272	40.7	473	193	280	40.8	483	191	292	39.5
충청남도	581	227	354	39.1	617	242	375	39.2	636	257	379	40.4
전북특별자치도	412	168	244	40.8	432	183	249	42.4	437	191	246	43.7
전라남도	389	152	237	39.1	385	150	235	39.0	400	161	239	40.3
경상북도	638	239	399	37.5	632	236	396	37.3	659	250	409	37.9
경상남도	889	322	567	36.2	878	331	547	37.7	899	342	557	38.0
제주특별자치도	160	71	89	44.4	173	74	99	42.8	183	85	98	4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부표 3-4〉 광역 의회의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761(81)	113(58)	648(23)	14.8	789(84)	113(55)	676(29)	14.3
서울특별시	106(10)	19(6)	87(4)	17.9	106(10)	21(6)	85(4)	19.8
부산광역시	47(5)	5(3)	42(2)	10.6	47(5)	6(4)	41(1)	12.8
대구광역시	29(3)	7(2)	22(1)	24.1	30(3)	6(2)	24(1)	20
인천광역시	33(3)	5(3)	28(0)	15.2	35(4)	3(2)	32(2)	8.6
광주광역시	22(3)	4(2)	18(1)	18.2	22(3)	6(2)	16(1)	27.3
대전광역시	22(3)	4(3)	18(0)	18.2	22(3)	6(3)	16(0)	27.3
울산광역시	22(3)	7(3)	15(0)	31.8	22(3)	4(2)	18(1)	18.2
경기도	124(12)	19(7)	105(5)	15.3	128(12)	20(7)	108(5)	15.6
강원특별자치도	42(4)	6(3)	36(1)	14.3	44(4)	3(2)	41(2)	6.8
충청북도	31(3)	3(2)	28(1)	9.7	31(3)	4(2)	27(1)	12.9
충청남도	40(4)	4(3)	36(1)	10	40(4)	2(2)	38(2)	5
전북특별자치도	38(4)	4(3)	34(1)	10.5	38(4)	5(3)	33(1)	13.2
전라남도	57(6)	5(4)	52(2)	8.8	58(6)	5(4)	53(2)	8.6
경상북도	58(6)	8(4)	50(2)	13.8	60(6)	4(3)	56(3)	6.7
경상남도	54(5)	8(5)	46(0)	14.8	55(5)	8(4)	47(1)	14.5
제주특별자치도	36(7)	5(5)	31(2)	13.9	36(7)	7(5)	29(2)	19.4
시·도	2018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824(87)	160(62)	664(25)	19.4	872	173	699	19.8
서울특별시	110(10)	25(7)	85(3)	22.7	112	32	80	28.6
부산광역시	47(5)	10(3)	37(2)	21.3	47	7	40	14.9
대구광역시	30(3)	7(2)	23(1)	23.3	32	11	21	34.4
인천광역시	37(4)	3(3)	34(1)	8.1	40	7	33	17.5
광주광역시	23(3)	8(2)	15(1)	34.8	23	10	13	43.5
대전광역시	22(3)	5(2)	17(1)	22.7	22	4	18	18.2
울산광역시	22(3)	7(2)	15(1)	31.8	22	3	19	13.6
세종특별자치시	18(2)	6(2)	28(0)	17.6	20	8	12	40
경기도	142(13)	32(8)	110(5)	22.5	156	35	121	22.4
강원특별자치도	46(5)	9(5)	37(0)	19.6	49	8	41	16.3
충청북도	32(3)	6(2)	26(1)	18.8	35	5	30	14.3
충청남도	42(4)	8(3)	34(1)	19	48	7	41	14.6
전북특별자치도	39(4)	5(3)	34(1)	12.8	40	9	31	22.5
전라남도	58(6)	8(5)	50(1)	13.8	61	10	51	16.4
경상북도	60(6)	7(4)	53(2)	11.7	61	6	55	9.8
경상남도	58(6)	8(4)	50(2)	13.8	64	3	61	4.7
제주특별자치도	38(7)	8(5)	30(2)	21.1	40	8	32	20

주: 1)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는 광역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3-5〉 기초 의회의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888(376)	626(352)	2,262(24)	21.7	2,898(379)	732(363)	2,166(16)	25.3
서울특별시	419(53)	119(51)	300(2)	28.4	419(53)	139(52)	280(1)	33.2
부산광역시	182(24)	43(24)	139(0)	23.6	182(24)	51(24)	131(0)	28.0
대구광역시	116(14)	25(13)	91(1)	21.6	116(14)	33(12)	83(2)	28.4
인천광역시	112(15)	30(15)	82(0)	26.8	116(15)	30(15)	86(0)	25.9
광주광역시	68(9)	21(9)	47(0)	30.9	68(9)	23(9)	45(0)	33.8
대전광역시	63(8)	16(7)	47(1)	25.4	63(9)	20(9)	43(0)	31.7
울산광역시	50(7)	12(7)	38(0)	24.0	50(7)	13(7)	37(0)	26.0
경기도	417(54)	113(49)	304(5)	27.1	431(55)	135(52)	296(3)	31.3
강원특별자치도	169(23)	32(22)	137(1)	18.9	169(23)	38(23)	131(0)	22.5
충청북도	131(17)	26(16)	105(1)	19.8	131(17)	28(16)	103(1)	21.4
충청남도	178(26)	32(26)	146(0)	18.0	169(25)	40(25)	129(0)	23.7
전북특별자치도	197(24)	30(20)	167(4)	15.2	197(24)	37(24)	160(0)	18.8
전라남도	243(32)	39(29)	204(3)	16.0	243(32)	44(32)	199(0)	18.1
경상북도	284(37)	42(32)	242(5)	14.8	284(37)	44(28)	240(9)	15.5
경상남도	259(33)	46(32)	213(1)	17.8	260(35)	57(35)	203(0)	21.9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시·도	2018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926(385)	900(374)	2,026(11)	30.8	2,987	998	1,989	33.4
서울특별시	423(54)	168(54)	255(0)	39.7	427	170	257	39.8
부산광역시	182(25)	65(25)	117(0)	35.7	182	70	112	38.5
대구광역시	116(14)	36(13)	80(1)	31.0	121	40	81	33.1
인천광역시	118(16)	47(16)	71(0)	39.8	123	50	73	40.7
광주광역시	68(9)	23(8)	45(1)	33.8	69	30	39	43.5
대전광역시	63(9)	27(9)	36(0)	42.9	63	32	31	50.8
울산광역시	50(7)	13(7)	37(0)	26.0	50	18	32	36.0
경기도	446(56)	176(56)	270(0)	39.5	463	195	268	42.1
강원특별자치도	169(23)	37(23)	132(0)	21.9	174	49	125	28.2
충청북도	132(16)	30(16)	102(0)	22.7	136	35	101	25.7
충청남도	171(26)	46(26)	125(0)	26.9	177	56	121	31.6
전북특별자치도	197(25)	48(23)	149(2)	24.4	197	52	145	26.4
전라남도	243(32)	52(28)	191(4)	21.4	247	58	189	23.5
경상북도	284(37)	64(36)	220(1)	22.5	288	59	229	20.5
경상남도	264(36)	68(34)	196(2)	25.8	270	84	186	31.1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주: 1)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는 기초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3-6〉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위: 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2,527	3,137	19,390	13.9	23,305	3,631	19,674	15.6	24,269	4,325	19,944	17.8
서울특별시	3,355	733	2,622	21.8	3,455	803	2,652	23.2	3,535	876	2,659	24.8
부산광역시	1,419	265	1,154	18.7	1,492	321	1,171	21.5	1,532	419	1,113	27.3
대구광역시	1,009	136	873	13.5	1,007	149	858	14.8	1,039	197	842	19.0
인천광역시	1,291	185	1,106	14.3	1,348	203	1,145	15.1	1,415	269	1,146	19.0
광주광역시	727	140	587	19.3	764	160	604	20.9	797	193	604	24.2
대전광역시	692	110	582	15.9	696	114	582	16.4	714	127	587	17.8
울산광역시	594	87	507	14.6	612	115	497	18.8	649	154	495	23.7
세종특별자치시	241	32	209	13.3	282	46	236	16.3	316	61	255	19.3
경기도	3,534	470	3,064	13.3	3,597	519	3,078	14.4	3,820	597	3,223	15.6
강원특별자치도	1,232	145	1,087	11.8	1,310	172	1,138	13.1	1,339	208	1,131	15.5
충청북도	925	111	814	12.0	965	135	830	14.0	1,008	159	849	15.8
충청남도	1,182	88	1,094	7.4	1,219	113	1,106	9.3	1,277	127	1,150	9.9
전북특별자치도	1,182	126	1,056	10.7	1,201	159	1,042	13.2	1,253	194	1,059	15.5
전라남도	1,392	121	1,271	8.7	1,440	155	1,285	10.8	1,502	190	1,312	12.6
경상북도	1,655	146	1,509	8.8	1,684	177	1,507	10.5	1,745	194	1,551	11.1
경상남도	1,527	158	1,369	10.3	1,606	186	1,420	11.6	1,694	244	1,450	14.4
제주특별자치도	570	84	486	14.7	627	104	523	16.6	634	116	518	18.3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4,834	5,165	19,669	20.8	25,431	6,171	19,260	24.3	25,908	7,109	18,799	27.4
서울특별시	3,558	989	2,569	27.8	3,596	1,100	2,496	30.6	3,645	1,199	2,446	32.9
부산광역시	1,571	523	1,048	33.3	1,609	602	1,007	37.4	1,638	665	973	40.6
대구광역시	1,065	238	827	22.3	1,078	297	781	27.6	1,068	352	716	33.0
인천광역시	1,460	331	1,129	22.7	1,470	408	1,062	27.8	1,503	482	1,021	32.1
광주광역시	838	233	605	27.8	873	264	609	30.2	882	292	590	33.1
대전광역시	751	161	590	21.4	788	204	584	25.9	814	246	568	30.2
울산광역시	661	193	468	29.2	694	232	462	33.4	697	254	443	36.4
세종특별자치시	326	71	255	21.8	355	88	267	24.8	368	100	268	27.2
경기도	3,898	694	3,204	17.8	4,009	841	3,168	21.0	4,037	989	3,048	24.5
강원특별자치도	1,372	241	1,131	17.6	1,399	292	1,107	20.9	1,436	341	1,095	23.7
충청북도	1,026	193	833	18.8	1,051	237	814	22.5	1,060	270	790	25.5
충청남도	1,313	152	1,161	11.6	1,375	194	1,181	14.1	1,396	221	1,175	15.8
전북특별자치도	1,261	229	1,032	18.2	1,297	275	1,022	21.2	1,325	329	996	24.8
전라남도	1,562	225	1,337	14.4	1,655	307	1,348	18.5	1,738	369	1,369	21.2
경상북도	1,808	229	1,579	12.7	1,797	283	1,514	15.7	1,857	344	1,513	18.5
경상남도	1,736	324	1,412	18.7	1,766	393	1,373	22.3	1,804	465	1,339	25.8
제주특별자치도	628	139	489	22.1	619	154	465	24.9	640	191	449	29.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부표 3-7〉 관리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323	38	285	11.9	389	60	329	15.4	398	61	337	15.3
서울특별시	80	10	70	12.5	70	9	61	12.6	79	9	69	12.0
부산광역시	27	2	25	7.8	45	8	37	17.9	29	4	26	13.1
대구광역시	21	3	18	12.7	24	4	20	16.7	24	4	20	16.6
인천광역시	6	1	5	13.8	12	1	11	9.8	12	1	11	9.4
광주광역시	12	2	10	18.4	13	2	10	19.8	13	5	8	37.4
대전광역시	16	1	15	8.1	16	2	13	15.4	10	2	8	23.1
울산광역시	5	1	4	19.3	4	1	4	17.6	5	0	4	4.0
세종특별자치시	1	0	1	11.4	1	0	1	16.4	2	0	1	24.6
경기도	57	4	53	7.1	94	14	80	15.0	100	15	85	14.8
강원특별자치도	8	1	7	14.2	7	1	6	17.7	14	2	11	16.5
충청북도	6	1	6	10.4	7	1	5	21.7	7	1	6	19.3
충청남도	12	2	10	16.9	11	1	9	12.4	14	2	12	11.8
전북특별자치도	9	2	7	20.6	15	3	12	19.8	17	4	13	22.6
전라남도	14	2	12	13.3	16	3	14	15.5	11	1	10	11.2
경상북도	19	2	17	11.2	23	3	20	13.5	24	3	21	14.0
경상남도	28	4	24	15.1	29	5	25	16.0	33	6	28	16.8
제주특별자치도	1	0	1	25.7	3	1	2	23.9	4	0	4	9.5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406	66	340	16.3	401	64	337	15.9	459	63	396	13.7
서울특별시	89	14	75	16.0	103	18	85	17.8	133	19	115	14.1
부산광역시	30	5	25	17.0	17	2	15	13.8	11	1	10	11.0
대구광역시	21	4	17	19.2	19	3	17	13.3	23	4	18	19.6
인천광역시	14	2	12	13.9	14	2	12	15.0	23	3	20	11.9
광주광역시	9	2	7	26.7	13	3	10	24.8	17	4	13	21.2
대전광역시	13	3	10	23.4	10	1	8	15.3	11	2	9	16.0
울산광역시	6	1	5	15.8	5	1	4	17.8	4	0	3	9.1
세종특별자치시	3	0	3	11.9	4	0	4	8.3	3	1	3	16.0
경기도	96	12	83	12.7	95	14	81	14.6	111	13	98	11.7
강원특별자치도	17	3	14	20.0	15	2	13	15.5	15	2	13	14.6
충청북도	10	1	9	13.6	9	1	8	13.3	7	1	6	11.8
충청남도	16	2	14	10.8	14	2	12	15.2	8	1	7	17.3
전북특별자치도	18	4	14	24.3	16	4	12	25.4	13	3	11	20.4
전라남도	10	1	9	11.1	15	2	13	14.9	20	2	18	11.0
경상북도	30	4	26	13.3	22	3	19	11.8	26	4	22	15.3
경상남도	20	5	15	23.6	17	2	15	11.4	28	2	26	7.7
제주특별자치도	5	1	4	25.1	12	2	10	17.6	6	1	5	19.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표 3-8〉 평균교육연수

(단위: 년)

시·도	2005년			201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11.2	10.5	12.1	11.6	10.9	12.4
서울특별시	12.3	11.7	13.0	12.7	12.1	13.3
부산광역시	11.3	10.7	12.1	11.6	11.0	12.3
대구광역시	11.4	10.7	12.2	11.7	11.0	12.4
인천광역시	11.3	10.7	12.0	11.6	11.0	12.3
광주광역시	11.8	11.1	12.7	12.1	11.4	12.9
대전광역시	11.9	11.1	12.7	12.2	11.5	13.0
울산광역시	11.4	10.8	12.1	11.7	11.1	12.3
경기도	11.8	11.1	12.5	12.1	11.5	12.7
강원특별자치도	10.1	9.1	11.1	10.5	9.6	11.5
충청북도	10.2	9.3	11.2	10.7	9.8	11.6
충청남도	9.7	8.7	10.7	10.3	9.4	11.3
전북특별자치도	9.9	8.9	11.1	10.4	9.4	11.5
전라남도	8.9	7.8	10.3	9.4	8.3	10.8
경상북도	9.7	8.8	10.9	10.2	9.2	11.3
경상남도	10.5	9.5	11.5	10.9	10.0	11.9
제주특별자치도	10.7	9.6	11.9	11.1	10.1	12.2
시·도	2015년			202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12.1	11.4	12.8	12.5	12.0	13.1
서울특별시	13.0	12.5	13.6	13.3	13.0	13.8
부산광역시	12.0	11.4	12.7	12.4	11.9	13.0
대구광역시	12.1	11.5	12.8	12.5	12.0	13.1
인천광역시	12.1	11.5	12.7	12.4	12.0	12.9
광주광역시	12.5	11.8	13.2	12.8	12.3	13.4
대전광역시	12.6	11.9	13.3	12.9	12.3	13.5
울산광역시	12.2	11.6	12.7	12.5	12.0	12.9
세종특별자치시	12.6	11.9	13.3	13.6	13.2	14.1
경기도	12.5	11.9	13.1	12.9	12.4	13.3
강원특별자치도	11.1	10.2	12.1	11.8	11.0	12.6
충청북도	11.3	10.5	12.2	11.9	11.2	12.6
충청남도	11.0	10.1	11.9	11.6	10.9	12.4
전북특별자치도	11.1	10.2	12.1	11.7	10.9	12.5
전라남도	10.3	9.2	11.5	11.1	10.1	12.0
경상북도	10.9	9.9	11.9	11.5	10.6	12.3
경상남도	11.5	10.7	12.4	12.0	11.3	12.7
제주특별자치도	11.8	10.9	12.7	12.4	11.8	13.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표 재가공.

〈부표 3-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68.9	72.7	65.3	69.7	73.8	65.9	70.4	74.5	66.6
서울특별시	54.8	57.8	52.0	54.9	58.5	51.4	55.3	59.4	51.5
부산광역시	72.9	77.0	69.4	74.9	79.5	70.7	75.4	80.2	71.1
대구광역시	73.0	78.0	68.6	74.2	79.3	69.6	75.7	80.3	71.7
인천광역시	65.4	67.8	63.2	67.1	68.2	66.0	68.6	71.3	66.0
광주광역시	76.2	79.1	73.4	76.8	79.9	73.8	77.4	79.4	75.6
대전광역시	72.5	77.1	68.4	73.5	77.6	69.7	74.5	77.9	71.4
울산광역시	77.3	81.3	73.9	78.0	82.2	74.2	78.9	83.5	74.8
세종특별자치시	78.7	81.9	75.3	79.1	82.7	75.6	75.5	76.5	74.5
경기도	68.0	71.8	64.3	68.2	72.7	64.0	68.5	72.8	64.5
강원특별자치도	74.5	79.4	70.1	76.2	80.2	72.5	75.9	79.4	72.9
충청북도	73.2	76.4	70.3	75.2	79.2	71.5	76.0	80.5	71.9
충청남도	71.9	74.8	69.2	73.0	76.9	69.5	74.8	79.4	70.7
전북특별자치도	74.8	80.3	69.8	75.3	80.9	70.2	76.9	81.6	72.6
전라남도	70.2	74.8	66.0	71.4	76.7	66.6	74.0	77.8	70.5
경상북도	76.2	81.6	71.4	76.5	82.3	71.6	76.9	82.3	72.3
경상남도	77.2	82.8	72.1	79.9	84.7	75.5	79.4	85.1	74.3
제주특별자치도	76.3	77.9	74.8	75.1	76.2	74.0	76.5	79.0	74.2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2.5	76.1	69.3	73.7	77.4	70.3	73.3	76.6	70.3
서울특별시	58.7	61.5	56.0	61.5	64.3	58.7	61.3	63.6	59.2
부산광역시	77.7	81.8	73.9	79.5	83.4	76.0	78.0	82.6	73.8
대구광역시	78.9	83.9	74.5	79.4	85.1	74.6	79.3	83.9	75.2
인천광역시	70.8	73.6	68.3	73.1	75.8	70.6	73.5	76.3	70.9
광주광역시	80.0	81.7	78.4	80.7	82.0	79.5	81.4	83.0	79.9
대전광역시	75.4	78.1	73.1	76.6	79.8	73.7	76.7	79.8	73.9
울산광역시	80.4	84.5	76.9	82.1	86.2	78.5	79.9	83.2	77.0
세종특별자치시	81.1	83.0	79.1	78.2	80.3	76.1	80.4	83.3	77.5
경기도	70.5	74.4	66.9	71.7	75.5	68.3	71.4	74.4	68.6
강원특별자치도	76.7	79.5	74.1	76.9	81.3	73.0	78.8	82.4	75.6
충청북도	75.8	78.6	73.3	77.9	80.6	75.4	76.6	80.2	73.4
충청남도	75.7	79.5	72.3	76.3	80.9	72.3	73.8	77.9	70.0
전북특별자치도	77.8	82.2	73.8	77.2	82.8	72.4	77.6	82.4	73.3
전라남도	76.1	80.1	72.4	75.8	80.1	72.0	76.8	81.3	72.7
경상북도	78.0	83.9	72.9	77.9	83.6	73.0	78.3	82.6	74.6
경상남도	81.9	86.3	78.0	81.8	87.5	76.8	81.0	85.7	76.7
제주특별자치도	77.4	79.4	75.5	78.5	80.1	77.2	76.1	77.5	74.9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부표 3-10〉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명)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1,491,650	808,757	682,893	1,653,781	908,475	745,306	1,792,012	988,510	803,502
서울특별시	251,809	134,829	116,980	277,991	149,533	128,458	306,548	164,866	141,682
부산광역시	139,779	76,321	63,458	153,741	84,785	68,956	167,251	92,669	74,582
대구광역시	97,675	54,399	43,276	105,209	59,298	45,911	112,501	63,775	48,726
인천광역시	94,159	51,434	42,725	105,440	58,395	47,045	117,111	65,095	52,016
광주광역시	62,716	34,231	28,485	69,930	38,874	31,056	73,489	40,974	32,515
대전광역시	49,335	26,869	22,466	53,355	29,328	24,027	56,299	30,978	25,321
울산광역시	17,764	9,547	8,217	21,894	12,052	9,842	25,545	14,144	11,401
세종특별자치시	3,766	2,058	1,708	4,357	2,432	1,925	5,226	2,907	2,319
경기도	246,032	133,426	112,606	281,505	154,810	126,695	312,511	172,699	139,812
강원특별자치도	56,528	30,388	26,140	62,914	34,561	28,353	67,269	37,349	29,920
충청북도	46,052	24,952	21,100	53,726	29,982	23,744	57,076	32,120	24,956
충청남도	55,602	29,979	25,623	60,852	33,291	27,561	64,162	35,365	28,797
전북특별자치도	89,275	48,690	40,585	95,745	52,922	42,823	100,656	56,048	44,608
전라남도	73,106	38,922	34,184	78,998	42,975	36,023	81,356	44,563	36,793
경상북도	92,972	50,991	41,981	100,423	55,719	44,704	106,860	59,434	47,426
경상남도	95,027	50,832	44,195	106,360	57,919	48,441	115,599	63,338	52,261
제주특별자치도	20,053	10,889	9,164	21,341	11,599	9,742	22,553	12,186	10,367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2,046,213	1,125,892	920,321	2,359,672	1,309,718	1,049,954	2,359,228	1,313,212	1,046,016
서울특별시	359,244	192,240	167,004	402,632	215,840	186,792	402,664	215,905	186,759
부산광역시	191,283	105,713	85,570	217,335	120,943	96,392	222,452	124,521	97,931
대구광역시	126,560	71,499	55,061	144,092	81,867	62,225	143,286	81,472	61,814
인천광역시	137,676	76,178	61,498	159,186	88,861	70,325	160,101	89,480	70,621
광주광역시	82,306	45,915	36,391	91,548	51,187	40,361	91,755	51,336	40,419
대전광역시	63,822	35,015	28,807	72,908	40,110	32,798	72,047	39,909	32,138
울산광역시	32,210	17,773	14,437	38,575	21,331	17,244	40,376	22,516	17,860
세종특별자치시	6,587	3,647	2,940	7,880	4,322	3,558	7,656	4,317	3,339
경기도	362,988	199,548	163,440	422,615	233,747	188,868	424,697	234,625	190,072
강원특별자치도	74,329	41,496	32,833	84,114	47,651	36,463	81,160	46,131	35,029
충청북도	63,967	36,081	27,886	76,619	43,368	33,251	73,264	41,916	31,348
충청남도	70,991	39,121	31,870	84,802	47,487	37,315	83,610	47,174	36,436
전북특별자치도	109,921	61,211	48,710	125,438	70,868	54,570	123,431	69,955	53,476
전라남도	87,197	47,904	39,293	101,475	57,121	44,354	98,597	55,968	42,629
경상북도	118,163	65,710	52,453	141,175	80,131	61,044	139,946	79,880	60,066
경상남도	132,073	72,419	59,654	156,832	87,338	69,494	162,489	90,931	71,558
제주특별자치도	26,896	14,422	12,474	32,446	17,546	14,900	31,697	17,176	14,521

주: 일반수급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부표 3-11〉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단위: 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8,646,882	10,789,233	44.5	9,035,169	11,058,325	45.0	9,271,909	11,186,408	45.3
서울특별시	2,520,123	2,926,131	46.3	2,603,857	2,991,567	46.5	2,656,627	3,013,437	46.9
부산광역시	508,230	573,000	47.0	525,075	581,308	47.5	531,869	577,072	48.0
대구광역시	357,553	407,916	46.7	370,872	413,539	47.3	375,750	408,840	47.9
인천광역시	398,123	497,726	44.4	421,787	510,181	45.3	436,904	516,182	45.8
광주광역시	219,021	239,083	47.8	228,465	244,548	48.3	233,327	243,739	48.9
대전광역시	250,824	285,358	46.8	260,412	294,852	46.9	262,194	298,788	46.7
울산광역시	160,114	236,901	40.3	167,384	229,027	42.2	173,262	233,505	42.6
세종특별자치시	42,161	53,125	44.2	50,043	57,627	46.5	56,169	64,128	46.7
경기도	1,920,093	2,549,279	43.0	2,045,769	2,654,512	43.5	2,129,497	2,721,740	43.9
강원특별자치도	231,466	258,874	47.2	241,189	264,152	47.7	243,681	266,696	47.7
충청북도	242,441	312,570	43.7	251,640	322,259	43.8	258,277	328,832	44.0
충청남도	305,562	453,150	40.3	318,685	463,849	40.7	327,337	467,694	41.2
전북특별자치도	263,140	296,556	47.0	273,261	303,591	47.4	278,078	304,508	47.7
전라남도	259,027	351,496	42.4	272,186	364,853	42.7	281,955	375,039	42.9
경상북도	378,799	555,111	40.6	388,728	559,347	41.0	395,457	558,388	41.5
경상남도	482,415	669,447	41.9	502,602	674,605	42.7	514,226	676,114	43.2
제주특별자치도	107,790	123,510	46.6	113,214	128,508	46.8	117,299	131,706	47.1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9,385,592	11,172,608	45.7	9,602,726	11,251,634	46.0	9,707,426	11,340,424	46.1
서울특별시	2,654,340	2,998,328	47.0	2,708,067	3,022,618	47.3	2,743,693	3,045,013	47.4
부산광역시	533,907	568,428	48.4	541,134	564,412	48.9	543,167	560,154	49.2
대구광역시	376,602	401,909	48.4	380,470	400,378	48.7	381,046	397,695	48.9
인천광역시	442,116	519,576	46.0	458,666	532,735	46.3	466,238	539,701	46.3
광주광역시	237,447	245,892	49.1	241,000	246,546	49.4	240,550	244,619	49.6
대전광역시	268,284	305,105	46.8	268,750	301,252	47.1	270,856	304,394	47.1
울산광역시	175,004	226,639	43.6	177,121	222,571	44.3	179,959	230,370	43.9
세종특별자치시	61,417	66,468	48.0	66,617	70,293	48.7	67,829	64,022	51.4
경기도	2,188,649	2,751,432	44.3	2,276,094	2,816,174	44.7	2,319,062	2,865,801	44.7
강원특별자치도	248,246	266,802	48.2	253,118	267,782	48.6	255,034	266,874	48.9
충청북도	262,563	327,412	44.5	267,268	329,074	44.8	270,121	340,424	44.2
충청남도	333,752	473,387	41.4	341,257	478,090	41.6	345,947	484,855	41.6
전북특별자치도	281,005	302,590	48.2	282,988	300,490	48.5	285,235	304,021	48.4
전라남도	290,086	384,473	43.0	294,579	376,273	43.9	307,335	378,310	44.8
경상북도	397,176	548,550	42.0	402,779	547,123	42.4	397,525	540,749	42.4
경상남도	515,769	656,109	44.0	520,330	645,406	44.6	508,540	640,247	44.3
제주특별자치도	119,209	129,528	47.9	122,488	130,417	48.4	125,289	133,175	48.5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부표 3-12〉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7,968,295	10,029,760	44.3	8,322,391	10,290,191	44.7	8,531,930	10,407,639	45.0
서울특별시	2,365,736	2,757,608	46.2	2,444,915	2,825,083	46.4	2,490,971	2,845,845	46.7
부산광역시	462,757	524,210	46.9	477,428	532,554	47.3	483,273	528,274	47.8
대구광역시	321,606	365,769	46.8	333,298	371,039	47.3	337,183	365,736	48.0
인천광역시	366,162	467,623	43.9	387,978	479,446	44.7	400,614	483,206	45.3
광주광역시	197,922	212,540	48.2	206,536	217,843	48.7	210,946	217,256	49.3
대전광역시	222,078	248,914	47.2	230,636	259,490	47.1	231,750	263,494	46.8
울산광역시	146,233	224,270	39.5	152,888	216,192	41.4	158,456	220,488	41.8
세종특별자치시	33,569	40,127	45.6	40,145	43,689	47.9	44,516	47,892	48.2
경기도	1,784,613	2,431,440	42.3	1,901,958	2,531,508	42.9	1,981,968	2,597,039	43.3
강원특별자치도	208,059	223,765	48.2	216,602	228,499	48.7	218,262	230,712	48.6
충청북도	221,525	286,361	43.6	229,202	295,649	43.7	234,895	302,064	43.7
충청남도	280,214	420,613	40.0	290,646	428,964	40.4	297,806	432,590	40.8
전북특별자치도	236,053	261,704	47.4	245,157	268,836	47.7	248,915	269,247	48.0
전라남도	233,563	314,708	42.6	245,423	327,940	42.8	253,817	337,530	42.9
경상북도	347,503	511,376	40.5	356,271	515,673	40.9	361,884	514,484	41.3
경상남도	441,308	626,843	41.3	459,197	631,322	42.1	468,966	632,337	42.6
제주특별자치도	99,394	111,889	47.0	104,111	116,464	47.2	107,708	119,445	47.4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8,619,802	10,389,212	45.3	8,807,043	10,455,574	45.7	8,888,985	10,544,640	45.7
서울특별시	2,483,663	2,829,764	46.7	2,530,577	2,849,946	47.0	2,563,868	2,873,496	47.2
부산광역시	484,078	519,944	48.2	490,193	515,666	48.7	491,128	511,686	49.0
대구광역시	336,882	358,901	48.4	339,497	356,905	48.8	339,230	354,646	48.9
인천광역시	404,609	486,534	45.4	419,845	498,165	45.7	426,571	504,871	45.8
광주광역시	214,294	219,468	49.4	217,219	219,954	49.7	216,225	218,157	49.8
대전광역시	237,187	269,922	46.8	237,046	267,000	47.0	237,781	270,293	46.8
울산광역시	159,632	213,494	42.8	161,063	209,141	43.5	162,142	209,587	43.6
세종특별자치시	48,369	49,030	49.7	51,921	51,473	50.2	53,756	52,583	50.6
경기도	2,035,991	2,625,463	43.7	2,117,247	2,688,201	44.1	2,152,665	2,736,724	44.0
강원특별자치도	221,972	230,613	49.0	225,636	230,816	49.4	226,735	230,035	49.6
충청북도	238,039	300,409	44.2	241,501	301,726	44.5	244,114	313,194	43.8
충청남도	302,974	438,098	40.9	308,988	442,119	41.1	312,605	448,710	41.1
전북특별자치도	250,568	267,141	48.4	251,357	264,653	48.7	248,867	262,650	48.7
전라남도	260,632	346,776	42.9	263,586	337,728	43.8	263,294	336,933	43.9
경상북도	362,556	504,489	41.8	366,905	502,763	42.2	364,307	501,945	42.1
경상남도	469,220	612,246	43.4	472,364	601,185	44.0	471,123	598,332	44.1
제주특별자치도	109,136	116,920	48.3	112,098	118,133	48.7	114,574	120,798	48.7

주: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부표 3-13〉 공무원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506,810	613,648	45.2	536,205	624,381	46.2	558,708	636,343	46.8
서울특별시	95,327	119,907	44.3	100,249	120,728	45.4	103,840	121,689	46.0
부산광역시	32,743	39,095	45.6	34,366	39,339	46.6	35,143	39,616	47.0
대구광역시	25,213	34,440	42.3	26,229	34,888	42.9	26,825	35,499	43.0
인천광역시	25,865	25,983	49.9	27,644	26,645	50.9	30,147	28,918	51.0
광주광역시	16,405	21,441	43.3	17,186	21,773	44.1	17,705	21,770	44.9
대전광역시	22,089	30,300	42.2	23,043	29,254	44.1	23,421	29,140	44.6
울산광역시	10,813	9,915	52.2	11,425	10,138	41.6	11,702	10,326	53.1
세종특별자치시	8,510	12,827	39.9	9,778	13,712	53.0	11,515	16,007	41.8
경기도	107,622	98,366	52.2	114,980	102,573	52.9	118,990	104,515	53.2
강원특별자치도	18,772	30,472	38.1	19,737	31,093	38.8	20,425	31,433	39.4
충청북도	17,640	22,410	44.0	18,715	22,723	45.2	19,637	22,945	46.1
충청남도	20,564	26,830	43.4	22,005	28,086	43.9	23,348	28,448	45.1
전북특별자치도	20,983	28,825	42.1	22,055	29,106	43.1	23,086	29,701	43.7
전라남도	20,934	32,590	39.1	22,077	32,822	40.2	23,234	33,617	40.9
경상북도	24,142	34,123	41.4	25,280	34,307	42.4	26,468	34,767	43.2
경상남도	32,038	35,553	47.4	33,671	36,211	48.2	35,083	36,762	48.8
제주특별자치도	7,150	10,571	40.3	7,765	10,983	41.4	8,139	11,190	42.1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579,527	641,795	47.5	605,802	655,619	48.0	623,723	657,271	48.7
서울특별시	106,907	122,636	46.6	112,136	126,959	46.9	114,949	126,471	47.6
부산광역시	36,161	39,458	47.8	37,206	39,958	48.2	38,358	39,996	49.0
대구광역시	27,373	35,308	43.7	28,190	35,769	44.1	28,798	35,407	44.9
인천광역시	31,354	29,104	51.9	32,669	30,674	51.6	33,435	30,971	51.9
광주광역시	18,342	21,854	45.6	18,977	22,109	46.2	19,469	22,139	46.8
대전광역시	23,999	29,065	45.2	24,194	28,076	46.3	24,912	28,019	47.1
울산광역시	12,143	10,440	53.8	12,704	10,729	54.2	14,392	18,141	44.2
세종특별자치시	12,595	17,066	42.5	13,954	18,317	43.2	13,074	10,926	54.5
경기도	123,608	105,691	53.9	129,686	107,908	54.6	134,187	108,706	55.2
강원특별자치도	21,088	31,667	40.0	22,187	32,443	40.6	22,929	32,424	41.4
충청북도	20,697	23,232	47.1	21,851	23,679	48.0	22,075	23,696	48.2
충청남도	24,490	28,773	46.0	25,885	29,502	46.7	26,842	29,853	47.3
전북특별자치도	24,143	29,960	44.6	25,288	30,387	45.4	29,802	36,017	45.3
전라남도	24,412	33,882	41.9	25,802	34,845	42.5	38,521	37,560	50.6
경상북도	27,519	35,183	43.9	28,804	35,745	44.6	26,110	30,425	46.2
경상남도	36,248	36,998	49.5	37,536	37,354	50.1	26,862	35,255	43.2
제주특별자치도	8,448	11,478	42.4	8,733	11,165	43.9	9,008	11,265	44.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부표 3-14〉 사학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71,777	145,825	54.1	176,573	143,753	55.1	181,271	142,426	56.0
서울특별시	59,060	48,616	54.8	58,693	45,756	56.2	61,816	45,903	57.4
부산광역시	12,730	9,695	56.8	13,281	9,415	58.5	13,453	9,182	59.4
대구광역시	10,734	7,707	58.2	11,345	7,612	59.8	11,742	7,605	60.7
인천광역시	6,096	4,120	59.7	6,165	4,090	60.1	6,143	4,058	60.2
광주광역시	4,694	5,102	47.9	4,743	4,932	49.0	4,676	4,713	49.8
대전광역시	6,657	6,144	52.0	6,733	6,108	52.4	7,023	6,154	53.3
울산광역시	3,068	2,716	53.0	3,071	2,697	53.2	3,104	2,691	53.6
세종특별자치시	82	171	32.4	120	226	34.7	138	229	37.6
경기도	27,858	19,473	58.9	28,831	20,431	58.5	28,539	20,186	58.6
강원특별자치도	4,635	4,637	50.0	4,850	4,560	51.5	4,994	4,551	52.3
충청북도	3,276	3,799	46.3	3,723	3,887	48.9	3,745	3,823	49.5
충청남도	4,784	5,707	45.6	6,034	6,799	47.0	6,183	6,656	48.2
전북특별자치도	6,104	6,027	50.3	6,049	5,649	51.7	6,077	5,560	52.2
전라남도	4,530	4,198	51.9	4,686	4,091	53.4	4,904	3,892	55.8
경상북도	7,154	9,612	42.7	7,177	9,367	43.4	7,105	9,137	43.7
경상남도	9,069	7,051	56.3	9,734	7,072	57.9	10,177	7,015	59.2
제주특별자치도	1246	1050	54.3	1,338	1,061	55.8	1,452	1,071	57.6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86,263	141,601	56.8	189,881	140,441	57.5	194,718	138,513	58.4
서울특별시	63,770	45,928	58.1	65,354	45,713	58.8	64,876	45,046	59.0
부산광역시	13,668	9,026	60.2	13,735	8,788	61.0	13,681	8,472	61.8
대구광역시	12,347	7,700	61.6	12,783	7,704	62.4	13,018	7,642	63.0
인천광역시	6,153	3,938	61.0	6,152	3,896	61.2	6,232	3,859	61.8
광주광역시	4,811	4,570	51.3	4,804	4,483	51.7	4,856	4,323	52.9
대전광역시	7,098	6,118	53.7	7,510	6,176	54.9	8,163	6,082	57.3
울산광역시	3,229	2,705	54.4	3,354	2,701	55.4	3,425	2,642	56.5
세종특별자치시	453	372	54.9	742	503	59.6	999	513	66.1
경기도	29,050	20,278	58.9	29,161	20,065	59.2	32,210	20,371	61.3
강원특별자치도	5,186	4,522	53.4	5,295	4,523	53.9	5,370	4,415	54.9
충청북도	3,827	3,771	50.4	3,916	3,669	51.6	3,932	3,534	52.7
충청남도	6,288	6,516	49.1	6,384	6,469	49.7	6,500	6,292	50.8
전북특별자치도	6,294	5,489	53.4	6,343	5,450	53.8	6,566	5,354	55.1
전라남도	5,042	3,815	56.9	5,191	3,700	58.4	5,520	3,817	59.1
경상북도	7,101	8,878	44.4	7,070	8,615	45.1	7,108	8,379	45.9
경상남도	10,301	6,865	60.0	10,430	6,867	60.3	10,555	6,660	61.3
제주특별자치도	1,625	1,130	59.0	1,657	1,119	59.7	1,707	1,112	60.6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부표 3-1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수)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서울특별시	0.950	0.939	0.962	0.954	0.944	0.965	0.944	0.932	0.958
부산광역시	0.947	0.935	0.960	0.950	0.940	0.96	0.942	0.928	0.957
대구광역시	0.956	0.944	0.968	0.960	0.949	0.97	0.948	0.934	0.962
인천광역시	0.947	0.936	0.959	0.945	0.933	0.957	0.947	0.933	0.960
광주광역시	0.950	0.936	0.965	0.959	0.947	0.972	0.951	0.940	0.962
대전광역시	0.958	0.949	0.968	0.959	0.951	0.968	0.960	0.950	0.970
울산광역시	0.965	0.957	0.973	0.966	0.957	0.975	0.955	0.941	0.968
세종특별자치시	0.958	0.943	0.974	0.940	0.922	0.958	0.963	0.955	0.971
경기도	0.952	0.939	0.964	0.954	0.943	0.966	0.950	0.938	0.962
강원특별자치도	0.943	0.928	0.959	0.941	0.923	0.959	0.936	0.917	0.955
충청북도	0.944	0.928	0.960	0.949	0.934	0.963	0.939	0.922	0.955
충청남도	0.931	0.914	0.948	0.931	0.913	0.949	0.930	0.911	0.949
전북특별자치도	0.931	0.911	0.952	0.935	0.917	0.953	0.933	0.916	0.951
전라남도	0.937	0.919	0.955	0.935	0.914	0.956	0.940	0.920	0.959
경상북도	0.942	0.925	0.959	0.941	0.925	0.958	0.941	0.924	0.958
경상남도	0.953	0.939	0.967	0.951	0.938	0.965	0.946	0.932	0.961
제주특별자치도	0.951	0.937	0.965	0.952	0.943	0.961	0.947	0.934	0.959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서울특별시	0.946	0.933	0.959	0.947	0.934	0.960	0.866	0.858	0.874
부산광역시	0.944	0.929	0.958	0.945	0.930	0.959	0.861	0.853	0.870
대구광역시	0.949	0.935	0.963	0.950	0.936	0.964	0.871	0.865	0.878
인천광역시	0.948	0.934	0.961	0.949	0.935	0.962	0.864	0.855	0.872
광주광역시	0.952	0.941	0.963	0.953	0.942	0.964	0.868	0.860	0.875
대전광역시	0.961	0.951	0.971	0.962	0.952	0.972	0.866	0.860	0.872
울산광역시	0.956	0.942	0.969	0.957	0.943	0.970	0.866	0.858	0.874
세종특별자치시	0.964	0.956	0.972	0.965	0.957	0.973	0.877	0.871	0.884
경기도	0.951	0.939	0.963	0.952	0.940	0.964	0.868	0.861	0.876
강원특별자치도	0.937	0.918	0.956	0.938	0.919	0.957	0.857	0.845	0.869
충청북도	0.940	0.923	0.956	0.941	0.924	0.957	0.861	0.852	0.871
충청남도	0.931	0.912	0.950	0.932	0.913	0.951	0.853	0.840	0.865
전북특별자치도	0.935	0.917	0.952	0.936	0.918	0.953	0.854	0.844	0.865
전라남도	0.941	0.921	0.960	0.942	0.922	0.961	0.857	0.843	0.870
경상북도	0.942	0.925	0.959	0.943	0.926	0.960	0.858	0.846	0.871
경상남도	0.948	0.933	0.962	0.949	0.934	0.963	0.863	0.854	0.872
제주특별자치도	0.948	0.935	0.960	0.949	0.936	0.961	0.869	0.862	0.876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부표 3-16〉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7.7	76.5	78.9	78.5	77.2	79.7	76.9	75.8	78.0
서울특별시	75.1	75.0	75.2	75.8	75.6	75.9	74.5	74.5	74.5
부산광역시	78.4	77.0	79.6	79.1	77.7	80.5	77.2	76.0	78.2
대구광역시	77.5	76.4	78.4	78.1	76.9	79.2	76.2	75.3	77.0
인천광역시	79.6	78.3	80.6	80.3	79.1	81.3	78.4	77.3	79.4
광주광역시	81.6	81.3	82.0	82.3	81.8	82.7	79.8	79.4	80.1
대전광역시	80.0	79.3	80.7	81.6	80.9	82.2	80.8	80.3	81.2
울산광역시	82.5	76.4	86.7	83.4	77.8	87.5	81.4	75.6	85.5
세종특별자치시	79.5	76.5	81.9	81.9	79.2	84.2	80.5	77.9	82.6
경기도	77.5	76.2	78.6	78.4	77.0	79.6	77.1	75.8	78.2
강원특별자치도	77.9	77.0	78.7	78.6	77.6	79.5	77.1	76.1	78.0
충청북도	80.4	79.3	81.4	81.3	80.1	82.3	80.0	78.8	81.1
충청남도	77.3	75.0	79.1	77.6	75.1	79.5	76.7	74.3	78.7
전북특별자치도	79.4	79.0	79.7	79.8	79.3	80.3	78.0	77.7	78.2
전라남도	78.6	77.5	79.6	79.8	78.8	80.7	77.1	76.1	78.1
경상북도	77.3	75.2	79.2	77.9	75.6	79.8	76.6	74.5	78.5
경상남도	78.2	75.1	80.6	78.8	75.9	81.1	76.6	73.8	78.8
제주특별자치도	73.2	74.7	71.7	73.1	74.2	72.1	72.3	73.5	71.1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4.1	72.6	75.6	67.8	66.3	69.2	74.2	73.6	74.8
서울특별시	72.0	72.1	71.8	64.6	64.8	64.4	72.4	73.2	71.5
부산광역시	73.8	72.5	75.1	68.3	67.2	69.5	74.2	73.8	74.7
대구광역시	72.3	71.3	73.4	68.2	67.3	69.0	73.4	73.3	73.6
인천광역시	75.8	74.3	77.2	69.8	68.4	71.0	75.9	75.6	76.2
광주광역시	76.1	75.4	76.9	70.8	70.3	71.2	76.7	77.2	76.3
대전광역시	77.1	76.1	78.0	72.2	71.7	72.7	77.8	77.9	77.8
울산광역시	78.1	72.3	82.7	73.7	67.7	78.4	78.5	73.7	82.3
세종특별자치시	78.6	74.9	81.9	73.1	69.5	76.2	79.1	76.5	81.5
경기도	74.4	72.5	76.1	67.3	65.5	69.0	74.1	73.3	74.9
강원특별자치도	75.2	73.9	76.4	68.3	67.2	69.3	74.4	73.8	75.0
충청북도	77.3	75.3	79.1	71.5	69.7	73.1	76.6	75.5	77.7
충청남도	74.3	70.9	77.3	68.2	64.3	71.5	73.5	70.6	75.9
전북특별자치도	74.9	74.1	75.7	68.7	68.0	69.4	75.0	75.0	75.0
전라남도	74.4	72.9	75.9	67.4	65.6	69.1	74.3	73.2	75.4
경상북도	73.0	70.6	75.2	67.5	64.7	69.9	72.8	71.2	74.3
경상남도	74.2	70.8	77.2	68.7	65.5	71.5	74.7	72.7	76.6
제주특별자치도	71.3	72.4	70.3	65.0	66.2	63.8	71.2	73.0	69.4

주: 1) 수검률=건강검진수검인원/건강검진대상인원*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은 1차 수검자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3-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p)

시·도	2014년				2016년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국	9.5	7.4	11.7	4.3	13.2	10.6	15.9	5.3
서울특별시	9.9	7.4	12.5	5.1	14.2	10.5	18.1	7.6
부산광역시	10.4	9.5	11.5	2.0	19.6	17.5	21.8	4.3
대구광역시	8.3	6.3	10.4	4.1	12.4	10.7	14.1	3.4
인천광역시	11.7	8.7	14.7	6.0	11.3	9.4	13.2	3.8
광주광역시	4.7	3.4	6.0	2.6	8.3	7.0	9.6	2.6
대전광역시	12.1	9.7	14.7	5.0	13.9	10.6	17.3	6.7
울산광역시	7.8	6.2	9.3	3.1	10.5	8.2	12.7	4.5
세종특별자치시	-	-	-	-	17.9	15.3	20.4	5.1
경기도	8.2	5.9	10.4	4.5	12.5	9.5	15.5	6.0
강원특별자치도	11.4	9.9	13.0	3.1	12.8	9.9	15.8	5.9
충청북도	11.9	9.7	14.2	4.5	13.5	9.3	17.7	8.4
충청남도	8.1	5.6	10.6	5.0	13.0	9.6	16.4	6.8
전북특별자치도	5.4	3.5	7.5	4.0	14.8	14.8	14.7	0.1
전라남도	11.5	10.1	12.9	2.8	11.4	10.5	12.4	1.9
경상북도	15.1	11.8	18.5	6.7	12.2	10.1	14.5	4.4
경상남도	8.5	7.1	9.9	2.8	12.3	10.3	14.2	3.9
제주특별자치도	11.0	8.0	14.2	6.2	12.6	9.8	15.3	5.5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국	20.5	16.6	24.5	7.9	31.8	27.6	36.0	8.4	33.4	29.7	37.0	7.3
서울특별시	24.5	19.2	30.1	10.9	31.9	27.0	37.2	10.2	36.0	31.6	40.9	9.3
부산광역시	22.6	20	25.3	5.3	36.7	34.6	38.9	4.3	36.8	33.7	39.9	6.2
대구광역시	12.2	10.7	13.9	3.2	24.2	21.2	26.0	4.8	30.1	27.1	33.1	6.0
인천광역시	17.3	14.6	20.1	5.5	32.7	28.9	36.4	7.5	33.9	30.1	37.7	7.6
광주광역시	16.0	12	20.4	8.4	37	32.8	41.6	8.8	28.4	26.2	30.8	4.6
대전광역시	21.9	17.1	26.6	9.5	38.3	33.8	42.8	9.0	39.8	36.7	42.7	6.0
울산광역시	21.5	17.5	25.1	7.6	37.7	31.2	41.7	10.5	36.5	30.5	42.2	11.7
세종특별자치시	27.3	24.5	30.4	5.9	42.9	34.6	48.7	14.1	36.1	31.5	40.8	9.3
경기도	19.0	15	23.1	8.1	33.1	28.1	38.1	10.0	32.5	29.1	35.8	6.7
강원특별자치도	21.4	17.4	25.4	8	28	23.2	32.9	9.7	32.5	28.1	36.9	8.8
충청북도	18.9	16	21.9	5.9	27.4	21.6	31.6	10.0	30.2	28.6	31.6	3.0
충청남도	23.8	18.7	28.8	10.1	27.7	22.3	30.6	8.3	34.2	29.9	38.3	8.4
전북특별자치도	22.5	20.4	24.6	4.2	29	22.3	33.3	11.0	28.3	23.4	33.3	9.9
전라남도	26.4	24.1	28.5	4.4	31.8	24.7	36.7	12.0	28.9	26.1	31.6	5.5
경상북도	17.6	14.2	21.1	6.9	25.7	21.9	28.1	6.2	32.4	31.2	33.8	2.6
경상남도	18.6	13.8	23.5	9.7	29.9	24.0	34.3	10.3	33.7	28.2	39.0	10.8
제주특별자치도	17.9	14.7	21.1	6.4	34.2	31.0	37.3	6.3	28.4	24.0	32.6	8.6

주: 1)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의 합임. 2)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18〉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단위: 건,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6,998	23,494	3,129	87.0	26,264	22,601	3,152	86.1	26,154	22,712	3,068	86.8
서울특별시	7,449	6,595	733	88.5	6,930	6,061	724	87.5	6,915	6,103	709	88.3
부산광역시	1,919	1,677	238	87.4	1,709	1,454	212	85.1	1,691	1,448	235	85.6
대구광역시	991	856	129	86.4	1,116	969	131	86.8	1,088	950	120	87.3
인천광역시	1,868	1,667	192	89.2	1,721	1,512	190	87.9	1,739	1,508	201	86.7
광주광역시	799	710	87	88.9	792	696	73	87.9	745	663	78	89.0
대전광역시	794	701	82	88.3	847	734	100	86.7	795	707	82	88.9
울산광역시	479	418	55	87.3	494	410	61	83.0	506	440	57	87.0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67	60	6	89.6
경기도	5,904	5,117	683	86.7	5,760	4,912	735	85.3	5,713	4,957	676	86.8
강원특별자치도	731	616	100	84.3	785	676	89	86.1	768	674	87	87.8
충청북도	808	682	108	84.4	778	653	106	83.9	755	623	119	82.5
충청남도	1,039	874	142	84.1	1,098	911	149	83.0	955	816	126	85.4
전북특별자치도	701	596	92	85.0	784	676	101	86.2	839	703	115	83.8
전라남도	819	703	114	85.8	855	726	107	84.9	842	712	121	84.6
경상북도	1,003	859	140	85.6	1,017	840	128	82.6	1,069	922	130	86.2
경상남도	1,252	1,072	160	85.6	1,239	1,028	182	83.0	1,199	1,027	146	85.7
제주특별자치도	442	351	74	79.4	428	343	64	80.1	468	399	60	85.3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4,038	20,993	2,813	87.3	21,760	19,284	2,476	88.6	24,459	21,569	2,890	88.2
서울특별시	6,204	5,498	642	88.6	5,155	4,616	539	89.5	6,160	5,507	653	89.4
부산광역시	1,574	1,383	180	87.9	1,448	1,296	152	89.5	1,659	1,451	208	87.5
대구광역시	907	794	108	87.5	901	807	94	89.6	1,015	895	120	88.2
인천광역시	1,505	1,330	167	88.4	1,394	1,216	178	87.2	1,566	1,367	199	87.3
광주광역시	630	559	65	88.7	574	516	58	89.9	618	557	61	90.1
대전광역시	725	637	83	87.9	699	609	90	87.1	795	714	81	89.8
울산광역시	499	439	57	88.0	459	408	51	88.9	490	441	49	90.0
세종특별자치시	92	82	9	89.1	82	73	9	89.0	117	98	19	83.8
경기도	5,458	4,752	646	87.1	4,948	4,405	543	89.0	5,444	4,782	662	87.8
강원특별자치도	670	570	92	85.1	606	541	65	89.3	791	704	87	89.0
충청북도	717	625	86	87.2	594	532	62	89.6	753	655	98	87.0
충청남도	926	776	140	83.8	889	777	112	87.4	977	854	123	87.4
전북특별자치도	727	620	99	85.3	667	571	96	85.6	703	595	108	84.6
전라남도	782	689	87	88.1	807	706	101	87.5	755	655	100	86.8
경상북도	965	818	132	84.8	987	877	110	88.9	958	838	120	87.5
경상남도	1,215	1,036	167	85.3	1,114	951	163	85.4	1,224	1,069	155	87.3
제주특별자치도	442	385	53	87.1	436	383	53	87.8	434	387	47	89.2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부표 3-19〉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단위: 시간:분)

시·도	2009년				2014년				2019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국	2:34	0:36	4:41	1:04	2:30	0:41	4:33	1:08	2:27	0:50	4:13	1:20
서울특별시	2:17	0:28	4:32	1:03	2:15	0:38	4:27	1:00	2:06	0:52	4:12	1:13
부산광역시	2:26	0:35	4:32	1:04	2:22	0:38	4:20	1:12	2:18	0:49	3:40	1:22
대구광역시	2:25	0:34	4:58	0:45	2:31	0:38	4:22	1:17	2:17	0:42	4:03	1:23
인천광역시	2:24	0:35	4:57	1:18	2:25	0:42	4:35	1:05	2:28	0:47	4:29	1:12
광주광역시	2:31	0:36	4:32	1:15	2:29	0:45	4:18	1:11	2:23	0:43	3:48	1:15
대전광역시	2:29	0:36	4:38	1:14	2:40	0:44	4:25	1:22	2:26	0:47	4:05	1:29
울산광역시	2:29	0:36	5:11	1:01	2:48	0:37	5:12	1:37	2:38	0:43	4:31	1:12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2:36	1:03	5:09	1:28
경기도	2:39	0:37	4:45	1:05	2:20	0:39	4:47	1:07	2:32	0:50	4:30	1:27
강원특별자치도	2:25	0:43	4:07	1:13	2:40	0:46	4:24	1:19	2:31	0:55	4:05	1:21
충청북도	2:43	0:42	4:29	0:54	2:40	0:45	4:15	1:03	2:39	0:48	3:48	1:18
충청남도	3:01	0:39	4:23	0:54	3:03	0:45	4:46	1:02	2:37	0:50	4:07	1:20
전북특별자치도	2:54	0:47	4:48	0:55	2:36	0:45	4:31	0:57	2:37	0:56	4:00	1:31
전라남도	2:41	0:45	4:13	1:27	2:52	0:51	4:11	1:16	2:45	0:53	3:45	1:07
경상북도	2:42	0:37	4:51	1:09	2:44	0:45	4:23	1:13	2:37	0:46	4:10	1:17
경상남도	2:51	0:36	5:14	0:55	2:45	0:41	4:46	1:12	2:39	0:52	4:31	1:17
제주특별자치도	2:59	0:48	4:52	1:12	2:41	0:49	4:33	1:24	2:26	0:54	4:00	2:12

주: 가사 시간 = 가정관리 시간 + 가족 보살피기 시간, 20세 이상.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20〉 가족관계만족도

(단위: %)

시·도	성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54.7	41	4.4	54.4	42.6	3.0	56.1	40.8	3.1	63.5	33.2	3.3
	남성	58.3	37.9	3.8	59.0	38.3	2.7	61.5	35.5	3	65.5	31.6	2.8
서울특별시	여성	52.2	42.4	5.4	51.3	45.3	3.4	52.4	42.9	4.7	64.5	32.6	3.0
	남성	57.3	38.3	4.4	56.1	41.4	2.6	60.6	35.8	3.6	65.3	31.7	3.0
부산광역시	여성	55.5	41.3	3.1	49.4	46.4	4.1	59.3	37.4	3.2	60.7	35.9	3.4
	남성	58.3	37.6	4	55.8	40.0	4.1	63.2	34.1	2.6	58.4	38.2	3.4
대구광역시	여성	52.1	43.9	4	46.3	49.5	4.2	48.2	50.5	1.2	57.6	39.1	3.3
	남성	56.1	40.3	3.6	47.0	49.0	4.1	55.2	42	2.9	61.6	36.1	2.3
인천광역시	여성	54.5	41.3	4.2	51.9	43.8	4.3	54.4	42.1	3.5	60.6	35.6	3.8
	남성	55.4	39.7	4.9	59.9	37.5	2.6	60.1	36.6	3.3	63.8	33.4	2.8
광주광역시	여성	61.4	34.7	3.9	54.4	43.1	2.6	60.2	37	2.8	61.9	35.5	2.7
	남성	62.6	35.1	2.3	63.2	34.0	2.9	62.1	34.9	3	65.1	32.5	2.3
대전광역시	여성	54.1	41.1	4.8	53.7	44.1	2.3	53.6	41	5.5	65.5	29.9	4.5
	남성	57.3	39.4	3.3	62.9	35.4	1.8	60.3	35.8	4	64.0	33.5	2.5
울산광역시	여성	51.9	43.7	4.5	56.6	41.5	1.9	55.7	40.6	3.6	59.7	36.7	3.5
	남성	57.6	39.4	3	58.6	39.6	1.9	57.6	39.3	3.1	63.2	33.7	3.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66.4	31	2.7	63.1	34.7	2.1	59.8	38.1	2	71.3	25.2	3.5
	남성	68	27.9	4.1	68.6	30.4	1.1	71.2	26.8	2	70.2	27.9	1.9
경기도	여성	54	41.3	4.7	54.5	42.3	3.1	56.1	41.3	2.6	64.6	31.7	3.8
	남성	58.3	37.9	3.8	58.5	38.6	2.9	61.7	35.2	3.1	66.4	30.2	3.3
강원특별자치도	여성	58.3	38	3.7	59.9	37.5	2.6	60.2	36.6	3.2	67.7	29.6	2.7
	남성	62.7	33.7	3.7	67.4	30.8	1.8	66.4	31.4	2.3	70.5	27.8	1.7
충청북도	여성	58.6	37.1	4.3	59.0	39.3	1.7	57.7	39.1	3.2	68.3	29.0	2.7
	남성	63.4	33.3	3.3	62.4	34.5	3.1	61.2	35.9	3	69.1	29.3	1.6
충청남도	여성	60.1	36.3	3.6	60.4	37.2	2.4	61.4	36.2	2.4	63.7	33.7	2.7
	남성	62.8	34	3.2	65.4	32.1	2.4	64	33.9	2.1	69.5	28.4	2.1
전북특별자치도	여성	59.8	37.3	2.9	55.0	43.2	1.8	56.6	40.8	2.6	64.0	33.8	2.2
	남성	59.9	37.9	2.2	60.1	37.6	2.2	57.9	39.5	2.6	68.9	28.8	2.3
전라남도	여성	57.8	38.9	3.3	64.5	33.9	1.6	63.3	35	1.6	66.1	31.3	2.6
	남성	57.4	40.3	2.4	66.9	30.3	2.9	66.6	31.5	1.9	67.8	30.0	2.2
경상북도	여성	52.2	43.2	4.5	60.7	37.9	1.4	59.8	37.8	2.4	62.9	33.5	3.6
	남성	57.3	38.5	4.3	59.8	38.4	1.8	58.9	38.1	3.1	66.9	29.9	3.2
경상남도	여성	53.5	42.8	3.7	55.0	42.3	2.7	56.4	41	2.6	61.2	36.0	2.8
	남성	56.4	40.1	3.5	59.9	38.1	2.0	64.1	33.7	2.3	64.6	32.9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57.3	38.5	4.2	60.3	37.5	2.2	61.2	35.7	3	61.1	34.7	4.1
	남성	57	38.8	4.2	62.0	36.2	1.8	66.7	30.9	2.4	64.9	32.5	2.6

주: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2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명 당)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16,940	18,022	106.4	13,673	14,491	106.0	12,627	13,027	103.2
서울특별시	2,006	2,160	107.7	1,541	1,595	103.5	1,425	1,510	106.0
부산광역시	879	960	109.2	736	742	100.8	615	645	104.9
대구광역시	750	811	108.1	591	600	101.5	508	581	114.4
인천광역시	945	1,032	109.2	800	812	101.5	714	772	108.1
광주광역시	545	563	103.3	450	444	98.7	430	429	99.8
대전광역시	561	546	97.3	361	435	120.5	327	354	108.3
울산광역시	393	421	107.1	316	332	105.1	275	316	114.9
세종특별자치시	157	160	101.9	149	143	96.0	120	134	111.7
경기도	4,373	4,809	110.0	3,662	3,938	107.5	3,478	3,506	100.8
강원특별자치도	519	508	97.9	451	406	90.0	405	433	106.9
충청북도	728	705	96.8	538	619	115.1	506	488	96.4
충청남도	956	912	95.4	731	741	101.4	652	699	107.2
전북특별자치도	753	779	103.5	583	657	112.7	506	545	107.7
전라남도	879	858	97.6	723	764	105.7	758	719	94.9
경상북도	944	1,077	114.1	751	842	112.1	720	717	99.6
경상남도	1,202	1,293	107.6	980	1,077	109.9	896	900	100.4
제주특별자치도	350	428	122.3	310	344	111.0	292	279	95.5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10,919	11,645	106.6	10,282	10,954	106.5	8,219	8,656	105.3
서울특별시	1,271	1,287	101.3	1,131	1,263	111.7	834	896	107.4
부산광역시	496	594	119.8	519	500	96.3	382	412	107.9
대구광역시	460	447	97.2	416	446	107.2	300	345	115.0
인천광역시	626	692	110.5	624	561	89.9	476	522	109.7
광주광역시	353	380	107.6	373	365	97.9	296	286	96.6
대전광역시	283	340	120.1	322	306	95.0	220	245	111.4
울산광역시	235	206	87.7	202	256	126.7	161	149	92.5
세종특별자치시	106	109	102.8	124	137	110.5	84	90	107.1
경기도	3,032	3,225	106.4	2,845	3,095	108.8	2,483	2,583	104.0
강원특별자치도	384	403	104.9	355	386	108.7	305	346	113.4
충청북도	412	471	114.3	418	413	98.8	285	305	107.0
충청남도	579	607	104.8	521	561	107.7	428	415	97.0
전북특별자치도	485	524	108.0	439	471	107.3	356	353	99.2
전라남도	614	638	103.9	527	536	101.7	448	491	109.6
경상북도	609	671	110.2	594	661	111.3	466	513	110.1
경상남도	751	793	105.6	646	742	114.9	548	532	97.1
제주특별자치도	223	258	115.7	226	255	112.8	147	173	117.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3-22〉 육아휴직자

(단위: 명,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90,122	78,080	12,042	13.4	99,199	81,537	17,662	17.8	105,165	82,868	22,297	21.2
서울특별시	40,438	35,510	4,928	12.2	43,714	36,063	7,651	17.5	44,204	35,331	8,873	20.1
부산광역시	3,713	3,376	337	9.1	4,232	3,638	594	14.0	4,521	3,726	795	17.6
대구광역시	2,434	2,249	185	7.6	2,663	2,379	284	10.7	2,806	2,441	365	13.0
인천광역시	2,569	2,341	228	8.9	2,958	2,547	411	13.9	3,483	2,774	709	20.4
광주광역시	1,653	1,538	115	7.0	1,876	1,623	253	13.5	2,075	1,736	339	16.3
대전광역시	3,162	2,818	344	10.9	3,340	2,809	531	15.9	3,530	2,796	734	20.8
울산광역시	1,473	1,209	264	17.9	1,694	1,214	480	28.3	1,972	1,312	660	33.5
세종특별자치시	295	265	30	10.2	423	343	80	18.9	546	435	111	20.3
경기도	17,130	15,075	2,055	12.0	18,871	15,690	3,181	16.9	20,653	16,401	4,252	20.6
강원특별자치도	1,808	1,572	236	13.1	2,184	1,779	405	18.5	2,339	1,829	510	21.8
충청북도	1,609	1,423	186	11.6	1,987	1,643	344	17.3	2,157	1,693	464	21.5
충청남도	2,015	1,734	281	13.9	2,456	1,944	512	20.8	2,802	2,043	759	27.1
전북특별자치도	1,719	1,539	180	10.5	1,928	1,690	238	12.3	2,093	1,730	363	17.3
전라남도	1,553	1,324	229	14.7	1,958	1,527	431	22.0	2,282	1,714	568	24.9
경상북도	2,461	2,100	361	14.7	2,900	2,329	571	19.7	3,194	2,471	723	22.6
경상남도	5,183	3,196	1,987	38.3	4,839	3,359	1,480	30.6	5,231	3,459	1,772	33.9
제주특별자치도	907	811	96	10.6	1,176	960	216	18.4	1,277	977	300	23.5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112,038	84,617	27,421	24.5	110,555	81,514	29,041	26.3	131,129	93,245	37,884	28.9
서울특별시	44,797	34,281	10,516	23.5	44,138	32,629	11,509	26.1	50,777	36,521	14,256	28.1
부산광역시	5,030	3,967	1,063	21.1	4,987	3,838	1,149	23.0	5,845	4,388	1,457	24.9
대구광역시	3,014	2,520	494	16.4	2,899	2,379	520	17.9	3,532	2,782	750	21.2
인천광역시	3,985	2,970	1,015	25.5	3,810	2,791	1,019	26.7	4,902	3,395	1,507	30.7
광주광역시	2,118	1,710	408	19.3	2,188	1,780	408	18.6	2,486	1,896	590	23.7
대전광역시	3,698	2,818	880	23.8	3,495	2,629	866	24.8	4,381	3,022	1,359	31.0
울산광역시	2,219	1,378	841	37.9	2,168	1,347	821	37.9	2,536	1,573	963	38.0
세종특별자치시	663	521	142	21.4	723	539	184	25.4	926	667	259	28.0
경기도	22,762	17,314	5,448	23.9	22,524	16,646	5,878	26.1	27,374	19,586	7,788	28.5
강원특별자치도	2,611	2,003	608	23.3	2,545	1,919	626	24.6	3,319	2,384	935	28.2
충청북도	2,382	1,813	569	23.9	2,551	1,882	669	26.2	3,041	2,172	869	28.6
충청남도	3,316	2,295	1,021	30.8	3,415	2,304	1,111	32.5	4,115	2,630	1,485	36.1
전북특별자치도	2,313	1,800	513	22.2	2,347	1,826	521	22.2	2,744	2,031	713	26.0
전라남도	2,540	1,867	673	26.5	2,513	1,814	699	27.8	3,043	2,090	953	31.3
경상북도	3,607	2,573	1,034	28.7	3,647	2,551	1,096	30.1	4,368	2,905	1,463	33.5
경상남도	5,575	3,768	1,807	32.4	5,124	3,546	1,578	30.8	6,086	4,075	2,011	33.0
제주특별자치도	1,408	1,019	389	27.6	1,481	1,094	387	26.1	1,653	1,127	526	31.8

주: 계는 분류 불능이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부표 3-23〉 여가시간

(단위: 시간:분)

시·도	2009년						2014년						2019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전국	3:52	3:23	4:11	6:44	6:03	8:23	3:36	3:15	3:51	6:13	5:38	7:33	3:03	2:39	3:20	5:07	4:27	6:31
서울특별시	3:37	3:16	3:50	6:45	6:02	8:32	3:28	3:09	3:43	6:05	5:29	7:20	3:02	2:44	3:16	5:13	4:31	6:42
부산광역시	3:41	3:11	4:04	6:41	5:57	8:08	3:52	3:25	4:11	6:15	5:37	7:39	3:02	2:43	3:16	5:23	4:41	6:44
대구광역시	3:57	3:27	4:20	7:01	6:04	8:56	3:45	3:19	4:02	6:16	5:41	7:40	3:12	2:51	3:26	5:39	4:59	6:56
인천광역시	3:35	3:01	3:56	6:20	5:48	7:49	3:35	3:18	3:48	6:38	6:03	8:02	3:05	2:43	3:22	5:10	4:18	6:48
광주광역시	4:21	3:54	4:41	7:08	6:22	8:53	3:43	3:17	4:04	6:00	5:30	6:57	2:55	2:26	3:17	5:08	4:28	6:35
대전광역시	4:10	3:41	4:31	6:34	5:57	7:50	3:34	3:12	3:50	5:38	5:17	6:26	2:38	2:18	2:52	4:33	3:52	5:52
울산광역시	3:52	3:20	4:10	6:17	5:45	7:56	3:33	3:03	3:49	5:32	5:10	6:48	3:06	2:35	3:25	4:48	4:22	5:48
세종특별자치도	-	-	-	-	-	-	-	-	-	-	-	-	3:06	2:45	3:18	4:20	3:41	6:20
경기도	3:50	3:28	4:04	6:45	6:05	8:35	3:26	3:13	3:36	6:09	5:35	7:32	2:56	2:32	3:13	4:54	4:15	6:21
강원특별자치도	4:17	3:30	4:52	6:56	6:28	7:48	3:55	3:31	4:13	6:28	5:46	7:53	3:09	2:50	3:25	5:20	4:29	6:50
충청북도	3:55	3:14	4:23	6:42	6:07	7:58	3:25	3:08	3:38	6:20	5:55	7:13	2:54	2:20	3:19	5:11	4:40	6:18
충청남도	4:07	3:38	4:27	6:54	6:08	8:57	3:36	3:00	4:03	6:14	5:46	7:06	3:03	2:33	3:23	4:49	4:04	6:15
전북특별자치도	4:08	3:28	4:37	6:38	6:04	7:56	3:55	3:28	4:16	6:13	5:32	7:40	3:03	2:33	3:28	5:09	4:32	6:15
전라남도	4:12	3:25	4:54	7:25	6:38	8:51	3:48	3:19	4:10	6:23	5:36	8:07	3:30	3:07	3:47	5:19	4:36	6:45
경상북도	4:02	3:32	4:24	6:23	5:45	7:48	3:46	3:23	4:02	6:35	6:02	7:53	3:11	2:38	3:32	4:57	4:27	6:03
경상남도	3:52	3:17	4:15	6:36	5:53	8:29	3:48	3:30	4:00	6:32	5:50	8:27	3:12	2:38	3:36	5:18	4:34	6:47
제주특별자치도	3:57	3:17	4:33	6:53	5:55	8:49	3:42	3:15	4:07	6:32	5:47	7:50	3:21	2:52	3:45	5:56	5:26	6:46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24〉 여가활용 만족도

(단위: %)

시·도	성별	2017			2019			2021			2023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26.9	45.8	27.3	28.2	46.9	24.8	26.1	49.1	24.8	33.7	47.2	19.1
	남성	27.6	47.4	25.1	29.4	47.0	23.6	27.9	49.8	22.3	34.9	47.0	18.2
서울특별시	여성	28.9	44.0	27.2	29.1	47.1	23.9	29.2	47.1	23.6	36.7	45.6	17.7
	남성	30.2	44.6	25.1	29.5	48.5	22.0	28.6	50.8	20.6	38.3	42.6	19.0
부산광역시	여성	24.6	47.7	27.7	23.3	44.5	32.2	23.9	49.2	26.8	33.2	47.4	19.3
	남성	23.0	50.3	26.7	25.9	44.4	29.7	22.8	51.0	26.2	32.6	50.2	17.2
대구광역시	여성	21.3	45.0	33.7	24.6	48.3	27.2	22.2	55.7	22.1	30.7	51.2	18.1
	남성	21.9	46.7	31.4	25.3	46.6	28.2	24.3	54.5	21.2	29.1	51.9	18.9
인천광역시	여성	26.0	46.9	27.2	31.0	44.8	24.1	25.1	52.1	22.7	33.6	45.5	20.9
	남성	25.5	48.8	25.7	31.5	44.8	23.7	28.8	50.8	20.5	32.3	48.6	19.2
광주광역시	여성	27.4	46.7	25.9	29.9	40.8	29.4	22.4	50.8	26.9	31.9	47.5	20.6
	남성	28.4	49.1	22.4	31.7	47.5	20.7	28.5	48.7	22.8	32.9	50.6	16.5
대전광역시	여성	30.2	41.1	28.7	28.2	44.7	27.2	29.6	46.5	24.0	38.2	45.4	16.5
	남성	28.7	44.4	26.9	29.7	45.8	24.5	32.8	44.1	23.0	38.3	45.1	16.5
울산광역시	여성	25.6	47.7	26.8	33.1	44.6	22.4	30.5	48.7	20.8	28.8	48.6	22.6
	남성	24.9	52.5	22.5	31.0	46.5	22.4	31.9	49.4	18.7	33.3	50.3	16.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31.2	43.4	25.4	37.2	42.0	20.8	33.1	40.7	26.2	40.6	42.3	17.0
	남성	34.8	44.7	20.6	41.4	42.0	16.7	30.3	47.4	22.3	36.6	47.3	16.1
경기도	여성	28.2	43.1	28.8	29.5	46.2	24.3	27.3	45.1	27.6	34.4	46.6	19.1
	남성	27.2	46.3	26.5	29.9	45.8	24.3	28.2	46.9	24.8	35.4	46.3	18.4
강원특별자치도	여성	26.7	49.4	23.9	28.0	46.8	25.2	26.9	50.4	22.7	30.7	50.7	18.6
	남성	31.2	50.6	18.1	33.2	46.8	20.1	28.8	52.5	18.7	36.3	50.1	13.7
충청북도	여성	24.9	44.9	30.3	28.2	47.5	24.4	22.3	50.3	27.4	34.5	43.6	21.8
	남성	28.9	44.5	26.6	25.6	48.9	25.5	25.9	52.6	21.5	35.5	44.4	20.1
충청남도	여성	22.4	52.2	25.5	27.4	49.0	23.7	21.4	55.5	23.1	28.9	50.4	20.7
	남성	25.8	51.3	22.8	29.0	47.4	23.5	28.9	51.5	19.6	33.3	48.0	18.7
전북특별자치도	여성	21.8	50.7	27.4	21.9	52.2	25.8	23.5	47.5	29.0	34.3	45.9	19.7
	남성	25.9	49.7	24.5	29.3	47.9	22.8	27.5	48.1	24.4	36.8	42.5	20.6
전라남도	여성	26.0	45.3	28.6	26.0	50.4	23.5	26.5	55.0	18.5	30.0	52.2	17.8
	남성	30.4	45.6	24.0	31.4	48.0	20.7	31.9	50.0	18.1	32.5	50.3	17.2
경상북도	여성	25.5	49.5	24.9	27.1	49.4	23.5	21.3	53.7	25.0	29.9	51.0	19.1
	남성	28.3	49.1	22.6	29.0	49.4	21.6	24.9	51.7	23.4	29.7	53.8	16.5
경상남도	여성	29.7	48.7	21.6	28.9	49.6	21.5	25.5	53.1	21.3	32.1	46.8	21.1
	남성	28.3	49.5	22.3	28.9	49.9	21.2	26.5	52.4	21.1	35.5	46.2	18.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27.5	53.9	18.6	27.5	48.5	24.0	26.8	50.9	22.4	37.9	46.0	16.2
	남성	30.6	51.5	17.9	30.7	41.4	27.8	31.5	49.6	18.9	35.2	49.6	15.2

주: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25〉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90.3	87.7	92.7	91.5	89.1	93.9	91.8	89.6	93.9
서울특별시	90.5	88.5	92.6	91.4	89.6	93.3	92.2	90.3	94.2
부산광역시	93.3	91.9	94.8	92.8	90.9	94.9	92.8	89.6	96.3
대구광역시	93.6	91.9	95.3	94.9	94.0	95.8	98.2	97.9	98.6
인천광역시	89.0	86.5	91.5	91.5	89.1	93.9	93.2	91.1	95.2
광주광역시	93.9	91.8	96.2	94.5	92.6	96.3	91.5	89.5	93.5
대전광역시	91.8	90.0	93.7	94.1	92.8	95.5	94.7	93.6	95.7
울산광역시	97.0	96.5	97.4	95.2	93.9	96.5	93.7	91.6	95.6
세종특별자치시	92.4	91.4	93.5	95.5	94.9	96.2	97.9	97.1	98.6
경기도	90.3	87.9	92.6	91.7	89.1	94.2	91.1	89.3	92.9
강원특별자치도	83.1	78.5	87.6	83.7	79.6	87.7	84.9	80.9	88.9
충청북도	87.8	85.5	90.0	91.1	89.4	92.8	95.6	94.6	96.7
충청남도	89.0	86.2	91.7	92.2	89.9	94.5	95.8	94.5	97.1
전북특별자치도	89.4	87.4	91.5	90.2	87.9	92.4	85.1	81.8	88.4
전라남도	83.6	76.3	90.8	85.3	79.5	91.1	84.3	79.9	88.7
경상북도	89.0	85.3	92.6	92.3	89.3	95.2	94.4	92.3	96.5
경상남도	91.0	88.1	93.8	90.7	87.2	94.1	88.7	85.1	92.1
제주특별자치도	86.7	82.7	90.5	88.9	85.6	92.2	88.8	86.4	91.1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91.9	89.7	94.0	93.0	90.9	95.0	93.0	91.5	94.5
서울특별시	92.3	91.0	93.7	93.2	91.6	94.9	92.0	90.8	93.4
부산광역시	93.0	91.0	95.0	96.1	95.0	97.3	95.5	94.5	96.5
대구광역시	96.5	95.1	98.0	93.5	92.1	95.0	95.6	94.2	97.0
인천광역시	91.4	88.7	94.1	93.9	91.5	96.2	93.6	92.1	95.1
광주광역시	92.0	89.6	94.6	95.2	94.2	96.3	98.6	97.9	99.4
대전광역시	94.1	93.4	94.8	92.1	89.8	94.3	93.8	92.7	95.0
울산광역시	95.9	94.6	97.1	97.9	96.9	98.9	97.9	97.7	98.0
세종특별자치시	99.1	99.0	99.3	89.4	87.5	91.2	93.0	91.8	94.2
경기도	92.3	90.3	94.3	94.3	92.5	96.0	83.1	79.8	86.4
강원특별자치도	80.6	77.3	83.9	82.0	78.0	86.0	93.5	92.0	95.0
충청북도	95.0	94.0	96.0	91.5	89.5	93.4	92.3	86.4	97.9
충청남도	92.3	89.7	94.8	91.1	88.9	93.2	89.7	89.9	89.5
전북특별자치도	87.4	83.7	91.1	89.7	86.6	92.9	92.7	91.6	93.7
전라남도	86.0	81.9	90.1	86.6	82.0	91.2	85.7	82.0	89.4
경상북도	93.3	91.2	95.3	91.4	89.0	93.7	93.9	92.4	95.5
경상남도	89.5	85.5	93.3	94.9	92.7	96.9	94.0	93.5	94.4
제주특별자치도	89.1	86.8	91.4	87.8	83.3	92.2	96.0	95.6	96.4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부표 3-2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단위: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59,514	108,471	35.4	64,097	104,514	38.0	71,971	110,829	41.4
서울특별시	9,430	12,774	42.5	9,415	12,533	42.9	10,302	13,224	45.5
부산광역시	3,697	6,152	37.5	4,069	6,174	39.7	4,410	6,357	43.9
대구광역시	1,977	3,537	35.9	2,263	3,412	39.9	2,465	3,406	45.9
인천광역시	3,553	5,379	39.8	3,731	5,114	42.2	4,089	5,319	43.3
광주광역시	1,833	3,050	37.5	1,937	2,944	39.7	2,025	3,227	41.7
대전광역시	2,143	3,244	39.8	2,378	3,424	41.0	2,349	3,185	44.2
울산광역시	1,704	2,961	36.5	1,751	2,743	39.0	1,964	3,102	41.2
세종특별자치시	521	842	38.2	667	971	40.7	716	1,012	45.8
경기도	9,726	17,418	35.8	10,390	16,943	38.0	12,334	18,759	41.8
강원특별자치도	3,270	7,369	30.7	3,478	6,436	35.1	3,832	7,073	36.6
충청북도	2,913	5,204	35.9	3,287	5,310	38.2	3,612	5,382	43.2
충청남도	3,418	7,618	31.0	3,799	6,993	35.2	4,652	7,705	39.7
전북특별자치도	2,831	6,287	31.0	3,090	5,721	35.1	3,381	5,994	39.2
전라남도	4,002	8,958	30.9	4,765	9,020	34.6	5,369	9,067	39.4
경상북도	3,537	8,049	30.5	3,711	7,396	33.4	4,419	8,133	37.6
경상남도	4,069	8,244	33.0	4,441	7,984	35.7	5,110	8,516	39.1
제주특별자치도	890	1,385	39.1	925	1,396	39.9	942	1,368	44.3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77,290	116,541	41.8	81,245	119,998	42.5	84,817	125,359	42.7
서울특별시	10,834	13,487	45.3	10,677	13,209	46.0	10,861	13,351	46.1
부산광역시	4,564	6,687	43.4	4,782	7,122	43.5	5,263	7,785	43.8
대구광역시	2,671	3,721	45.4	2,840	3,831	45.6	2,803	3,729	45.3
인천광역시	4,322	5,545	44.1	4,423	5,520	44.9	4,313	5,735	44.3
광주광역시	2,048	3,157	42.1	2,187	3,345	41.7	2,492	3,666	42.3
대전광역시	2,469	3,346	44.3	2,619	3,386	45.9	2,681	3,458	46.9
울산광역시	2,166	3,324	42.0	2,260	3,662	41.5	2,256	3,530	41.6
세종특별자치시	1,019	1,426	45.8	1,087	1,511	45.6	1,001	1,457	45.3
경기도	13,268	20,174	42.2	14,226	20,730	43.0	15,505	22,697	42.8
강원특별자치도	3,832	7,053	37.1	3,802	7,157	36.9	4,001	7,609	36.8
충청북도	4,044	5,842	43.7	4,256	5,860	44.6	4,485	6,245	44.1
충청남도	5,062	7,852	40.7	5,487	8,164	42.1	5,613	8,465	42.7
전북특별자치도	3,587	6,178	39.9	3,937	6,716	40.0	4,042	6,798	40.3
전라남도	5,943	9,599	40.4	6,383	10,204	41.0	6,502	10,569	40.7
경상북도	4,701	8,420	38.4	5,230	8,739	40.4	5,657	9,229	41.1
경상남도	5,765	9,317	39.8	6,051	9,447	41.0	6,330	9,596	41.9
제주특별자치도	995	1,413	45.3	998	1,395	45.8	1,012	1,440	45.2

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부표 3-27〉 스트레스인지율

(단위: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9.1	30.7	27.5	27.3	29.6	24.9	28.6	29.8	27.4
서울특별시	26.8	27.7	25.8	26.4	26.8	26.0	25.8	27.6	23.9
부산광역시	24.3	24.6	24.0	22.9	23.2	22.6	21.9	22.4	21.5
대구광역시	23.9	24.1	23.7	21.9	22.8	21.0	23.4	24.6	22.2
인천광역시	27.6	28.3	26.9	30.4	30.3	30.5	28.1	28.3	27.8
광주광역시	27.5	28.2	26.8	25.6	26.6	24.5	26.7	27	26.4
대전광역시	24.3	22.6	26.1	26.5	27.5	25.5	23.8	23.3	24.2
울산광역시	23.3	23.9	22.7	23.8	23.6	24.0	22.3	23.2	21.4
세종특별자치시	28.9	30.4	27.3	30.9	28.2	33.6	28.4	27.5	29.3
경기도	29.1	28.6	29.7	27.6	26.6	28.7	26.5	26.3	26.8
강원특별자치도	26.6	27.2	26.0	25.0	26.2	23.9	22.8	25.1	20.4
충청북도	27.7	29.1	26.4	25.5	25.9	25.0	24.3	26	22.7
충청남도	29.0	29.3	28.6	26.0	26.2	25.8	27.6	27.2	28.1
전북특별자치도	21.9	22.7	21.2	26.4	27.2	25.6	23.6	23.8	23.4
전라남도	23.4	23.9	22.9	23.3	25.0	21.7	22.1	23.4	20.9
경상북도	22.6	22.2	22.9	22.6	22.9	22.2	21.8	22.8	20.7
경상남도	20.9	21.5	20.4	23.4	24.4	22.4	21.6	23.2	20.1
제주특별자치도	23.4	25.3	21.5	25.4	25.6	25.2	21.9	22.6	21.2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9.0	30.6	27.5	26.4	28.1	24.7	-	-	-
서울특별시	27.8	29.2	26.3	26.3	27.9	24.5	24.0	25.2	22.7
부산광역시	23.1	23.9	22.3	23.2	24.3	22.1	20.8	21.6	19.8
대구광역시	21.6	21.9	21.2	22.1	23.1	21.1	20.3	20.9	19.6
인천광역시	30.7	30.9	30.4	27.5	28.9	26.2	24.2	26.3	22.0
광주광역시	25.8	27.0	24.6	25.8	26.7	24.8	24.3	24.7	23.8
대전광역시	22.3	22.2	22.4	22.2	23.2	21.3	23.4	23.4	23.4
울산광역시	23.8	25.0	22.5	23.3	26.4	20.3	20.5	21.9	19.2
세종특별자치시	24.0	22.1	25.9	24.9	25.0	24.7	20.1	20.8	19.4
경기도	27.5	27.7	27.3	26.5	27.2	25.8	23.2	23.6	22.8
강원특별자치도	24.9	25.9	24.0	24.4	24.9	23.9	22.0	23.4	20.7
충청북도	24.0	25.2	22.8	24.6	24.9	24.2	22.7	23.9	21.5
충청남도	25.2	25.0	25.4	24.9	25.9	24.0	22.9	24.6	21.2
전북특별자치도	24.6	24.6	24.6	23.1	24.6	21.6	22.7	24.2	21.1
전라남도	18.8	20.9	16.8	21.0	22.1	19.9	19.6	21.1	18.2
경상북도	21.6	21.7	21.4	21.4	23.1	19.7	20.4	22.5	18.4
경상남도	23.5	23.8	23.2	22.2	22.7	21.6	20.7	21.8	19.6
제주특별자치도	24.6	25.3	23.9	23.8	25.9	21.7	23.0	24.2	21.8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3년 12월 17일 인쇄

2023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29-10